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자비를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5월 18일) · 주간

제946호 2013년 6월 26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육조단경

깨달음의 지혜는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까닭에
자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독자·시장·재정' 3低… 시름하는 불교출판

서울 국제도서전 불참, 불교출판 현주소는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 박람회인 서울 국제도서전이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한국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분야의 출판사들이 참가했지만,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 이하 불출협)은 참가하지 않았다. 두란노서적, 예영커뮤니케이션, 한국기독교출판협회 등 개신교 대표 출판사와 단체들이 출판 부스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기독교 문화거리'를 조성한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복수의 불교출판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국제도서전 참가를 2012년부터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유는 서울국제도서전이 너무 아동 위주 체험 행사로 변질됐고, 비용과 인력 대비 홍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물론 서울국제도서전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도서 나열과 할인 판매에 그치고 있어 전체 참가 출판사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불교계 관련 출판사들의 참가가 전무한 것은 불교 출판업계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애초 위기였던 불교 출판업계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는 뚜렷한 단초 중 하나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조계사 앞 마당에서 열리는 '불교도서전'의 매출 감소다. 2011년 2000만원 대였던 매출이 지난해 백양사 승려 도박사건으로 1400만원으로 급감했다. 올해에도 행사 기간동안 1800만원의 수익을 얻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렇게 불교계 출판이 악재를 거듭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불교계 출판 관계자들은 독자 · 시장 · 저자층이 얇다는 것을 이유로 꼽는다. 즉, 총체적인 시스템의 부재로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것이다. 불자가 책을 읽지 않으니, 시장은 좁아지고, 저자 층도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출판사들은 재정에 허덕일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은 출판협회의 차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독서열이 높은 기독교의 경우 한국기독교출판협회에 등록된 출판사만 무려 1백67곳에 이르며 매년 2000종 이상의 책을 발간한다. 반면 불교는 불출협에 소속된 출판사는 24곳에 불과하다.

실제 불서총판 운주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된 불교 관련 서적은 총 400종. 그중 114종이 스님의 법문이나 에세이로 가장 높은 비중을 가졌다. 또한 불출협 소속 출판사에서 발간한 도서는 127종에 그쳤으며, 그나마도 운주사?불광출판사 · 민족사 등에 출간 비율이 편중돼 있었다. 독자와 시장이 없는 불교계 출판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불교 출판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할까? 불교 출판 관계자들은 불자들의 독서열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열 운주사 대표는 "불교계 출판사들도 양질의 기획 도서를 시장에 내놔야 하지만 한국불자들은 책을 경시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며 "또한 노령층이 주요 신도 층이다 보니 책에 대한 수요가 적다"고 지적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한국불교 스님들부터 책은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해 있다. 이를 신도들도 그대로 배우는 것"이라며 "독서도 좋은 음식과 같다. 쉬운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교양을 함의할 수 있도록 책을 읽어야 한다. 지적 수준이 바탕되지 않는 종교는 단순한 맹종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계종 차원에서 사찰도서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 실질적인 불서 읽기 운동이 필요하다. 조계종 전 종도가 책을 읽는 풍도가 조성되도록 종단 차원의 불서 읽기 캠페인을 전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른 출판 관계자는 "적지 않는 스타 필진 스님을 불교계는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외부 출판사를 통해 이름을 높인 후 불교계 출판사에서 회향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스타 마케팅을 통해서라도 재정을 확보해야 양질의 기획 도서 등를 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2012 불교 관련 출판 총수 및 분류

분 류	종 수
법어/에세이	114
경전/계율	66
수행/위빠사나/기도	33
소설/시/예술	33
학술서	28
선서	26
인물/평전/행장	17
입문/개론	14
기행/순례/역사/문화재	18
포교/교육/의식/음악	11
아동/만화/카툰	8
기타(티베트불교/종교일반 등)	32
전체	400

2012 불출협 회원사 발간 도서 종수

출판사	종수
운주사	27
불광출판사	23
민족사	13
동국대출판부, 조계종출판사	12
담앤북스, 정우 서적	6
김영사	5
동국대역경원, 불교시대사	4
법공양, 클리어마인드	3
정토출판, 우리출판사, 솔바람, 동쪽나라	2
부다가야	1
전체	127

(자료제공 : 운주사)

2년 연속 국제도서전 불참
비용 대비 홍보 효과 없어
개신교, 연합해 거리 조성
불교도서전도 매출 감소 중

지난해 불교 도서 400종
법문 · 에세이만 114종 편중

책 안 읽는 불교계 풍토가
시장 형성 저하에 주 원인
"종단 차원 독서캠페인을"

신임 군종교구장 후보 정우 스님

상임위원회서 만장일치로 추대… 총무원장 임명 남아



제3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후보에 정우 스님(강남 구룡사 회주 · 사진)이 추천됐다. 군종교구 상임위원회는 6월 18일 국방부 원광사에서 정우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따라서 정우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후 7월 26일 이취임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간다.

한편, 정우 스님은 1968년 통도사에서 홍법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71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9대~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통도사 주지, 총무원 총무부장 등을 지냈다. 서울 강남에 구룡사를 창건하는 등 도심포교의 선구자로도 이름이 높다.

무엇보다 20대부터 군포교에 남다른 애정을 쏟아 일반 사병으로 26사단에서 복무하면서 군법당 2곳을 창건한 것으로 유명하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직능기구 참여로 종회의원 선출"

종단 쇄신위,10차 회의로 활동 종료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 이하 종단쇄신위)가 중앙종회 직능대표의 전문성 및 대표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격을 강화하는 쇄신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직능기구를 종단 내 공식기구로 승격시켜 선출위원회에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다.

종단쇄신위는 6월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0차 회의를 열어 '중앙종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중앙종무기관 개선을 위한 제안', '법계직무제도 제안' 등을 논의 · 의결했다.

이날 종단쇄신위는 중앙종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 쇄신위는 이날 "현재 직능직 종회의원을 선출하는데 있어 직능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원수좌회 등 임의단체 성격의 직능기구를 종법기구로 공시화시켜 직능대표선출위에 동참시킬 것을 결의했다.

한편,종단쇄신위는 이날 제10차 회의로 활동을 종료했다. 회의 시작 전 위원장 밀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지난해 일어난 불미스런일로 종단쇄신위가 발족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일들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종단쇄신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잘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기획실장 주경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만든 쇄신안이 종단 내 충실히 구현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법당에 부처님이 왜 이렇게 많죠?

사제 서품을 앞둔 천주교 부제들이 6월 18일 서울 화계사를 방문해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19일까지 '제7회 주교회의와 함께하는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를 진행 중인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주교)가 마련한 것으로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수원 · 인천 등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부제 130여명이 참가했다.

부제들은 화계사가 준비한 저녁공양을 마치고 화계사 경내를 돌아본 후 대적광전에서 진행된 저녁예불에 참석해 대중들과 똑같이 저녁예불을 체험했다. 예불을 모신 후 부제들은 주지 수암 스님과 대화 시간에 평소에 궁금했던 불교에 관해 직접 묻고 대화를 나누었다.

글, 사진= 박재완 기자

946호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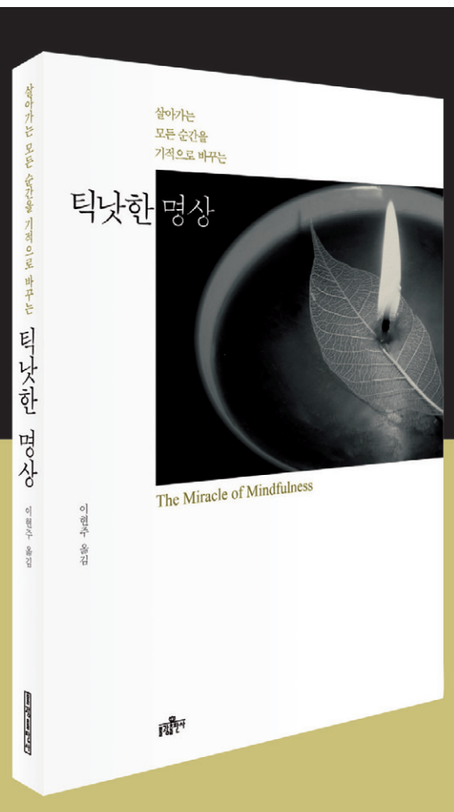
시방세계 5
"불교 전해준 한국에 고통준 것 참회"



학술 9
금강대, 하버드대 공동으로
유가사지론 집대성 총서 간행

호국사찰 고성 건봉사를 가다 12

화엄만다라 16 · 17
최동호 고려대 국문과 교수



The Miracle of Mindfulness

먹고, 걷고, 일하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게 하는
틱낫한 스님 명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틱낫한 명상

이현주 옮김 | 160쪽 | 11,000원

1995년 최초 한국어판 출간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진정한 성찰과 감동을 전해온 틱낫한 스님의 대표 명상 책

유나방송 정목 스님 추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마치 관찰 수행 같기만 합니다. '출렁이는 물결도 물이듯이 어지러워진 마음도 역시 마음이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들 수 있을 때 미혹된 마음이 참마음으로 바뀐다'는 그 말씀 되새기며, 스님 책이 많은 이의 미혹된 마음을 참마음으로 바꾸어놓기를 기대합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마음의 움직임은

하늘의 구름처럼 스스로 사라지니

마음에는 어떠한 기준점이 없느니라.

하늘에 구름층이 형성되더라도 하늘의 본질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름이 흩어진다 하더라도 하늘의 본질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지요. 하늘은 더울 넓어지거나 맑아지지 않으며 좁아지거나 탁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한다거나 어떤 것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의 본성도 이와 같습니다. 생각의 일어남이나 사라짐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근본성품은 '공성' 입니다. 그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남이 '명징성' 입니다. 이 두 측면에서 본다면 마음은 서술하려는 의도에 따라 구분되겠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마치 이 두 개념이 독립된 실체이기라도 한 것처럼, '공성' 이라는 개념이나 '명징' 이라는 개념 어느 하나에만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궁극적인 마음의 본질은 모든 개념이나 정의, 편파적인 견해를 넘어섭니다.

아이가 '나는 저 구름 위를 걸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아이가 구름 위에 서더라도, 발 디딜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면밀히 관찰하기 전까지 생각은 매우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다 생각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법의 '현공일여' 라는 것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4파전'

수열 · 백운 · 월운 · 도산 스님 6월 20일 후보 등록 마감

오는 7월 18일 열리는 한국불교태고종 제 25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에 수열 · 백운 · 월운 · 도산 스님(기호순)이 확정됐다. 이에 네 후보들은 순위 기호가 확정된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유세 운동에 돌입했으며, 7월 9일(밀양) · 10일(대전) · 12일(서울 전승관)에는 각각 정견 발표 및 공개 토론회를 펼칠 예정이다.

중앙종회의원만이 총무원장 선출 투표권을 갖던 과거와는 달리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처리질 이번 선거에는 중앙종회의원, 교구종무원장, 교구선거인단 등 147명이 투표권을 갖게된다. 특히 교구선거인단은 30명의 종도당 1명꼴로 선출된다.

이 네 후보 가운데 실제로는 종단사 간행위원회를 결성해 〈태고종사〉를 발행하며 한국불교사에 대한 굴절된 시각을 바로잡았다는 평가를 받는 수열 스님과 보우승가회의 수장직을 맡으며 태고종의 개혁을 선도해 온 도산 스님, 그리고 사정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거친 월운 스님 등 3파전으로 압축된다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네 후보중 5월초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이는 월운 스님(前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2009년 비리 의혹으로 중도하차한 운산 스님을 대신해 총무원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인물이다. 6월 24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종단 관련 부채문제 해결 ▷교육제도 보완 및 교육인프라 구축 △수행공간 확보 및 위계질서 확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종단쇄신위 구성, 집단 지도체체 도입 등을 통해 종무행정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투표인단 147명 확정

7월 9~12일 토론회 개최

7월 18일 선거서 최종 결정

도산 스님도 서울 종로오피스텔에 선거캠프를 마련하고는 6월 18일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스님은 "50여억원에 달하는 종단의 부채는 가장 먼저 꺼야할 발등의 불이므로 종단 소유의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책임 있는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또한 스님은 "8대 핵심기조와 18대 공약을 실천해 제 2의 창종에 버금가는 재도약의 초석을 놓겠다"며 종무행정 투명화, 승가전통 회복, 종단 재정 안정을 3대 공약원칙으로 내세웠다.



6월 20일 기호 추첨 후 네 후보들은 모여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왼쪽부터 도산 · 수열 · 백운 · 월운 스님 순. 사진=박재완 기자

제주교구종무원장을 비롯해 종단사 간행위원장, (사)서귀포불교문화원 이사장 등의 이력이 있는 수열 스님(선광사 주지)도 6월 20일 한국불교전승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수열 스님은 "태고종 부채의 가장 큰 요인인 신촌 봉원사 연지원 문제를 정상화해 부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운을 띤 뒤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 감사기관 부활을 비롯해 각종 법안 지원서비스, 창건주의 승계보장, 사찰보유문화재 지원 서비스 등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교육정책 △복지사업 활성화 △인재 발굴 · 영입 △종도 · 종단사찰 질적 향상 도모 △종단 정통성 계승 위한 정책 △종단 현안문제 해결 △포교사업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같은 문중이면서 같은 지역인 제주 출신의 도산 스님과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서로 성향이 달라 굳이 함께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단호한 어조로 일축했다.

6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의사를 밝힌 백운 스님도 "지금 태고종이 가장 어려운 시기지만 종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공약했던 종단 현안문제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등 오히려 종도 간에 불신과 대립만 난무해 종단의 명예와 위상이 크게 실추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한국 · 대승 · 현대불교 기치 다시 세우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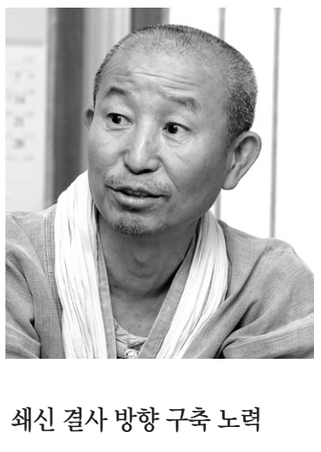
도법 스님, 결사추진본부장 연임

"한국불교를 한국답게, 대승불교를 대승불교답게, 현대불교를 현대불교답게 만드는 것이 결사추진본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이 같은 기조와 방향을 만드는 데 지난 2년을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6월 17일 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본부장에 연임된 도법 스님〈사진〉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그간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도법 스님은 결사추진본부의 2년간의 성과가 결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에 있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결사추진본부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종단 안팎으로 적지 않았던 상황. 특히 결사의 방향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승가의 변화가 적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도법 스님은 공감대가 더디지만 결사의 방향성을 구축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쇄신 결사 방향 구축 노력

"가시적 성과 있었다" 평가

구체적 실천론이 향후 과제

"결사의 방향과 이해와 인식에 대한 공감대는 더디지만 천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불교계 행사에 '생명평화결사' 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실 2년 결사로 종단이 바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부대중이 '네가 하지 않아도 나는 한다' 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결사추진본부는 6월 말로 쇄신위 활동이 종료되면 본래 사업에 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종교평화선언 발표를 비롯해 '미래세대' 를 주제로 한 야단법석 시즌3, 이주민 불자 무차대회 등을 봉행한다. 오는 8월 9일 500일을 맞는 생명평화 1000일 정진도 보다 자발적인 동참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인터뷰 말미, 도법 스님은 결사의 주인공은 총무원 집행부가 아닌 사부대중 공동체임을 재차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쇄신안이 나와도 대중들의 동참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자성과 쇄신 결사의 시작은 총무원 집행부에서 비롯됐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주인인 사부대중이 주체가 돼야 합니다. 사부대중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졌을 때 결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정관 개정 놓고 종관위 · 동창회 '재갈등'

재가 이사를 추천하는 정관 개정을 두고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과 동국대 총동창회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동국대총동창회(회장 이연택)은 6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국대 재단 준법 정관 채택 촉구 동문-불자 1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 을 공포했다. 총동창회는 선언문에서 "총무원장, 재단 이사장 측의 부당한 업무처리 시도 등은 동국 가족 모두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았다"고 성토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덕문, 이하 종관위)도 6월 18일 제90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 스님들은 종립학교관리법 제7조 3창의 감사권을 확실히 하고 징계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종립학교의 감사 보고를 8월까지 받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이에 종관위는 종립학교법 제7조 3항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를 꾸려 법 개정 전반을 위임하기로 했다.

신중일 기자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신문, 영어학 등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 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7월 20일

5. 문의처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학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중국 남경

중 · 고생 조기유학

1. 입학대상

·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2학년

2. 제출서류

· 가족등본, 여권, 여권용 사진 7매, 최종재학증명서

3. 제출기한

· 7월 20일까지

4. 유학생특전

· 호텔기숙사,한식제공, 3월 어학후 9월 입학, 고교졸업 후 대학입학 보장
1년내 신 HSK(중국어 수평고사 : 4, 5급 보장)

6.한국상담처

· 02) 511-2026~ 2027 / 핸드폰 010-4552-5281

인터넷홈페이지 : **www.njsdfx.co.kr**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나라 잘 지키겠어요”

군장병들 ‘초파일 간식’에 감사

최전방에 있는 군장병들이 불교여성개발원에 감사의 그림편지를 보내왔다. 불교여성개발원 명상리더십센터(센터장 황수경)가 지난 5월 중순 초파일 법회에 병사들에게 손수 포장한 간식을 담아 전달한 ‘자비의 선물’에 대한 보답이다.

명상리더십센터와 불교여성개발원 회원들은 ‘자비의 선물’ 3000개를 포장해 근무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최전방 부대 중에서도 외출과 면회가 불가능한 북한군 철책선에서 근무중인 GOP, GP 장병들에게 전달했다.

글=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인사 66명이 평화통일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6月, ‘한반도 평화’ 목소리 높다

불교계 등 각계 인사 66명
‘국민통합선언문’ 발표
포교원 평화기원 등반대회
통도사 25일 100일 정진 입재

남북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각계 인사들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적 합의를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종교,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 66명은 6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선언문’을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사회적 공의를 모을 것을 당부했다.

선언문에 동참한 불교계 인사로는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인사들은 선언문에서 “올해로 우리는 분단 68주년, 정전 60주년을 맞았지만 지금도 우리는 통일은커녕 한반도의 심각한 긴장 고조로 전재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남북간 상존해 온 불신과 적대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할 때 민족의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북 관계 기본 원칙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 △끊임 없는 남북 민간 경제교류 협력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반도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등반대회도 열렸다.조계종 포교원은 6월 16일 북한산에서 한반도 평화 기원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와 조계종 산악회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 앞서 서울 도선사에서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지승동 직할교구 신도회장, 엄홍길 조계종 산악회장을 비롯한 불자 산악인 2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등반 법회가 봉행됐다.

이와 함께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는 6월 25일 경내 설법전에서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평화통일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범어사, 해인사 등 전국 교구본사와 주요사찰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100일 기도 정진에 들어갔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스님과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도 기도입재에 대거 동참했다.

신중일 · 노덕현 기자

경허집 등 근대문헌 영역화 사업 ‘본격화’

조계종 총무원은 6월 12일 근대 한국불교 대표 문헌 영역편찬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편찬위원에는 현각 스님(동국대 학술원장), 미산 스님(중앙승가대학 총장대행), 주경 스님(총무원 기획실장), 법인 스님(교육원 교육부장) 등이 임명됐다.

편찬위원회는 한국 근대불교의 특징을 드러내는 문헌을 인물별 · 영역별 등으로 나누어 대표성을 띤 10종을 선정키로 결의했으며, 1년차 사업으로는 1차 번역대상 문헌 4종을 우선 선별했다.

1차 선정된 대표 문헌은 경허 스님의 〈경허집〉, 용성 스님의 〈각해일륜〉, 이능화 스님의 〈백교회통〉, 김영수의 〈조선불교사고〉 등이다. 신중일 기자

불교방송 이사장 이번엔 선출될까

7월 1일 제83차 이사회

불교방송 제83차 이사회가 오는 7월1일 오후2시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이사회는 영담스님이 사임서를 제출해 이사장직이 공석이 된 가운데 정관에 따라 이채원 불교방송 사장이 소집했다. 제83차 이사회는 지난 5월에 열린 제82차 이사회에서 선출하지 못한 신임 이사장 선출이 핵심 안건이다.

지난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장에 조계종 원로의원 종하스님이 단독으로 추천됐으나 선출방식을 놓고 이사들 간에 의견이 엇갈려 선출하지 못했다.

신중일 기자

다시 고개 드는 ‘공직자 종교편향의 악몽’

박근혜 정부 출범 4개월 간 4건… 불교계 대책 필요

이명박 정부 당시 불교계를 공분하게 했던 ‘공직자 종교편향의 악몽’이 친불교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현 정부에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4개월만에 벌써 4건의 공직자 종교편향 사례가 발생했다.

가장 먼저 불교계가 현 정부 출범이후 첫 ‘종교편향’ 사례로 규정하고 공식 대응한 것은 지난 5월 있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등회 장엄등 설치 거부였다.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특정종교의 시설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설치를 거부했지만 불교계의 항의가 거세지자 설치를 허가했다. 하지만 이영근 사장직무 대행 당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성대하게 개최한 것이 알려지면서 다시 불교계에 공분을 샀고, 결국 새로 취임한 정찬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6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을 사과 방문했다.

이날 자리에서 정 사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며, 당시 일은 결과적으로 부실하고 잘못된 판단이였다. 신임 사장으로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인천공항을 방문해 내년 연등회 전통등 설치 장소, 기간 등 두루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정부 행정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종교편향 논란이 불거졌다. 과학전문지인 동아사이언스는 6월 11일자 홈페이지를 통해 ‘미래부 특정 종교 입김 강해지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5월 초 미래창조과학부 내 설립된 기독선교회는 한 달에 1명 이상에게 복음을 제시하자는 ‘1+1운동’을 올해 표어로 하고, 이단에 대한 동향 파악과 공동 대처를 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미래부 기독선교회는 타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직원들은 ‘미전도 종족’으로 규정하고, 매주 금요일 점심에 정부과천청사나 초소, 공원 등에서 전도하는 한편 월 1회 점심식사를 대접하며 전도를 생활화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 같은 문건의 존재에 대해 선교회 관계자는 “열혈 신도가 개인적 의견을 정리해 배포한 것으로 선교회 내에서 상의한 바도 없고 합의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지만 불교계의 공분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 內 선교회
‘전직원 복음화’ 문건 파문
국회의원은 교회로 인사청탁
50사단 식사기도서 종교편향
인천공항 연등 거부 사과도

또한 보병 50사단 식사기도문에는 ‘신의 무한한 은총’이라는 특정종교를 지칭하는 문구가 담겨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사실은 MBC 예능프로그램 ‘진짜 사나이’를 통해 공개됐다.

오 의원과 50사단 문제에 대해서는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가 항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응에 들어갔다.

종평위는 50사단에 6월 17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해당 식사기도문이 사병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단 내 전체 식사기도문 내용을 조사하고 조사 자료를 공개토록 한데 이어 사단 내 종교차별 예방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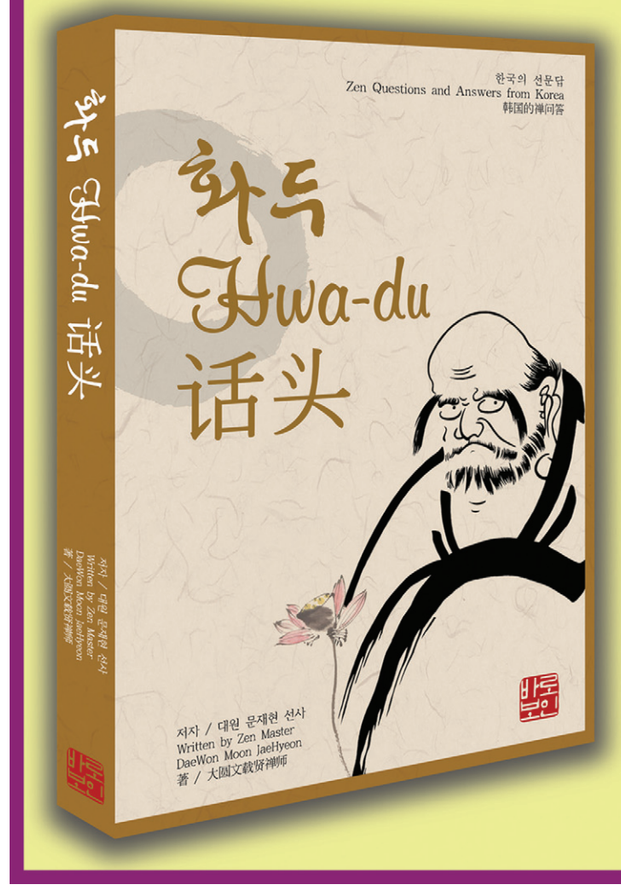
또한 오 의원에게도 6월 19일 공문을 보내 종교가 공공기관 인사채용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와 이번 행위가 중립을 지켜야 할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처신이었다고 보는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질의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발생하는 이 같은 공직자 종교편향에 대해 이제는 불교계와 국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질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서강대 교수)는 “공직사회의 종교편향을 바라보는 불교계의 인식이 최근 많이 느슨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이제는 불교계가 세를 과시해 종교편향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조직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며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뉴얼과 사례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불자와 국민 모두가 공직자 종교편향은 사회를 좀먹은 행위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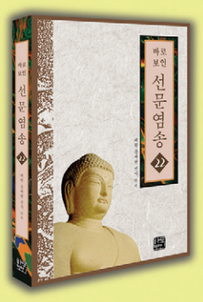


불조정맥 제77조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서, 신간 출간!

* 화두 〈 한영중 3개국어판 〉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 바로보인 선문염송 22권



전30권 중 제2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31-534-3373 / 010-9043-1016 바로보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저서 - 31종 / 61권



10권이상 구입시 30% 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영원한현실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22권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 바로보인 법성게
달다 / 기우목동가 / 초발심자경문 / 방거사어록 / 실증설 /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 불조정맥(한영중 3개국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108진참회문(한영중 3개국어) /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마음대로 앉아죽고 서서죽고 / 화두(한영중 3개국어)

일 주 문



자녀를 위한 108기도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7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수덕사 대웅전에서 108일간 '자녀를 위한 108기도'를 진행한다. (041)330-7700



통도사 보행로 명칭 공모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7월 30일까지 새로 개통하는 통도사 보행로 명칭을 공모한다. (055)382-7182



UN군 전몰용사 합동위령재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상임회장 무원 스님(천태종 부산 삼광사 주지)은 6월 24일 부산 UN기념공원 추모관 일대에서 전몰용사 합동위령제를 개최했다.



한국창업학회 차기 회장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6월 14일 한국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6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1년이다.



대불정능엄신주 독송 강의

공세화 꿈바위불교교육원 원장은 6월 30일 오전 11시 대전 중구청 맞은편 교육원에서 대불정능엄신주 독송 특별강의를 진행한다.

"사람들의 삶이 불후의 명작이 되길"

영화로 불법 전하는 대해 스님



오스트리아 영화제 은상 수상
'색즉시공 공즉시색' 등 77편 제작
'영화는 포교의 좋은 방편'

영화 초보의 첫 데뷔작이 세계영화제 3관왕에 올랐다. 영화를 배운 적도, 연습삼아 만들어 본 적도 없다. 혹자는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자이며 영화인들의 멘토로 꼽히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와 비슷하다고들 한다. 어느 날 영화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거물 신인. 놀랍게도 비구니 스님이다.

경산에 위치한 대해사 국제선원장 대해 스님은 6월 20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41회 페스티벌 오브 네이션(Festival of Nation)'에서 '소크라테스의 유언'으로 은상을 수상했다.

"영화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불법 영화의 희소성과 깊이를 알아봐 준 것 같다"며 수상 소감을 전한 대해 스님은 "세계 여러 곳에서 감독전 초청이 들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교에 대한 원력을 드러냈다.

스님은 2007년 참영화연구소를 설립해 지금까지 77편의 작품을 제작했다. 세계 영화제에서 받은 상만 20여 개. 게다가 지난 5월 30일에는 러시아의 '백야(White Nights) 국제영화제'에서 감독 초대전을 가졌다. 스님의 대표작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비롯해 4편이 상영됐다.

"20년 전, 불법은 시대와 상황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는 부처의 말씀대로 이미지를 통해 사고하는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포교 방법을 고민하다 영상을 선택했습니다. 촬영 편집만 기술자의 도움을 조금 얻을 뿐, 손수 쓴 시나리오를 가지고 카메라를 듭니다."

제작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영화를 찍을 수 있었을까? 스님은 "이미 본질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져다 쓰면 될 뿐이죠"라고 답했다. 우문현답이다.

스님의 영화를 본 외국 관객은 모국어로 더빙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기도 했다. 러시아 학생들을 위해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독일의 정신과 전문의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영화를 활용하고 싶다고도 했다.

진리를 담은 영화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는 스님. 세상이 그 뜻에 감응해 스님에게 이런저런 상을 수여했다. 하지만 스님은 수상은 단지 포교를 위한 좋은 계기일 뿐, 불법의 방편 그 이상은 아님을 강조했다.

"언제나 기본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화엄경80권을 비롯 여러 경전을 한글로 역경하기도 했고, '생명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근원적 진리를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스님은 조만간 불법의 진리를 담은 스마트폰 용 앱과 컴퓨터 게임도 만들 계획이다. 불국토를 만들기 위한 스님의 전방위적 발걸음이 자못 활기차다.

배현진 수습기자 linus@hyunbul.com

제5회 경남 고성 보리수 체험 축제



대한불교정토선종 총무원 고성 서방사(주지 등정)는 6월 16일 '제5회 고성 보리수 체험 축제 및 산사 음악회'를 봉행했다. 보리수나무 열매를 직접 불자들이 수확하며 부처님의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이날 행사에는 정토선종 임원 및 종도, 고성 옥천사 주지 진성 스님, 보광사 도홍 스님, 이학열 군수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서방사 주지 등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만평의 대지에 보리수 나무를 심어 수익금으로 관내 불우이웃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매년 이 행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55)673-3719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약사사, 효어르신 큰잔치 개최



(재)한국불교여래종 약사사(주지 해안)는 6월 17일 남한산성 여래구도봉사회 무료급식소 광장에서 '약사사 중흥 48주년 및 여래구도봉사회 25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이어 효어르신모시기 큰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 총무원장 명안 스님, 이재명 성남 시장, 티샤위 제라트레 스리랑카 대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무료 급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래종 총무원장 명암 스님은 행사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써 달라며 성남시 은행2동에 쌀 1톤을 기증했다. **노덕현 기자**

영암 스님 열반 26주기 추모재



조계종 前총무원장 영암당 임성 대종사 열반 26주기 추모재가 6월 15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봉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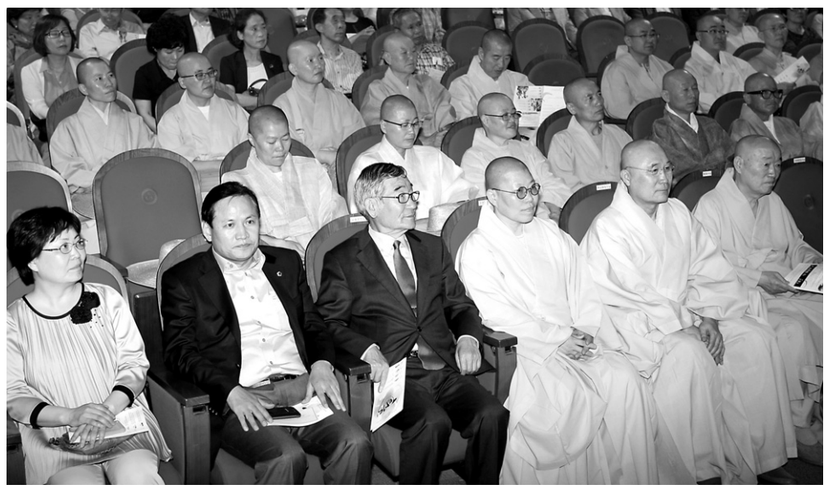
추모재에는 봉선사 회주이며 조계종 원로의원인 밀운 스님과 前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해 임성 대종사 문도 스님들과 신도 200여명이 참석했다. (02)3218-4942 **노덕현 기자**

법등 스님, 국민통합위 민간위원 위촉



前 조계종 호계원장 법등 스님(구미 도리사 회주)〈사진〉이 6월 17일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됐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해 구성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 정책과 관련 사업의 자문을 맡게 된다. 한광옥 前 민주당 상임고문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시민사회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17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종교계 인사로는 법등 스님과 함께 차동엽 인천교구 미래사목연구소장 신부, 한재흥 대구 여명교회 목사 등이 포함됐다. **신중일 기자**



타악 한마당 '템스'

6월 21일 VIP시사회

힐링 넌버벌 타악 공연 '템스' VIP초청공연이 6월 21일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있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BTN 이사장 성우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문화부장 진명 스님,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최강선 · 김태희 서울시의원 등 사부대중은 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8월 11일까지 공연.

문의 (070)8827-0108 **박재완 기자**

불교포럼 임영록 씨, KB금융 회장 내정



조계종 불교지도자네트워크 불교포럼 회원인 임영록 KB금융 사장〈사진〉이 최근 KB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됐다. 임영록 회장 내정자는 독실한 불자로 평소 임제 스님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을 생활신조로 삼고 있다.

임 내정자는 1955년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0회 출신으로 재정경제원 은행제도과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재정경제부 2차관 등 역임했다. 2010년부터 KB 금융지주 사장을 지냈다. **노덕현 기자**

출·재가자 축구로 한마음

해인사 · 원주불교축구단 6월 15일 친선축구 가져



해인사 스님들이 원주불교축구단과 시합을 앞두고 화이팅하고 있다.

6월 15일 해인사 승가대학 스님들이 오랜만에 체력을 단련했다. 불자들로 구성된 원주불교축구단과 축구시합을 벌인 것이다.

학인 스님 60여 명 등 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인사 체력단련장에서 치러진 시합. 역시 축구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해설이다. 4명의 '입담 좋은' 스님들이 탁자에 앉아 경기를 중계하자 관객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비록 경기는 스님들의 패로 돌아갔지만 보여준 배려는 '금메달' 급이었다. 상대선수가 넘어지면 달려와 일으켜주며 경기를 이끌어나갔다. 스님들은 직접 물과 수박을 준비하는 배려를 보이기도 했다.

스님들은 "흥미진진했다. 내년에도 이런 기회를 만들자"며 만족해했다. 원주불교축구단장 이기정씨도 "종교화합차원에서 타 종교인들과도 축구경기를 하는데 그에 비해 스님들의 체력이 뒤지지 않는다"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배현진 수습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21세기 신화랑 운동의 요람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함월산 선무도총본산 골굴사의 선무도 화랑사관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해 제 43회(22년 전통) 여름캠프를 개최합니다.

▣ 컴퓨터 게임이나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 「선무도 명상 테라피」 학교폭력 예방 특별프로그램
- 승마수련
-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캠프

▷언 제 : 2013년 7월 21일 ~ 8월 24일
▷모집인원 : 매주 일요일 10시 ~ 15시 입산. 토요일 12시 하산
▷대 상 : 초등학생. 중학생 = 매주 100명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수련회비 :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 4주 - 11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준 비 물 :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모자, 개인컵 등 (현금, 휴대폰, 게임기 휴대금지)
▷접수 및 문의 : 054)775-1689 / 054)774-1689 / 홈페이지 www.sunmudo.com
※환불규정 : 입소당일 취소는 하루수련비(5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교육프로그램 ◆
1. 건강회복 · 심신단련 :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2. 호연지기 : 호신술, 국궁수련, 승마교육
3. 심성정화 : 108배, 참선, 운력, 텃밭가꾸기
4. 교양수업 : 문화관광 (성지순례, 박물관) 원어민 영어회화, 불교강의와 한문교육, 다도



1500년 전통사찰 · 연인원 4만명(외국인 참가 7천명)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 사관학교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법회에는 한일 양국 불교계 대표 300여 명이 참석했다. 17일 환영만찬에서 일본 측 인사의 역사 왜곡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일본측의 사과와 참회발언으로 대회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양국의 경색 국면에서 관계개선의 기대감을 비추기도 했다.

"불교 전해준 한국에 고통 준 것 참회"

日불교계 대표, 18일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서 참회

"근세전쟁으로 한국에 고난을 준 사실에 깊이 반성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문제가 위구되지만 양국 불교계가 더욱 더 공생실천의 발걸음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경색 국면에서 일본 불교계가 과거사 참회를 시작으로 불교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을 이어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 · 조계종 총무원장)가 6월 17~20일 3박 4일간 공주 전통불교문화원 등에서 개최한 제 34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불교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회복하자는 뜻에서 모인 자리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일본 정토종 광명사 법주 미야바시 쇼겐 스님 등 한일 양국 대표 300여 명은 첫 행사로 18일 세계평화기원법회를 열고 악화된 한일관계 회복과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평화를 기원했다.

이날 일본불교계를 대표해 일한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미야바시 쇼겐 스님은 "최근 한일 양국 역사관 차이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은 불교 등 다방면의 문화를 일본에게 전해준 어머니같은 나라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양국관계 회복을 기원했다.

미야바시 쇼겐 스님은 또 일본이 과거 한국에 고난을 준 사실을 반성한다는 발언과 함께 양국관계 회복에 불교계가 앞장서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스님은 "한국에 고난을 준 사실을 일본불교계를 대표해 반성한다. 양국 불교계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더욱 공생실천의 발걸음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에 대해 불교계가 서로 포용하는 자세로 양국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자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경제 침체와 양극화 상황에서 부처님이 남기신 '공동체 의식'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양국 불교계가 서로 포용하는 자세로 양국 가교역할을 수행하자"고 말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전통불교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재 마련 등 한국과 일본이 공동인식을 통해 미래 세대의 바른 불교문화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며 "언어가 달라도 '불교문화'로 하나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법회에서는 한일불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 홍파 스님의 상축과 일한불교교류협의회 부회장 후지다 류조 스님의 표백문 봉정이 진행됐으며 양국 불교계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 불교정신을 살려 인류화합 정신을 계승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전일본불교회 회장 한다 코 쥰 스님을 대신해 축사를 낭독한 전일본불교회

학술 · 문화 등에 교류 협력키로
각 분야 분과위원회 설치 합의
'한일불교계공동선언문' 발표

WFB일본센터 운영위원 코마즈 요시하루 스님은 "과거 불교를 비롯해 다양한 학문과 기술이 한국을 통해 일본에 전해졌다"며 "불교도의 이러한 활동이 관용으로 발현돼 세계평화로 이어진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코마즈 요시하루 스님은 또 "지난 동일본 지진에 한국 스님들이 많은 도움을 줘 일본불교계가 큰 힘을 받고 있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세계평화기원법회에 이어 양국 불교계 대표들은 '전통불교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열고 불교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양국 불교계가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

일본측 대표들은 19일 공주 마곡사와 동학사, 논산 개태사, 천태종 대전 광수사 등 한국 전통사찰들을 순례하며 한국불교를 체험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 대표들은 비구니 강원이 있는 동학사에서 큰 감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양국 대표들은 20일 서울 조계사를 참배하고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해 '다도' 등을 주제로 환담을 나누며 우호를 다졌다.

한편, 17일 열린 환영만찬에서 일한불교교류협의회 부회장 모치다 니치유 스님은 "일청전쟁 전승 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을 포기시키고 조선의 독립을 이뤄냈다"고 만찬 축사를 발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자승 스님이 바로 문제를 제기하자 모치다 니치유 스님은 사과 후 발언 삭제했다.

공주=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7일과 20일에는 조계사 참배가 19일에는 동학사 등 전통사찰 순례가 진행됐다.


한국 스님들과 함께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일본 스님들.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불단에 헌화하는 한일 양국 대표 스님들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한일 · 일한 불교 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송정 스님(왼쪽)과 노자와 류코 스님

한일불교계 공동선언문

한국과 일본의 불교도는 불기 2557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34차 한일 · 일한 불교문화교류대회를 대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개최하였다. 본 대회에서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안녕을 위한 세계평화기원법요와 '전통불교문화의 보존과 계승'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기에 결의 선언한다.

하나, 한일 양국 불교도는 세계평화를 염원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통일을 위하여 무력에 의한 모든 결과를 부정하는 동시에 제반문제에서도 근본적으로 불교정신으로서 대처하며 밝은 불국토와 세계평화 건립을 위해 노력을 심화한다.

하나, 한일 양국 불교도는 양국의 경직된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 국가와 종파, 교의의 다름을 뛰어넘어 불교의 지혜와 자비정신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류화합공생기원비' 건립정신을 이어받아 역사를 직시하고 우호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하나, 한일 양국의 협의회는 상호간 기본적이며 또 실무적인 과제로 학술, 문화, 민간교류 등 제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며 종단, 사찰간 교류에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하나, 이상의 제과제를 원만히 성취하기 위하여 양국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각 분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합동위원회의 또는 실무자회의 등을 개최하여 이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확인하였다.

불기 2557년 6월 18일
한일 · 일한 불교문화교류협의회

"한일 관계 개선에 불자들이 앞장서자"

한국대표 자승 스님 예방한 日 대표 미야바시 쇼겐 스님

"한국에서 양국 관계가 불교를 중심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한일 양국 불교계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 섭시다."

미야바시 쇼겐(宮林昭彦) 스님(일본 정토종 본산 광명사 법주)은 6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번 제34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불자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대회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야바시 쇼겐 스님은 일본 정토종의 어른으로 1977년부터 30년 넘게 한일불교교류에 앞장서고 있는 이다. 스님은 2004년부터 일한불교교류협의회 회장을 맡아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 환수, 학술대회 및 평화기원법회 등을 우호증진과 함께 양국 비구니 스님 교류 등 불교 발전에도 나서고 있다.

미야바시 쇼겐 스님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정치적 문제로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에서 여러 스님들과 불자들을 만나니 불교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느꼈다"고 대회 참가 소감을 말했다.

스님은 "일본에서는 모든 불법은 사람을 통해 전해진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 교류대회를 통해 역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향후 양국 불교계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불교발전과 더불어 양국 관계 개선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일본 불교계를 대표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스님은 한국사찰 순례에서 "일본에서는 비구니 스님이 점차 줄고 있는데 동학사에서 6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정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특히 주지 스님이 물리학자란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순례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총무원을 예방한 일한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미야바시 쇼겐 스님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이날 예방자리는 자승 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 대표들과 산미나리 씨로 만든 차를 마시며 다도(茶道)를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일본측 스님들은 "기본적인 다도는 같지만 한국차는 열매 등을 볶아서 차를 만드는 것이 특이했다"며 차의 맛을 품평했다. 자승 스님은 "예방 자리에서 수백명이 이 차를 마셨지만 차의 맛까지 섬세하게 평가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러한 섬세함이 현재 경제대국인 일본을 만든 원동력 같다"고 답했다.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번길 17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포교 · 신행 소식

풍경소리, 미술치료사 2급 과정 개설

8월 22일까지 매주 화 · 목 오후 6시 진행

풍경소리(대표 혜자)가 '미술치료사 2급 자격증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미술치료에 관심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유치원 · 보육시설 종사자, 종교단체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6월 25일~8월 22일 풍경소리 학교 대강의실에서 매주 화 · 목 오후 6시부터 진행한다.

커리큘럼은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정신병리와 미술치료, 심리진단법, 대상별 미술치료, 색채심리학, 집단미술치료, 매체활용기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강좌 수료시 한국심성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하는 미술치료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수강료는 35만원이며 선착순 20명 모집이다. (02)736-5583

동국대 국제선센터, 7월 불교영어강좌

동국대 국제선센터(선원장 수불)는 '7월 불교영어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한국어 강의와 영어 강의 두 가지로 나뉘어 개설됐다.

한국어강의 '붓다의 음성'은 불림 스님이 틱낫한 스님의 〈The heart of the buddha's teaching〉을 교재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알기 쉽게 영어로 매주 목요일 1시 30분부터 강의한다.

영어강의 '티벳불교와 힐링'은 매주 월 · 수 3시부터 엘리자벳 에스코가 달라이 라마의 〈Stages of meditation〉을 교재로 명상하는 법과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자애심, 통찰, 지혜 등을 일깨워준다. (02)2260-3891

이나은 기자

사회적기업 시니어 창업 워크숍 개최

날마다좋은날 6월 14~15일 청평풍림리조트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이 운영하는 불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6월 14~15일 청평 풍림리조트에서 2013 사회적기업시니어창업전문과정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 개강식에는 수강생 25명이 참여했다.



2013 사회적기업시니어창업전문과정 워크샵에 참여하는 수강생 25명.

워크숍은 김종각 기획본부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명상힐링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사회적기업 시니어창업전문과정 아카데미는 8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 전법회관 지하교육장에서 진행된다. (02)733-7277

노덕현 기자

혜민 스님과 템플스테이 할 청년들 모여라

불교문화사업단, 7월 5~7일 2030 템플스테이 개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이 2030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2030을 위한 마음치유 템플스테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7월 5~7일까지 충남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진행된다.

행사에는 혜민 스님이 참여하며 △템플스테이 문 열기-재미있는 불교문화 소개와 전통예절 익히기 △태화산 숲길 명상 △'이야기로 풀어요' 대화 명상 △음악 명상 △나를 위한 108배 △혜민 스님의 행복한 묻고 답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템플스테이에 관심 있는 20~30대 청년층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02)2031-2000

이나은 기자

"법회서 게임·율동 활용하니 만족도↑"

불레협, 수도권 포교활성화 위한 '법회 지도자 아카데미' 회향

어린이 · 청소년 법회 등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도법사들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법회를 진행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전하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만, 이하 불레협)는 1985년 7월 창립 이래로 포교일선에서 활동하는 법회지도자들과 법회 개설이 필요한 사찰을 위해 불교레크리에이션 아카데미 등 정기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불레협은 법회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교리 전달법, 찬불가, 놀이, 토탈공예, 프로그램 작성법 등 법회 기획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지도력까지 이론과 실습에 조화를 두어 지도교사들이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법회를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불레협은 지난 3월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 혜만 스님이 강조한 '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양성 교육 전국 확대'와 '수도권 중심 법회 지도자 양성'을 중심으로 올해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다.

이에 불레협은 수도권 포교활성화를 위한 '법회 지도자 아카데미'를 지난 4월 9일부터 매주 화 · 목요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진행, 6월 25일 회향했다.

'법회 지도자 아카데미'에는 김포, 남양주, 수원, 안산 등 서울 · 경기 지역에서 재가자와 스님 등 20여 명이 참석해왔다.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이끌거나 관련 업무를 하면서 개인 역량으로는 법회지도를 하는 데 한계를 느낀 이들이다.


불레협은 수도권 포교활성화를 위한 '법회 지도자 아카데미'를 지난 4월 9일부터 매주 화 • 목요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진행했다. 20여 참가자들은 폼아트, 실내게임 등을 통해 다양한 법회 운영 방안을 배웠다.

3개월 동안 불레협이 소개한 프로그램은 다양했다. 첫 만남의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Ice Break', 두뇌를 활용하는 컵 실내게임을 비롯해 캠프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캠프파이어와 촛불의식, 폼아트를 활용한 실내장식 등이 그렇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쉽고 재밌는 레크리에이션을 배워 만족스런 반응을 보였다.

용인 화운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인 우경 스님은 "어린이 포교에 관심이 많지만 전문 지식 없이 법회를 하려니 부족함을 느껴서 게임 등을 배우기 위해 참여했는데 많이 배우고 간다. 올 여름 템플스테이에 응용해볼 계획"이라며 "웃음치료, 간단한 게임과 같은 불교레크리에이션이 어린이 · 청소년 법회 뿐 아니라 일반인 법회나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분위기를 살리는데 유용하다"고 했다.

서울 옥천암에서 어린이 · 청소년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신정임 씨는 "스님과 법회지도교사들이 머리를 싸매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던 정도였는데 이곳에서 중복되는 것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줘 도움이 됐다"며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회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 3개월 과정이 끝나고 한 번씩 점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레협은 올해부터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과정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석두 사무총장은 "불교레크리에이션을 배우기 위해 지방서 오신 분들이 거리상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봤다. 교육을 원하는 인원이 20명 이상만 되면 때와 장소가 갖춰진 곳은 어디든 찾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레협은 제51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지역별로 진행한다. 강습회는 △대구경북지역- 6월 29일 은해사 △강원지역-6월 30일 낙산사 △서울 · 경인, 대전 · 충청 지역- 7월 13일 목동 국제선센터 에서 진행되며, 제주지역은 7월 6일 제주시 인근에서 시행된다.

프로그램은 △진리의 행복-도구와 지혜를 활용한 레크리에이션 △보시의 행복-불교학교 체험프로그램의 활용과 실제 △만남의 행복-찬불가 율동의 활용가 실제 등을 주제로 마련됐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불레협은 24년 동안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300여 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낳았다. 또한 여름 · 겨울 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44회 실시하면서 25000여 명이 수료, 정기 교육을 통해 3만 여명이 지도자 교육을 받았다"며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포교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파라미타 사경 공모전 대상 장수려 · 안진주

파라미타 수상자 발표…36개교 · 사찰서 450여 건 응모

부처님 가르침을 새기며 신심을 키우는 '청소년 사경공모전' 대상에 장수려(남양주 광동고2, 문체부장관상), 안진주(남양주 광동고3, 봉축위원장상) 학생이 선정됐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6월 18일 제16회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최우수상은 안정윤(의정부 광동고2), 오민식(보문고2) 학생등 4명이, 우수상은 이수진(장유고2) 학생 등 4명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열렸으며, 전국 사찰과 학교 36개소에서 450여 건이 응모됐다. 응모작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대상 2점 등 모두 75점의 수상작품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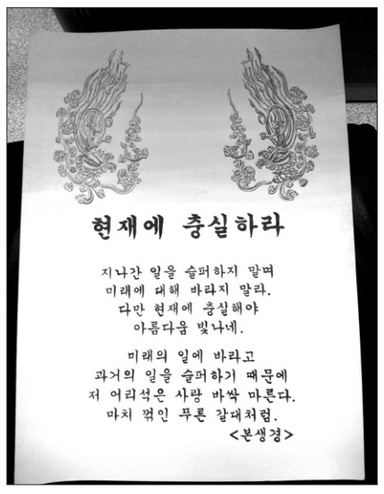
파라미타는 이번 공모전을 열며 〈본생경〉 〈법화경〉 수능엄경 제2권 등 2가지 주제를 시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사경작은 파라미타 상임이사 법경 스님, 불교TV전통사경법회 지도법사 행오 스님, 사경연구가 김경호 선생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예술성, 창작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했다.

올해 사경공모전의 특징은 예년보다 사경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파라피타는 "예전에는 그림으로 시화처럼 구성한 사경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매일 수행하는 마음으로 사경한 작품을 비롯해 구도자적인 느낌을 담아낸 사경들이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

파라미타는 대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올 7월 별도의 시상식을 열 계획이며, 나머지 수상자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찰에서 개별 시상하게 된다. 각 수상자 명단은 파라미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작품은 홈페이지에서 게재된다. (02)723-6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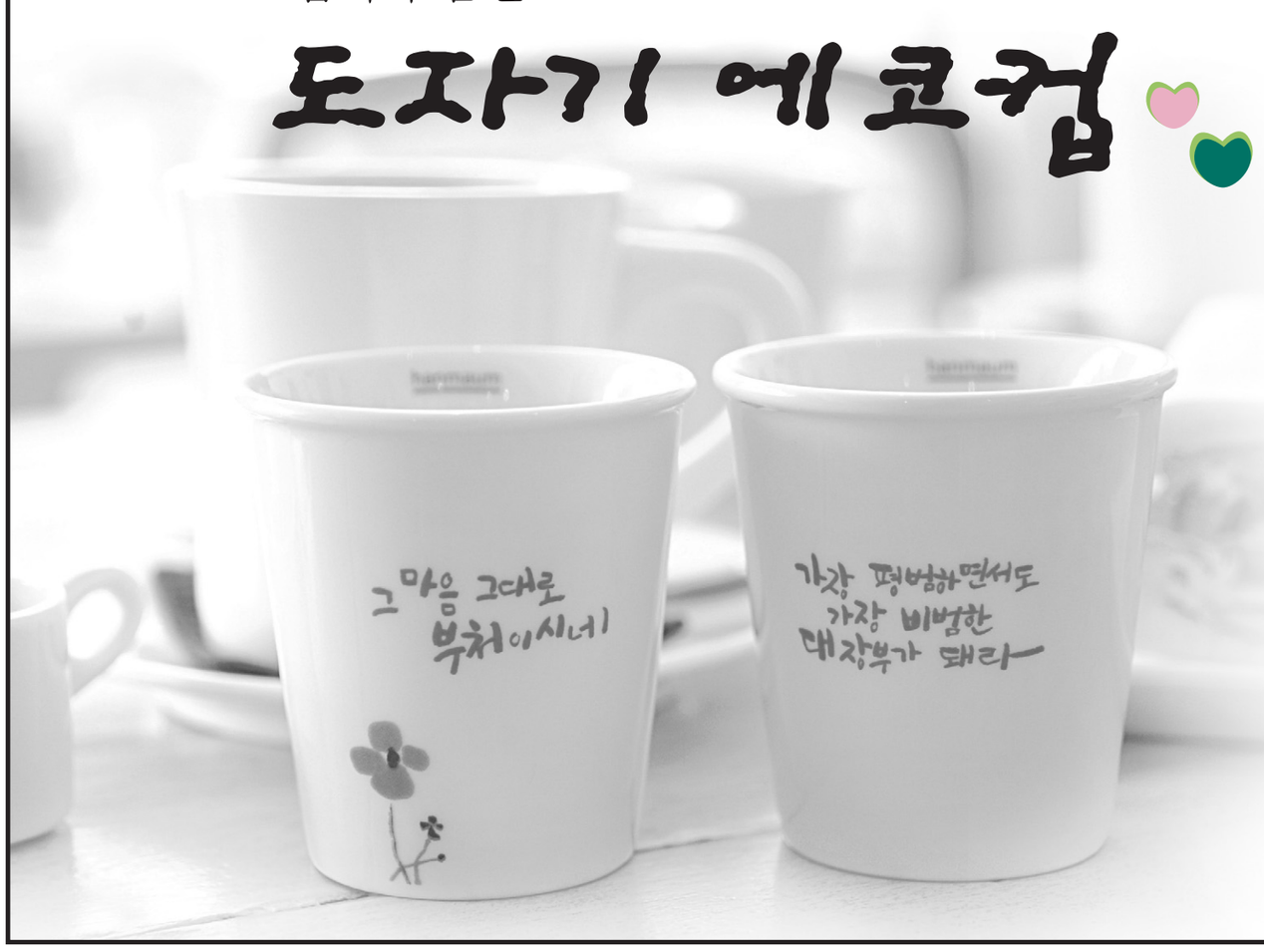




제16회 청소년 사경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들. 사진 왼쪽부터 장수려 학생, 안진주 학생 작품.

이나은 기자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낱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진정한 사회복지는 주민 참여가 중심 돼야"

은평 신사 · 송파 삼전복지관, '마을 지향복지관' 사업 선정

"저희는 신사동에 살면서도 복지관이 있는지 몰랐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곳 인줄 알았어요."
(은평 육아 품앗이 북키북키 회원)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복지관을 안가려고 해요. 거기가면 가난한 집 아이라고 왕따 당한데요."
(사례관리 참여 가정 엄마)

"아이들하고 복지관에 와도 있을 곳도 없고, 대기할 장소나 쉴 곳도 없어요. 간담회나 설문조사는 맨날 하면 뭐해요. 바뀌는 것도 없는데…."
(신사 어린이 도서관 이용자)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공모한 '마을지향 복지관 시범사업'에 선정돼 '은평품앗이육아' 회원들에게 장소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은평품앗이육아' 회원들.

지역사회복지관이 1980년대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지만,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지역주민과 서비스 이용자에게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복지관이 보유한 자원에 따라 제공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가운데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인 주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지역복지의 주체가 되는 '마을 지향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운영하는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이다.

두 복지관은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 3월 공모한 '마을지향 복지관 시범사업'에 선정돼 운영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지향 복지관 시범사업'은 복지기관이 마을(공동체) 지향의 관점을 갖고 주민참여중심의 복지 사업과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을 일컫는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련)은 '따사로이 주민협동스쿨'을 통해 지역주민이 복지관을 통해 지역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에 따라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에서 육아 품앗이 모임을 진행하던 '은평품앗이육아(대표 안세정)' 회원 40여 가구가 지속가능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6월 11일에 복지관 5층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승재 신사종합사회복지관 총괄부장은 "육아 품앗이 모임을 진행하던 '은평품앗이육아' 회원들이 모임의 활동 장소를 고민하던 중 신사 복지관에 작은 도서관이 있다는 점을 착안해 장소 대여를 요청했다"며 "우리 복지관은 기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열린마을' '복지활동가 마을'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회원들이 자생적으로 대안 보육과 교육 시스템 마련을 해나갈 수 있는 '인큐베이팅' 사업의 일환으로 3~5년 정도 장소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평품앗이육아'의 연령대별 아이들과 엄마들은 주1~2회 복지관에 모여 아동도서를 서로 읽어주고 어떤 책이 좋은지 추천해준다. 또 서로의 육아법을 공유하거나 육아를 하며 느꼈던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기도 한다.

안세정 은평품앗이육아 대표는 "은평구 지역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많지만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돕는 제도나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이 장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모임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복지관은 △지역주민들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진행하는 언어 · 미술치료 △복지관 자원봉사단체가 펼치는 성폭력 예방인형극 '꼬마도반' △지역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도서관협동조합 등을 '마을지향 복지관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운영에 박차를 가한다.

한편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동옥)은 '동네에서 재미있게 살기'를 통해 지역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직원교육과 주민 모니터링단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을지향복지실천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또한 주민정기모임과 지역이슈를 발굴해 주민들의 활동기반을 마련하고 재능나눔교실, 주민교육사후모임을 통해 주민간 만남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책 읽고 싶다면 탑골공원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이동도서관 개관


탑골 이동 도서관에서 서가에 꽂힌 책을 유심히 둘러보고 있는 어르신.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가 탑골이동도서관을 열어 탑골공원을 찾는 어르신과 일반 시민들에게 찾아간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13년간 자체 도서관을 운영한 경력과 5만 명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탑골 이동 도서관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6월 26일 개관하는 '탑골 이동 도서관'은 어르신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서 열람, 일일도서 대여 및 독서 공간을 제공한다.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10시부터 오전 3시까지다.

'탑골 이동 도서관'의 도서대여 및 도서 문화 전파 등 중요 역할은 노인 일자리로 선발 된 어르신이 '책 문화 보부상'으로서 활약하게 된다.

이 밖에도 서로 책을 공유 할 수 있는 '도서 바자회' 책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북 콘서트' 현장에서 아끼는 책 속의 좋은 글귀를 전할 수 있는 '도서 캠페인' 등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열린다.

희유 스님은 "탑골 이동 도서관은 어르신들의 주된 활동 공간에서 어르신이 직접 문화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주력하고있다"며 "탑골 공원의 숨어 있었던 건강한 역동성과 자생력을 이끌어내어 특색있는 문화 공원으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2)6911-9554

이나은 기자

강북노인종합복지관 7월부터 무료점심 제공

현대오일뱅크 5천만원 지원…내년 6월까지 진행

천태종복지재단 산하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이 홀몸 어르신과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어르신에게 따뜻한 점심한끼와 월 1회 특식을 제공한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소지)은 "외부공모사업을 신청해 선정돼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에서 5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6월 18일 복지관 3층 정진실에서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과 협약식'을 진행했다.

천태종 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광 스님은 "앞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진지를 올리는 마음으로 나눔의 복지를 실현 하고, 천태종복지재단 임직원과 함께 투명성과 따뜻한 복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저소득계층 어르신에게 매일 점심 한끼와 월1회 점심 특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02)999-9179

이나은 기자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6월 18일 복지관 3층 정진실에서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 협약식을 진행했다.

광진노인복지관, 7월 2일부터 의사소통 프로그램 실시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어르신들의 의사소통 기술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단계별 집단상담 프로그램 '마음을 여는 대화'는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10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2층 취미교실에서 열린다.

참여 어르신들은 △나의 의사소통방법 알기 △나의 감정 표현하기 등을 주제로 단계별 의사소통법을 배우게 된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여 노년기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자아통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466-3900

이나은 기자

거리의 미술동호회 벽화 그리기 재능기부

'아이들 꿈·희망 벽화에 담아'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 놀이터의 밋밋했던 공간이 원숭이, 사자 등 동물과 산과 바다로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부산 거리의 미술동호회(회장 안용수)가 6월 15~16일 양잉간 복지관 장난감 놀이터 '아마존'에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복지관은 "'아마존'은 아이들의 마음이 있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복지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부산 거리의 미술동호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됐다"고 전했다.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활동은 거리의 미술동호회 부산지역 회원 15명이 참여하여 진행했으며, 용호복지관 장난감 놀이터 '아마존' 내부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벽화를 가득 채워 넣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 놀이터 '아마존'에 벽화를 그린 부산 거리의 미술동호회 회원들.

부산 거리의 미술동호회 안용수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호복지관 이춘성 관장은 "복지관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선뜻 도움의 손길을 건네준 부산 거리의 미술동호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겨 기쁘다"고 덧붙였다.(051)628-6737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4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쵯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6월 26일까지

◆개강일시 : 2013년 6월 27일 목요일 개강
매주 (월 ·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한국불교승가교육원 교육생 大모집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한국불교 승가교육원은 한국불교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지방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보존회 부설 영남불교예술대학의 분원으로서 불제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올바른 수행자의 자격을 구비하고자 출가자나 미수계자 또는 승려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승려기본예절 및 기본의식과 체계적인 수행법등을 교육하고자 범 종단을 초월한 한국불교 최초의 종합불교예술 승가교육원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조실 청강큰스님과 대 강백이신 자광큰스님을 증명 및 수계 대화상으로 모시고 최고의 교수진구성으로 알찬 승가 제반 기초교육과 승려로서 갖추어야할 기초자질을 함양코자 본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개월 기본교육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교육내용

구 분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기초학과 12주	• 승가기본예절 • 조석예경편(사참), 불공편, 요령목탁법 • 불공편 관음시식 • 천수경강의 • 반야심경강의 • 발우공양작법	목	2시 ~ 5시	00명
수계 및 수료	• 사미율의 • 부처님생애 • 초발심자경문 • 발우공양(실습) • 자비도량참법 • 수계 및 수료식(수계증 및 수료증 수여)	2박 3일		
전문반 (기초학과 수료자에 한함)	• 예경편(사참), 각단불공편, 권공편, 영반시식편, 점안편, 대령, 관욕편, 배송편, 범패기능연마, 사물타법, 수행경문, 바라작법무, 나비작법무	목	2시 ~ 5시	00명

■ 개 원 일 시 : 불기 2557년 7월 11일 (목) 오후 2시부터 12주간
■ 회 향 기 도 : 13주차(화, 수, 목) 마지막 회향시 수계 및 수료법회 봉행
■ 교육동참금 : 50만원(교재, 바루, 식대, 수계비포함)
■ 준 비 물 : 반명함판사진 3장, 주민등록등본 1통, 가사, 장삼, 요령, 목탁, 필기구 (가사 및 장삼 미소지자는 별도 합동 주문제작)
※ 기타 자세한 내용문의는 본원 교학처로 문의 바랍니다.
■ 교 육 장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내 한국불교 승가교육원
■ 접수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 010-2314-1279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

영남불교예술대학 한국불교승가교육원

지극히 수행 하면 그곳이 부처님 자리

BTN 불교TV 무상사 일요 초청 법회

무여 스님(축서사 선원장)

'마음은 맑고 세상은 향기롭게' 라는 슬로건이 있다. 이는 불교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시끄럽고 온갖 악행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불자들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불자들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은 수행을 통해 세상이 맑고 밝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스님의 법문을 통해 맑고 밝아지는 그 길을 찾아 떠나보자.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얼마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했습니다. 불탄절 구호 중 '마음은 맑고 세상은 향기롭게'가 있습니다. 불자라면, 불자가 아니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늘 마음은 맑게 하고 세상을 향기롭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할 거 같습니다. 흔히 불교가 뭐냐고 물으면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라고 말합니다.

위로는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한다는 말이죠. 옛날 스님들 중에서는 깨달음이 아니면 불법이 아니다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만큼 불교는 깨달음을 중시합니다. 그렇게 불교를 통해 인생과 우주만물의 근본을 잘 깨달아 나보다 못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을 잘 교화해 깨달음까지 도달하게 해드리는 것이 불자들의 임무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수행을 나만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깨달은 만큼 늘 남에게 베푼다는 생각으로 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복혜쌍수(福慧雙修)라 하는데 복과 혜를 같이 닦아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이를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해요. 수레가 외바퀴면 갈 수가 없습니다. 수레가 둘이어야 원만하게 갈 수 있습니다. 복혜를 제대로 닦아야 사람으로서 인생을 무난하게 보내고 어떤 분보다도 잘 살고 훌륭한 일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불교 수행이 나만을 위한다 혹은 나만의 혜만 닦는다는 그런 생각은 마시고 남도 위한다는 하화중생도 신경을 써서 훌륭한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괴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번듯하고 화려한데 내 눈에는 어려웠던 시절보다 더 힘들고 못사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각종 사회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 상호간의 윤리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세증후를 다섯가지의 더러움 즉 오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세상을 악세다, 답답한 세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겁탁은 사회악 환경오염으로 혼탁한 시대를 말합니다. 국가의 이익과 지배를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민족 종교 이념 갈등으로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정의는 옛날에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남을 사기치는 것을 예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남의 것 도둑질하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살고 있죠. 강간 살해 살상에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아도 있습니다. 인간의 악이 어디까지인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견탁은 온갖 그릇된 사상 악한 사상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가치관이 전도되고 방향틀은 상실했습니다. 고장난 자동차처럼 제멋대로 굴러가는 사회가 오늘의 사회입니다.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농부는 농부대로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도 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개탄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기심에서 탐진치 삼독심이 너무 강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에서는 나만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은 연기의 법칙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서로 얽히고 얽혀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다 같이 잘 살아가는 세상, 우리 불자들은 늘 넓게 크게 가지고 대승적인 마음으로 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편안하시

악이 난무하는 현대사회에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것이
이치 깨달은 불자들의 역할

참선 · 염불 등 수행으로 닦아
동체대비 사상으로 세상 밝혀야

고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좋은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중생 자질이 외형적으로 발전하고 잘 사는 거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흔히 쓰는 말 중에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통의 예인데 윤리나 도덕이나 예의나 염치는 찾아보기는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휩쓸려서 결국은 헤어나지도 못합니다. 오탁악세가 안되도록 열심히 살고 대승적인 보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치료 방법이 마음을 맑게 세상은 향기롭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수행을 일상화해야 합니다. 수행이라는 아주 좋은 방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 없었다면 부처님께서 이 좋은 말씀을 안 하셨다면 이 세상은 아주 황폐하고 살기 어렵고 지구촌은 생지옥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수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하긴 하는데 마음을 맑게 하고 세상을 맑게 할 정도로 많이 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가 느끼고 좋다 행복하다 이 이상이 있느냐 그 정도까지 해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행은 종교 국가 이념을 초월해서 어떤 사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자기 손해이니 꼭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인연 따라 근기 따라 염불을 하시거나 참선을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꼭 한 가지는 하세요. 이 수행에서 인생의 진정한 보람을 못 느끼면 불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짓가랑이만 왔다갔다하는 모양만 잡는 사람 말고요 내가 정말 수행을 잘하고 있구나 행복하다 그런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꼭 좀 제대로 수행을 하십시오.

그러니 수행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루 한 시간만이라도 말이죠. 최근에는 외국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수행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떤 나라에서는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마음은 맑고 세상은 향기롭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맑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맑게 깨끗하게 하라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마음이 늘 맑은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수행이 잘 돼서 늘 맑은 상태 유지하면 그뿐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인생이 변하고 팔자가 고쳐집니다. 그러니 이 풍진 세상 멋지게 살아보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이 맑아야 돼요. 맑지 않고 아무리 멋을 내봐야 멋이 아니죠. 그런 상태까지는 꼭 해보십시오. 그래서 중생의 어둠 탁함이 다 사라진 맑고 따뜻한 지혜가 드러나는 상태까지 해보세요.

염불하시는 분은 염불 일념이 되도록만 해보세요. 염불에 폭 빠진 상태가 돼서 염불하는 곳이 무상사인지 여러분의 집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몇 시간이 지나가도 모를 정도로 해보시고, 참선 하시는 분은 화두가 더 큰 의심덩어리가 되고 그것이 타성일편이 될 때까지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맑고 밝은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면 들끓던 오만 생각 자체가 다 없어질 것이며 마음은 아주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아주 맑아지죠. 아주 맑거나 밝은 상태 가 되도록 꼭 해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만물이 아주 한가롭습니다. 삼라만상이 아주 여유 있고 평화롭습니다. 바쁠 것도 괴로울 것도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옛날 중국에 방 거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거사의 네 식구가 다 깨쳤습니다. 방 거사는 부모를 잘 둬서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유산을 관리하는 것이 신경쓰이니 주변 사람들을 나눠 주고 나머지는 호수에 다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유자적하고 살며 조리도 팔고 무 배추 몇 단 놓고 팔았어요. 누가 와서 사가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었죠. 그러면서 세상을 희롱하며 살았어요. 보통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도인은 환경을 농락합니다. 환경을 마음대로 지배하면서 살아요. 지금 서울에서 괴롭게 어렵게 사는 여러분들은 방 거사처럼 세상을 농락해가면서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화두나 염불이나 인연 따라 하되 한 가지만 골똘하게 제대로만 해 보십시오. 부처님 말씀에 심정토 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내 주변이 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하면 내 마음이 탁하면 내 주변도 탁하고 더럽습니다. 〈유마경〉에도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하면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정토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청정하고 늘 안락하고 맑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편안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정토란 부처님 세상 불국토 극락정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토는 육도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생로병사 등 괴로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일체 괴로움이 다 없어지는 상태 생사윤회를 뛰어넘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극락정토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토, 여러분이 말씀하신 정토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공부가 깊어지면 맑고 밝아집니다. 지극히 편안하고 즐거운 자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토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을 지극히 하면 여러분 자신이 부처님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부처 자리입니다. 참으로 바른 것은 진리를 향하고 있냐, 진리를 깨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은 그렇게 맑은 상태가 되면 자비가 뚝뚝 흐릅니다. 여래는 부처님의 다른 이름인 자비입니다. 자비를 떠나서 선법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자비에 푹 빠져야 합니다. 그런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본다면 복덩어리는 바다와 같이 무량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목숨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사무량심이 있습니다. 자무량심은 온갖 생명체를 사랑해서 애지중지 즐거움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마음을 내고 베풀라는 것이죠. 비무량심은 일체 성내는 마음 없이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꾸준하게 가지라는 것이죠. 희무량심은 기쁨을 주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여의고 낙을 얻어서 희열케 하라는 것입니다. 사무량심은 일체 탐내는 마음 없이 중생을 평등하게 보고 분별심을 일체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십시오. 그런 분이야말로 바로 보살입니다.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며 보호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중생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 동체대비사상입니다. 중생의 어려움이 내가 당하는 것처럼 보살심을 가지고 대승적인 마음으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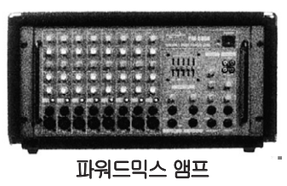


무여 스님은 … 희섭 스님을 은사로 오대산 상원사에서 출가했다. 동화사 송광사 해인사 칠불사 망월사 등에서 수선안거했으며 칠불사 망월사 선원장, 조계종 기초선원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1987년부터 봉화 축서사 선원장으로 제방납자를 지도하고 있으며 현재 조계종 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앰프, 스피커를 구입하시는 스님 20분께
"고급 앰프케이스"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무료 보시 기한 : 2013년 6월 30일까지 선착순 20개 사찰)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문 의 02)3147-2020

지 부 교 육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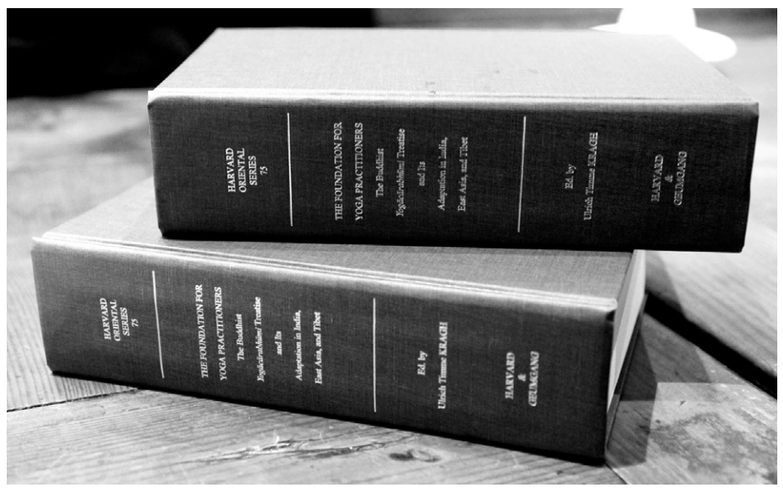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금 강大
하버드大

유가사지론 집대성 총서 간행

금강대 등 세계석학 34명 논문
〈유가행자들의 불교적 토대〉



금강대가 하버드대와 공동출판한 '하버드대동양학총서75' 서문에는 정병조 금강대 총장 등의 공동 발간의 계기 등이 실렸다.

〈하버드대동양학총서〉 동양 연구서의 최고 권위
2008년 학술대회에 놀란 하버드, 이례적 수용
공동출간은 하버드대 총서 출판 120년 만에 최초
총 1429페이지에 유식학 흐름 전반적으로 다뤄

금강대가 하버드대와 〈하버드대동양학총서〉를 공동출판했다. 하버드대가 외부 대학과 동양학총서를 공동출판하기는 총서 출간 120년 사상 최초다.

이번에 공동출판된 총서는 〈유가행자들의 불교적 토대: 인도 · 동아시아, 그리고 티벳에서 '유가사지론과 그 수용'으로 하버드대동양학총서로는 75번째다.

〈유가행자들의 불교적 토대〉는 정병조 금강대 총장과 김천학 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의 서문을 시작으로 총 1429페이지에 〈유가사지론〉에 대한 최신 연구성과를 망라하고 있다.

〈유가사지론〉은 인도 대승불교 유식학파의 수행과 사상을 백과사전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헌으로 유식학파의 최초 문헌이자 근본 문헌으로 간주되고 있다.

책에는 서구 유식연구의 대가로 꼽히는 독일 함부르크 대 람버트 슈미트하우젠 교수와 미국 하버드대 반 데어 퀘입 교수를 비롯해 일본 와세다 대 요시무라 마코토 교수, 중국 스찬대 빙첸 교수 등 관련 전공 학자 34명의 논문이 실렸다.

한국에서는 안성두 서울대 교수, 김성철 금강대 HK교수, 박창환 금강대 교수, 차상엽 금강대 HK교수의 논문이 실렸다.

이밖에 전 금강대 HK교수를 지낸 울리히 팀베 크라우 네덜란드 라이덴 대 교수가 영역 총괄 및 편집을 맡았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돼있다. 1부에서는 〈유가사지론〉이 인도에서 어떤 배경으로 저술됐는지 고찰하고 있다.

2부에서는 〈유가사지론〉의 의미를 검토하며 3부에서는 인도에서 〈유가사지론〉을 바탕으로 유식학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와 동아시아 전파시 어떻게 변용, 수용됐는지를 살핀다. 하버드대는 이번 〈유가행자들의 불교적토대〉를 1만부 인쇄할 계획이다.

박창환 금강대 교수는 "유가사지론은 현장 스님 구법행의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중국 법상종을 비롯해 티벳불교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 비중에도 연구는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그동안 일본학계가 주도한 유식연구는 부분적인 연구가 주였다"며 "유식관련 전세계 주요 학자들이 유가사지론의 전반을 ?고 그 유통의 흐름을 짚은 것은 사상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차상엽 금강대 교수는 "2008년 금강대가 개최한 제3회 국제학술대회 '유가사지론과 유가행자들'의 성과에 대한 하버드대의 관심이 이번 책 출간으로 이어졌다"며 "한번도 공동출판을 허락하지 않았던 하버드대동양학총서가 금강대와 공동으로 작업에 나선 것은 이런 흐름과 연구 성과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 교수는 이어 "4년간 이번 책 출간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금강대가 국내 출판권을 보유한 만큼 향후 한역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성철 금강대HK교수는 "금강대는 현재 유식에 이어 한중일 삼국에서 여래장의 수용과 변용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각국과 연계해 그동안 지엽적으로 진행돼오던 불교학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진감 선사 범패는 선법 대중화 위한 방편"

고산문화재단, 6월 21일 동국대서 학술세미나 개최

"범패를 통해 전통 법회 문화를 계승하고 선사상을 널리 편 진감선사는 당대 혁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고산문화재단(이사장 영담 스님)은 21일 오후 2시 서울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진감선사 혜소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헌 부산대 국악과 교수의 '진감선사 혜소와 한국의 범패'와 조범환 서강대 사학과 교수의 '진감선사 혜소와 한국의 선불교'가 발표됐다.

이날 조범환 서강대 교수는 "진감선사의 범패는 대중교화의 한 방편"이라며 "이러한 점은 신라 교종 승려들과는 크게 다른 실천행으로 나말려초 선종이 지니는 혁신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조범환 교수는 "진감선사는 신라 여러 선승과 달리 범패를 익혀 돌아왔다. 이에 동산어산의 큰 흐름을 이뤘다"고 설명하고 "그의 사상은 남종선 여러 산문 중 교학과 전통 법회 방식을 수용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후대 희양산문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교수는 "진감 선사가 백장청규를 만나 실천적 선수행이란 큰 전환을 이루었다. 이러한 태도는 신라 교종 스님들과는 크게 다른 것"이라며 신라 선종사 연구에서 진감선사 연구가 보다 본격화돼야 함을 강조했다.

'진감선사 혜소와 한국의 범패'를 발표한 최헌 교수는 "진감선사의 범패에 대한 기록이 없기에 학자마다 달리 해석하고 있는 불교음악사 연구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승인 진감선사가 옥천사에서 범패를 가르쳤고 이를 배우려는 이가 많았다는 기록은 단순한 염불 형태의 음악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감 혜소 선사(774~850)는 쌍계산문을 개창한 개산조이자 범패를 우리 땅에 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행적은 쌍계사에 세워진 국보 제47호 '진감선사대공탑비'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진감선사 학술세미나를 처음 개최한 고산문화재단 이사장 영담 스님은 "진감선사는 우리나라 범패 어산의 선구자이자 범패를 수행으로 승화시킨 인물이지만 선사의 생애와 사상은 그 무게에 비추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왔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진감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본격적으로 재조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70)7825-8811

'동산어산' 큰흐름 이뤄
후대 희양산문에 이어져
불교음악사적으로도 연구과제

노덕현 기자


진감 선사 진영

학술 · 문화재소식

"염불 수행 근원 초기불교에 있다"

조준호 박사, 제7회 선리연구원 학술회의에서

염불의 근원이 초기불교의 선정수행법에 있으며 간화를 간화선으로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염불 또한 염불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원은 6월 17일 서울 정법사 설법전에서 열린 제7회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회의에서 초기 경전에 나타난 염불수행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염불 수행이 초기 선정수행법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조준호 교수는 '선과 염불의 관계-염불선의 기원과 전개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수타니파타〉의 '피안도품'에 나타난 염불사상을 예로 들었다.

조 교수는 또 "초기경전에서는 염불로 탐진치에 사로 잡히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염불을 자비심을 발현시키는 행법으로 까지 나타내고 있다"며 "초기경전에서 염불로 시작되는 육념법을 닦기 위해서는 오근과 오력을 닦아야 한다고 표현하는 등 염불의 수행론적 위상을 높이 사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초기불교 수행논서인 〈청정도론〉에서도 염불수행은 사마타 수행의 40가지 삼매 주제 수행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염불은 불교주류 전통에서 선정 수행의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준호 교수는 단순한 칭명불을 염불로 부르는 것은 초기경전에 나타나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염불은 정학으로 구행(口行)인 칭명보다 의행(意行)의 범위"라고 말했다.

조준호 교수는 "선정(禪定)이나 삼매(三昧, samadhi)의 의미가 강하기에 염불은 염불선의 의미를 지닌다"며 "염불선은 간화선 지상주의로 비판받는 한국불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근기와 성향에 맞게 제시한 다양한 종류와 단계별 수행법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황정일 박사(보조사상연구원)의 '법구의 삼세실유설에 대한 비판과 그 의미'와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의 '만암의 불교정화관', 쌍계사 승가대학장 월호 스님의 '〈능엄경〉에서 쉼의 의미와 휴식형 템플스테이' 등 선리연구원 학술상 수상자들의 발표가 각각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복원 동참

6월 20일, 유적 총괄하는 압사라청과 보존관련 MOU 체결

앙코르와트 보존에 한국 문화재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6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앙코르 유적 전체를 총괄하는 압사라청(The Authority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Ankor and the Region of Siem Reap)과 앙코르와트 보존 · 복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문화재청은 2011년 한국과 캄보디아 간 전반적인 문화유산 분야 보존 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재청은 앙코르톰(Angkor Thom)에 위치한 프레아피투 사원의 보존작업에 착수한다.

프레아피투 사원은 현재 지의류(地衣類: 나무 줄기나 바위 등에 붙어사는 식물군) 식생으로 유적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압사라청과 협력해 현황을 분석한 후 정비를 실시한다. 문화재청은 MOU 체결에 이어 무상원조 협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이번 사업예산을 신청하고 2014년부터 기초 현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회 '보살과 미륵신앙' 여름 워크숍

7월 19~20일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7월 19~20일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 '보살과 미륵신앙'을 주제로 여름 워크숍을 개최한다.

금산사는 신라 진표율사가 중창한 사찰로 한국 미륵신앙 중심지로 꼽히고 있다. 19일 학술세미나에서는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보살이란 누구인가'를, 심재관 금강대 HK교수가 '보살사상의 연원'을, 박광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가 '진표와 미륵신앙'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20일에는 금산사 귀신사 화암사 송광사 순례가 진행된다. (02)880-6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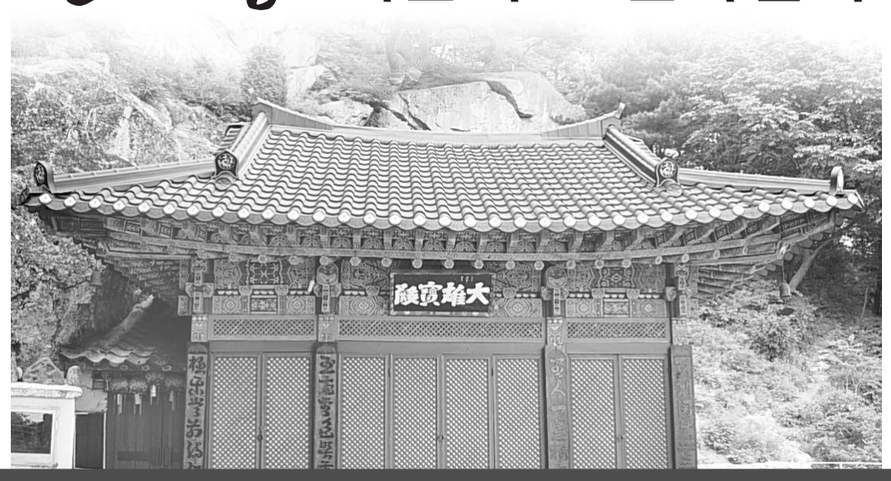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공직자 종교중립이 국민 종교자유 보장”

문광부 종교차별 예방 워크숍 6월 20~21일 열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6월 20~21일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중앙부처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종교차별예방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종교차별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종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해 106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워크샵에서는 류성민 한신대 교수의 ‘종교를 알아야 종교차별이 예방된다’ 주제 특강에 이어 성해영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조계종 교육부장 법인 스님, 산위의마을 대표 박기호 신부, 한신대 명예교수 김경재 목사, 조현 한겨레 종교담당 기자가 참여한 ‘상생과 화합을 위한 종교간 대화’가 진행됐다.

유성민 교수는 특강에서 “공직자의 실수나 부주의,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 발생한 종교차별과 종교편향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정부 불신을 야기시킨다”며 “공직업무에서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종교성이 결부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적극적으로 다양한 종교를 배워 편향된 행동을 하지 않는 소양을 갖춰야 한다”며 “공직자의 종교중립은 국민의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기초”라고 강조했다.

106명 참가해 종교중립 중요성 관심
법인 스님 등 3대종교 대표도 참가

종교간의 대화에서 법인 스님은 “종교가 다르다고해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며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종교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재 목사는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종교가 상생하고 존경하는 인간다운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6월 20일 대명 변산리조트에서 열린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워크숍’에는 조계종 교육부장 법인 스님 등 3대종교 대표들이 참여해 공무원들과 ‘종교간 대화’를 진행했다.

박기호 신부도 “정신세계를 이끌어갈 종교인들이 협력하고 노력하자”며 종교계의 관심도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21일 김제 금산사, 금산교회, 수류성당으로 이어지는 ‘전북 아름다운 순례길’을 체험했다.

한편, 군산경찰서(서장 최종선)도 20일 한국종교교육학회 회장 김기동 원광대 교수를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찬불가 작곡도 수행방편이라던 스님”

범능 스님 다비식 6월 15일 불지사서 거행

노래하는 스님이자 민중가수를 알려진 범능 스님 다비식이 6월 15일 화순 불지사에서 봉행됐다. 〈오른쪽 사진〉

범능 스님은 음반 4장과 명상음반을 발표하는 등 생전 남다른 음악열정을 꽃피웠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영결식에는 범능 스님의 두 동생 선용 · 선관 스님과 동문수학한 도반스님들과 지역 음악인 700여 명이 참여했다.

영결식은 영결법요, 헌향 · 헌다, 행장소개, 범능 스님 육성 노래, 조사, 추모의 노래, 문도대표 인사, 운구, 다비 순으로 진행됐다.

범능 스님과 함께 포교 활동을 전개했던 나주 원각사 원광 스님은 “스님은 자신의 노래처럼 항상 맑은 수행자로 살려고 노력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부단히 애쓰며 살았다”고 스님을 추모했다.

마지막 음반을 함께 만든 박문옥 씨는 “30년 전 기타 하나로 ‘의연한 산하’를 함께 작업했던 때가 첫 만남”이라며 “스님은 항상 음악도 수행의 방편이라며 불교음악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욕을 보이셨다”고 회상했다.



조사에 이어 범능 스님이 창단한 부루나합창단과 증심사 · 길상사 연합합창단의 ‘무초의 노래’가 이어졌다. 다비식 후 수습된 스님의 유골은 스님의 수행과 음악활동이 진행됐던 불지사 곳곳에 뿌려졌다.

한편 범능스님은 6월 1일 광주지역 불교활동가들과 회의를 진행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졌다. 12일 세랍 53세, 법랍 20세로 입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성다한 통일쌀이 통일 이끈다

화엄사 · 구례 농민, 6월 18일 북한 돕기 쌀 모내기 실시


비가 오는 와중에도 화엄사 스님들이 우의를 입고 모심기에 열중이다.

“한톨 한톨 정성을 다한 이 쌀이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또 남북통일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평화적 남북관계를 위한 희망의 불씨를 전했던 통일쌀 경작이 시작됐다.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내린 6월 18일 전남 구례군 용방면 신도리의 들녘에서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와 구례군농민회(회장 김종옥), 여성농민회, 기아자동차노동조합 광주지회, 구례군 장애인복지관(관장 우석, 화엄사 총무) 등 100여 명은 통일쌀 공동경작 모내기를 진행했다.

구례군 통일쌀은 지난 2007년부터 화엄사와 노동자와 농민이 함께 만든 ‘통일경작단’에서 생산해왔다. 통일경작단은 화엄사 소유의 2만평에서 통일쌀을 경작해 조계종 민족공동체지원본부를 통해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왔다. 지금까지 보낸 통일쌀은 2007년 5000만 원, 2008년 3000만 원 상당에 달한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남북 관계 단절로 직접 지원이 끊겼다. 이날 공동경작 모내기는 최근 남북대화가 가능성에 통일쌀 지원을 위해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비를 맞으며 직접 모판을 옮기고 모줄을 띄워놓고 손 모내기를 진행하는 등 정성을 다했다. 특히 화엄사 사중 스님 20여 명이 모내기에 참여해 선농일치의 정신을 실현했다.

화엄사 총무 우석 스님은 “쌀이 전해져서 동포들을 위한 작은 행복의 씨앗이 되었으면 한다”며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 곳곳에 펼쳐진 자비의 손길

증심사 수좌 스님 치료지원, 불자체육인 장학금 등 다채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는 6월 19일 광주 증심사에서 불자체육인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병마에 시달리는 스님들을 위한 자비의 손길이 감동을 전한다. 광주 증심사(주지 연광)는 6월 18일 화순 전남대병원을 찾아 백혈병을 앓고 있는 시연 스님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

송광사에서 출가한 시연 스님은 선원에서 정진 중 백혈병이 발병했다. 선원 수좌 스님의 딱한 소식을 들은 증심사 신도들은 모금행사를 열어 치료비를 모았으며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도 후원금을 보탰다. 치료비는 문도 증현 스님을 통해 시연 스님에게 전해졌다. 지역 유망 체육 꿈나무들의 꿈을 더욱 키울 장학금도 전달됐다.

광주전남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는 6월 19일 광주 증심사에서 불자체육인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불자체육인은 양한솔(전남공고, 펜싱), 이영훈(전남고, 럭비), 김기환(광주공업고, 씨름), 최다희(정광고, 역도) 선수로 각각 300만원이 전달됐다.

연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체육 활동을 하는 불자들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체육발전과 지역포교에 기여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개인의 명예와 함께 큰 사명과 자부심을 갖고 운동에 전념에 달라”고 당부했다.

전달식에는 연광 스님, 지용현 광주전남불교신도회장, 김홍식 광주광역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참여했다.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6월 14일 화순전남대병원에 의료용 마스크 100박스와 환우 아이들 간식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미쓰A 수지의 모친 정현숙 씨가 참여했다. 정 씨는 현재 광주생명나눔지역본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어린이 영어법회 창립

“I take refuge in the Buddha, ~Dharma, ~Sangha”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는 6월 16일 경내 화엄원에서 ‘화엄사 선재 어린이 영어법회’를 창립하고 첫 법회를 진행했다.

템플스테이 연수국장 종호 스님을 지도법사로 마련된 이날 법회에는 20여 어린이들이 참석해 삼귀의례 의식 등을 진행했다. 선재 어린이 영어법회는 매주 일요일 진행되며 법회 의식 전반이 영어로 진행된다. 특히 어린이 영어불교 서적을 토대로 아이들이 부처님 말씀을 영어로 공부하는 시간이 진행된다. 흥미 유발을 위해 영어 찬불가 만들기 등도 별도로 진행된다. 또 매주 아이들이 자아성찰 할 수 있는 감사노트 쓰기, 자비명상 등도 진행돼 심성개발에도 나선다. 화엄사는 기존 가족법회와 더불어 이날 창립한 어린이 영어법회를 연계해 지역포교활동을 전개할 방침다.

종호 스님은 어린이 영어법회 창립 배경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영어를 통해 불교를 알고 학력과 불심을 모두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법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참선 생활화하는 ‘원심선회’ 눈길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에서 2010년부터 3년째 진행

전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는 전주의 대표적인 전법도량이지만 이곳에 시민선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보현사 시민선방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원심선회가 열린다. 2010년 당시 보현사 주지 일원 스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원심선회는 국선도 요가, 간화선 입문 강의, 참선, 경행 등이 진행된다. 평일에 열리는 관계로 많은 이들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25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3년째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원심선회가 주로 진행하는 것은 화두참선이다. 회원 각자의 근기에 맞게 호흡법과 수식관, 염불선을 병행하며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이 무엇고’ 등의 화두를 들고 있다. 또 〈선가귀감〉과 〈간화선 입문〉 등 교재를 통한 교육도 진행 중이다.

전북불교회관 원감 보륭 스님은 “수행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초심자들을 위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명상수행도 함께 접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심선회는 여름 휴가기간 특별 용맹정진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마음의 오염원 사띠로 제거"





미얀마 마하시 선원의 공동선원장인 와사와 스님(사진 왼쪽)이 6월 15일 김해 사띠아라마에서 법석을 펼쳤다. 사진 오른쪽은 기념촬영 사진.

김해 사띠아라마, 와사와 스님 초청 법문

"수행자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와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자비심으로 인류의 현재와 미래, 자유와 행복을 가로막는 모든 적들과 용기와 결단력으로 두려움 없이 투쟁해야합니다."

미얀마 마하시 선원의 공동선원장인 아신 와사와 마하테라 스님이 6월 15일 김해 사띠아라마(방장 붓다빠라)에서 법석을 펼쳤다. 와사와 스님은 근본불교 수행법인 위빠사나로 통용되는 '싸띠(SATI)' 수행의 대가로 이번 방한은 사띠아라마 방장 붓다빠라 스님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와사와 스님을 비롯 붓다빠라 스님, 한국마하시선원장 우또다나 스님, 빤디짜 스님, 소빠카 스님 등 한국 내에서 사띠 수행법을 펼치고 있는 35명의 스님들을 초청, 사띠 전문수행도량으로서의 점검과 회향의 자리로 대중공양을 시작으로 대선사의 법문과 수행지도 등이 진행됐다.

"거룩하신 분, 바르게 깨친 분께 머리숙여 예배드립니다"를 선창하며 대중들이 함께 귀의게송을 올리는 법석은 장중하고 숙연했다. 빠알리어로 진행되는 법회의 이

전국 사띠 대중 위해 법문과 수행지도

국적 광경과 저음의 염송은 내면의 깊이를 끌어내는 힘이 느껴졌다.

와사와 스님은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에 대해 설법했다. "누구나 자유로운 삶, 여유로운 삶, 행복한 삶, 공존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이런 삶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수행자는 두 가지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외부의 적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의 적이죠"

이어 스님은 이 두 적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외부의 적은 폭력, 불평등, 그리고 편견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정한 사회를 해치는 적이고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요인들이죠. 이들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와 연대를 통해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내부의 적은 욕망과 이기심[貪心], 분노와 적의, 원망과 서운함[嗔心], 편견과 선입관[痴心] 등 세 가지 독가스[三毒心]로 불리는 마음오염원입니다. 이런 마음오염원은 부처님이 창안하고 아라한의 도과를 이룬 사띠(SATI)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와사와 스님은 서울 개운사, 중앙승가대학, 운문사 등을 돌며 법문을 펼쳤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신불산 케이블카 백지화하라"

통도사 · 환경단체, 반대성명 발표

통도사와 환경단체가 울산시와 울주군의 신불산 케이블카 건립계획 백지화를 천명하며 간월재에서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통도사와 환경단체 푸른영축지킴이(단장 배태진)는 6월15일 케이블카 건립예정지로 거론되는 간월산장에서 간월재, 파래소 구간을 항의 등반하고 간월재에서 신불산케이블카 백지화를 위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태진 단장을 비롯 통도사 부주지 재원 스님. 사회국장 도안 스님, 부산대 환경학과 이병인 교수 등 불교계, 학계, 환경단체가 함께 했다.



통도사와 푸른영축지킴이는 6월 15일 간월산장에서 케이블카 백지화를 위한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영축환경보존위원회 위원장 도안 스님은 "신불산 일대는 고산습지와 자연생태를 그대로 간직한 천혜의 자연유산이자, 통도사, 석남사를 비롯한 수많은 천년고찰과 암자 등 역사문화자원이 한 데 어우러져 있다"며 자연보존에 앞장선 이유를 설명했다.

통도사는 2013년 2월 환경 관련 전문가들로 '영축환경위원회'를 구성 영축산 주변 환경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법화종 창종 67주년 행사 성료

6월 18일 김해 흥국사서



법화종 67주년 기념법회

대한불교 법화종(총무원장 혜륜)은 지난 6월 18일 김해 흥국사에서 창종 67주년 기념 대법회를 개최했다. 총무원 강제 점거로 인한 종단분규 속에 진행된 이번 창종기념행사에는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 총무원장 혜륜 스님, 종회의장 보광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회향했다.

총무원장 혜륜 스님은 봉행사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쇄신하고 노력해서 정예화된 종단의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생명나눔 환우 위한 작은음악회

동래 우리들병원서



생명나눔 음악회 장면

생명나눔부산본부(본부장 원범스님)는 6월18일 동래 우리들병원 10층 라운지에서 제7회 환우 쾌유를 위한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본부장 자인 스님, 혜산 스님, 우리들병원 황병욱 병원장을 비롯 200여명의 환우들이 병마를 잠시 잊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행사 전 병동을 돌며 떡과 음료를 전달하며 나눔 봉사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환자와 가족들의 장기자랑과 삼광사 힐링색소폰 연주단 공연, 예림병창단 가야금 연주, 불자가수 야운 등이 출연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찰 계단, 지형특성·안전성 살려야

사찰이 산지에 자리를 잡은 까닭에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계단이 많이 조성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찰에서 계단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었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 사찰 가운데에서 계단이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찰은 부석사, 화엄사, 범어사, 해인사 등과 같은 화엄십찰에 속하는 사찰들이다. 이들 사찰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지형이 험하고 경사가 심한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러한 지형적 특성에 순응하여 터를 만들고 건물을 앉히다보니 계단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시각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험한 지형에 자리를 잡은 사찰들은 규범적 원칙을 가지고 계단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으며, 보기에 싫지가 않았다. 우리나라 사찰이 여러 단으로 공간을 잘게 구분한 것은 바로 지형과 지형사이를 연결하는 계단이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사찰에 설치하는 계단을 보면 디자인이나 재료의 선택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능성이나 안전성 그리고 시각적으로 불안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지난날에 비해서 가용지가 많지 않고, 좋은 땅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무리한 지형처리가 가능해진 까닭도 있고 과도한 토지이용을 하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지형차이가 많이 나서 계단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계단 돌의 디딤면과 챌면(높이)의 비례가 맞지 않거나, 계단참이 적당한 간격으로 마련되지 않거나 난간이 없으면 오르내리는데 불편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나이가 많은 불자들이나 장애를 가진 불자들은 계단을 이용할 수가 없다. 어떤 사찰의 경우에는 경사로와 계단을 동시에 설치해놓아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불자들에게 경사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오래된 산사에서 엘리베이터는 정서상 어울리지가 않는 물건이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적용하였던 계단설계의 규범적 원칙은 간단하다. 사부대중이 모두 만족할만한 계단을 만들었던 것이다. 사찰에서 새로 계단을 설치할 때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설계기준을 적용하면 사부대중이 모두 만족하는 계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지나치게 높고 가파른 계단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위험하기도 하다. 경상북도 o사찰.



< 원적외선의 효능 및 효과 >
- 항균, 공기정화에 도움
- 신진대사 촉진기능
- 숙면,방균,곰팡이 번식 방지 효과
-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 노폐물 및 유해중금속 배출에 도움
- 발한작용, 통증완화에 도움

불만 밝히는 기존양초와 몸에 좋은 원적외선 에너지를 펑펑 쏟아내는 양초 중에서 어느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존양초와 가격은 동일!!!

초를 켜는 순간부터 유익한 원적외선 에너지가 실내에 가득~~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머리가 맑아져 심신수양에 도움을 주고, 탈취, 항균효과까지!!!
개미, 바퀴벌레 퇴치에도 효과적 입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대명" 원적외선 양초입니다.

원적외선은 적외선중 파장이 가장 긴것으로서, 파장이 짧으면 반사가 되지만 파장이 길면 잘 흡수되는 성질이 있어 침투력이 강해 일반 열과 다르게 진피속을 투과 생체내로 침투되어 자기발열을 일으켜 온열효과를 일으키며 세포 조직의 활성화로 몸의 피로를 풀어 줍니다.

- 특허출원 제 10-2013-0041564
- 한국원적외선 협회 시험성적완료
- 한국원적외선 협회 품질보증 마크FI 획득

신비의 원적외선

대명산업
양초에 붙어있는 품질보증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 문의 >
문 의 : 02) 502-9977
팩 스 : 02) 503-5233
핸드폰 : 010-8881-0474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옛터에 핀 들꽃들이 '그날'을 물어본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 ③ 강원도 고성 건봉사(乾鳳寺)


'북쪽' 이 멀지 않은 건봉사는 한국전쟁 당시 2 년여 동안 국군 5, 8, 9사단 및 미군 제 10군단과 북한군 5개 사단이 16차례의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격전지였다.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금강산 기슭에 불이문(不二門) 하나가 서있다. 건봉사다. '북쪽' 이 멀지 않은 건봉사는 한국전쟁 당시 2 년여 동안 국군 5, 8, 9사단 및 미군 제 10군단과 북한군 5개 사단이 16차례의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격전지였다. 그때 건봉사는 완전히 폐허가 됐다. 그토록 치열했던 전쟁의 포화 속에서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은 건 이 불이문뿐이다. 불이문 곳곳에서 서로 삶과 죽음을 물었던 흔적들이 그 시절을 증언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잠시 멈춘 시간 속에 서있는 불이문의 현판이 묻는 듯하다. '불이' 의 뜻을.

분단의 슬픔 아는 도량

불이문을 지나면 개울 위로 능파교가 있다. 북녘에서 내려온 개울물이 건봉사를 적시며 내려간다. 능파교를 건너기 전 왼편으로는 전쟁의 포화 속으로 사라진 가람의 옛터가 있다. 범종소리와 풍경소리 대신 총성과 포성에 웅크렸을 가람의 표정이 쓸쓸한 허공을 채우고 있고, 전각이 사라진 기단 위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그날을 묻고 있다. 극락전이 사라진 이야기, 낙서암이 사라진 이야기,

능파교 건너에서…. 목탁소리가 들려온다. 능파교를 건너면 봉서루다. 봉서루 앞 대석단 좌우로 십바라밀석주가 서있다. 봉서루를 지나면 마당이 보이고 대웅전, 명부전 등이 있다. 건봉사 명부전에는 1250명의 호국영령 영가가 모셔져 있다. 건봉사는 매년 6월 6일 현충일에 위령재를 모신다.

능파교를 다시 건너 산 쪽으로 오르면 적멸보궁이다. 부처님 치아 사리 3과가 모셔져 있다.

건봉사는

1950년 5월 10일, 폭격으로 인해 건봉사 대웅전이 소실됐고, 건봉사가 소장하고 있던 국보 제 412호 〈마지금니화경〉 전 46권이 소실됐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민통선 이북에 자리한 건봉사는 출입이 통제됐고, 도량엔 군이 주둔했다. 그러다 1989년 1월 20일부터 민통선이 완화되면서 민간인의 출입이 자유로워졌고, 1987년부터 국가 차원의 복원 불사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전국 4대 사찰의 하나로 불렸던 건봉사는 신라 법흥왕 7년(서기 520년)에 아도 화상이 원각사를 창건해 시작됐다. 이어서 533년(법흥왕 20)에 보림암과 반야암이 창건되었다. 758년(경덕왕 17)에 발징 화상이 원각사를 중건하고 염불만일회를 중창했다. 염불만일회란 염불 수행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할 것을 기원하는 법회를 말한다. 이때 발징 화상이 정신, 양순, 등 31명의 대중과 함께 염불을 했는데 뜻을 같이 하는 신도 1,820명이 동참했다. 이것이 염불만일회의 효시가 됐다.

810년(현덕왕 2)에는 당나라 현수 법사로부터 경교를 배우고 돌아온 승전 화상이 화엄경을 강설했다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이어 937년(고려 태조 20)에 도선 국사가 왕명을 받들어 941년(태조 24)에 원각사를 중수하고 서봉사(西鳳寺)라 했으며, 고려 말엽 나옹 화상이 중수하고 건봉사라 했다.

1465년 세조가 건봉사에 닷새 동안 머물렀는데, 이때 건봉사를 자신의 원당으로 삼은 뒤, 어실각을 짓고 전답과 친필 동참문을 하사했다고 전한다. 이로써 건봉사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605년(선조 38)에는 사명대사가 일본이 약탈해 간 통도사의 부처님 사리를 되찾아와 건봉사에도 모셨다.

1878년(고종 15) 4월 3일 산불로 인해 사찰과 암자 3천 칸이 모두 불에 탔다. 학림 화상이 팔상전의 삼존불상과 오동향로, 절함도 등을 구해냈지만 나머지 당우와 집기 등은 모두 소실됐다. 그 후 여러 차례 복원 불사를 통해 1911년 9개 말사를 거느린 31본산의 하나가 됐다. 한국전쟁으로 다시 소실됐고 다시 복원 불사가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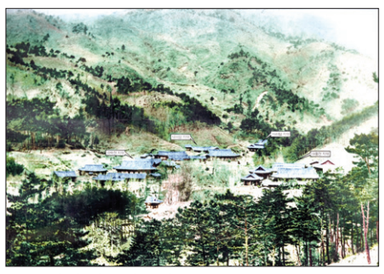
호국사찰, 불보사찰

건봉사는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의승병을 일으키고 기른 도량이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승군의 본거지가 됐다. 건봉사를 우리나라의 대표적 호국불교 도량으로 꼽는 이유다. 사명대사가 건봉사를 의승군의 근거지로 삼은 것은 건봉사가 당시 700여 명의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전국 최대의 규모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봉사에는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가 모셔져 있다. 1605년에 사명 대사가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임진왜란 때 빼앗겼던 부처님의 치아와 부처님의 사리를 되찾아온다. 그리고 원 봉안처인 통도사뿐만 아니라 건봉사에도 일부를 나누어 모시게 된 것이다. 이는 일찍이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부처님의 치아와 사리 등을 모시고 돌아와 통도사를 비롯한 지금의 5대 적멸보궁에 모셨던 것을 왜군이 약탈해 간 것이다. 현재 건봉사는 적멸보궁 사리탑에 부처님 치아사리 3과를 모시고 있고, 법당에 친견용으로 5과를 모시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한국전쟁때 유일하게 소실되지 않은 불이문


1920년대 건봉사 모습


1989년 1월 20일 민간인 출입허용 기념식

주변보기

〈사찰〉

▲**극락암** /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033-681-2095

건봉사에서 서북쪽으로 2km 지점에 있었으며, 945년(고려 혜종 2년) 창건됐다. 1878년 산불로 인해 건봉사와 함께 소실되었으나 다음 해에 중건했다. 법선 스님이 1956년 간성면 광산3리에 극락암을 신축하였다가 1962년 현재의 간성읍 교동리 280번지 함박동으로 이전하여 오늘의 극락암이 되었다.

▲**화암사** /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033-633-1525

신라 혜공왕(서기 769년)때 창건됐다. 창건 이후 5차례의 화재로 설법전 한 동만이 원형을 보존하고 있었으나 1991년 제17회 세계잼버리 이 후 널리 알려지면서 사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사찰내에 전통찻집이 있어 조용한 산사에서 전통차를 즐길 수 있다.

〈가볼 만한 곳〉

• **왕곡마을** /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 보존회 033-631-2120

전통 한옥마을이다. 양근 함씨와 강릉 최씨, 용궁 김씨의 집성촌으로 고려말 두문동 72인 중 함부열이 조선왕국의 건국에 반대하여 간성에 은거한데서 연유한다. 임진왜란으로 폐허화된 이래 150년에 걸쳐 형성됐다. 19세기를 전후하여 건축된 북방식 전통가옥들이 군락을 이루어 원형대로 보존되어 왔다. 왕곡마을 전체 가옥은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235호이며, 보존회에서는 전통한옥숙박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 **송지호** /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둘레 약4km(약 20만 평)의 호수 송지호는 겨울철새인 고니(천연기념물 제201호)의 도래지이며, 물빛이 청명하고 수심이 일정해 도미와 전어 등 바닷고기와 잉어 같은 민물고기가 함께 살고 있다. 종합관광레저타운으로 새롭게 변모한 송지호는 주변에 송지호해수욕장과 왕곡마을, 오토캠핑장, 해양심층수단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어 가족단위 테마체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 **하늬라벤더팜**(라벤더 체험마을 내) /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 033-681-0005

라벤더마을로 최근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고성군 간성읍 어천3리에 위치한 라벤더 농장이다. 라벤더마을은 2007년 '라벤더향수테마마을' 로 지정됐고, 2008년부터 하늬라벤더팜에서는 라벤더 축제가 열린다. 세계의 라벤더팜 사진 및 라벤더 정보전시회, 라벤더와 양귀비를 소재로 한 허브 수채화전, 포토 콘테스트, 오일추출 시연회, 라벤더 수확체험, 비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과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올해는 6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열린다.



〈숙박〉

설악썬밸리리조트 /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 033-638-5362
코레스코-삼포콘도미니엄 /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 033-631-3811

〈식당〉

건봉식당 033-681-5831 보리밥, 청국장, 막국수
교동막국수 033-681-3307 쌈밥, 추어탕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봉 행

(사)호국불교조계종 우란분재(백중) 49재 영가천도

부모형제 영가천도를 보시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아래 각 사암으로 동참하시어** 조상이 편안하면 나라와 가정이 태평성대하여 소원성취하옵니다

회향 : 1년에 한번 하늘이 열리는 음력 7월 15일 회향합니다

종 정

총무부장 정무 (부산 해운대구 청운암)
재무부장 무여 (부산 금정 법전사)
규정부장 정학 (부산 진구 수도암)
교육부장 묘향 (부산 수영 반야라마)
감사부장 청타 (부산 수영 관음사)
문화부장 청오 (대구 달서구 홍주암)

총무원장 유 심

원 로 원 장 대웅 (부산 진구 봉주암)
무진 (경주 횡용 용수암)
비 구 니 회 장 혜명 (부산 진구 백광사)
비 구 니 총 무 무여 (011-9509-1560)
불교전통문화원장 소현 무향
선거관리위원장 관우
포 교 단 장 덕인
포교단 총무 법광 (무량정사)

종회의장 일봉 (경주 강동 관음사)
포교원장 운암 (의령 봉수면 문황사)
감찰원장 서암 (부산 강서구 약수사)
교육원장 봉덕 (거창읍 봉덕암)
호법원장 법산 (011-3011-0853)
종회사무처장 용현 (경주 안강 원라사)
종회의원 일월 (경주 안강 상원사)
도경. 수경. 범주. 진여. 진설. 덕행

종단고문변호사 허종범 (부산) **종단사무장** 박몬비 010-4566-4504

전국 각 교구장

부산교구원장 (총무원 직할교구) 051-468-5657
서울교구원장 법안(강북 광복사 02-306-7988)
경남교구원장 운암(의령 봉수면 문황사 017-551-5143)
거창교구원장 봉덕(봉덕암 010-8582-1309)
천안교구원장 법산 010-3011-0853
대구교구원장 의광(대구 서구 약사사 016-9884-0860)
사천교구원장 무무(사천 향촌동 연지암 010-4587-2163)
불무도교구원장 수연(부산 금정구 천왕사 010-8988-9672)
경주교구원장 용현(경주 안강 원라사 010-2531-1961)
포항교구원장 수연(포항 해도동 천왕사 010-8988-9672)
양산교구원장 무천(양산 중부동 천궁사 010-2445-0160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공 동 봉 행 위 원 장 혜명. 수연

총무원 :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0번지 관음정사 (부산역) 총무국 : 051)468-5657 / 사무장 010-4566-4504 총무원 051)442-5658 인터넷주소 httpz://jogyejong.kr 팩스 051)442-5659

입종업체

신라불교미술관
● 불교문화재 기능보유자 제12-01-01호
● 2010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미술부문 수상
● 불상, 탱화, 개금, 벽화, 단청
● 조성장소 : 부산진구 초읍동 (무상 010-3557-6250)

수봉전자 (불교음향기기특수제작)
● 선거음향, cctv, 노래방, 야외앰프
● http://www.kukjeav.com
● 장소 : 부산 진구 부전동 29번지(부산전자종합시장 1F 7호문)
● 수봉 010-3832-8855

불교승복 원복사
● 가사, 장삼, 두루마기, 손누비, 모시깨끼, 승복일절
● http://www.wonboksa.co.kr
● 장소 :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276(구, 고속터미널 앞 미남로 약국 2층)
● 금봉 010-3572-4400

미얀마 불교 이야기

6. 영국식민지배기간의 불교운동

참여불교 정신으로 민족주의 불 당기다

세 번에 걸친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미얀마는 1886년 1월 1일 영국령으로 정식 편입된다. 영국의 식민지가 된 미얀마는 다시 당시 영국령이었던 인도의 한 주(州)에 속하게 됐다.

영국의 전형적인 식민지배 전략은 '분할통치(divide &rule)'다. 미얀마에서는 이런 통치 전략이 지배민족이었던 '버마' 족과 산간 및 주변부 부족들을 나누어 통치하는 방법으로 전개됐다. 영국은 다수인 '버마' 족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주변부의 친(Chin)족, 까친(Kachin)족, 꺼인(Kayin 또는 Karen)족 등 소수 부족을 이용했다. 특히 기독교 선교사들을 이용해 제국주의에 종교·문화적으로 편입시키려 하였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미얀마에서 오래전부터 선교를 시도했으나 불교신앙이 독실해 개종하는 이들은 미미했다. 이에 선교사들은 주변부 소수민족을 공략했다. 이들은 불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부족의 토속신앙이 강한 산악 지역 사람들을 개종시켜 나갔다.

선교사들은 친족, 까친족, 꺼인족 등을 '버마' 족과 완전히 떼놓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선교사들은 이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친족 여성들의 얼굴 문신이 버마족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다', '꺼인족의 홍수신화는 꺼인족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한 종족임을 증명한다' 등의 날조된 사실을 동원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인도에서 영국 선교사들이 진행한 방식과 비슷했다. 그들도 주류인 힌두교도 외에 주변 부족과 하층계급을 이 같은 방식으로 개종시켰다.

영국 식민 통치 전략은 민족분열
선교사 동원 소수부족 기독교 개종
공공교육서 불교 교육 금지 시켜



미얀마는 1826년부터 1852년까지 영국의 통치를 받았다. 영국은 주변부의 친(Chin)족, 까친(Kachin)족, 꺼인(Kayin 또는 Karen)족 등 소수 부족을 통치에 이용했다. 미얀마 소수부족 복장을 입은 미얀마 젊은 여성들의 모습



미얀마 전통사원과 영국풍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계획도시로 지어진 미얀마 양곤의 영국식 가옥



현재 대법원으로 사용중인 영국 식민지배기간 지어진 건물

불자들 중심으로 민족운동 일어나

이러한 상황에서 미얀마에서는 불자들을 중심으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난다. 1906년 기독교 YMCA에 대항하기 위해 청년불교도연맹(YMBA: The Young Men's Buddhist Association)이 결성됐다. 미얀마의 젊은 변호사들이 스리랑카 청년불교도연맹(YMBA)을 알게 되면서 만들어진 YMBA는 불교 부흥과 불교학교 운영 그리고 미얀마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1916년 YMBA는 영국인들이 불교사원에 신발을 신고 들어온 행위에 대해 사원 내 탈화(脫靴)를 법으로 보장해달라고 영국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는 무시당했으며 미안마 국민들은 차츰 영국의 지배에 불만을 품게 된다.

위빠사나 수행으로 유명한 레디 샤야도(Ledi Sayado)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장문의 성명서를 통해 영국의 정책이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1919년 미얀마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다시금 야기된다. 유럽관광객들이 또 다시 신발을 신고 사찰에 들어온 것이었다. 문제는 이를 지적하고 비판한 스님들을 영국정부가 체포해 종신형에 처한 것이었다.

이에 미얀마 스님들과 국민들은 식민정부를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며 이 같은 국민열기에 영국은 정식으로 사과한데 이어 사찰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도록 법을 제정해 공표했다.

이 사건은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불교를 매개체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후 1919년 YMBA가 미얀마 자치를 요구하기 위해 대표단을 꾸려 영국에 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YMBA는 계속적으로 자치권을 얻기 위한 운동을 펼쳤는데 점차 정치적인 성격을 띄며 '전국불교도평의회(GCBA)'로 이름을 바꿨다.

전국불교도평의회는 이후 다른 조직과 연대해 '전버마평의회(General Council of Burmese Associations)'로 확대됐다. 전버마평의회는 영국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전국평의회에는 미얀마 스님들도 대거 참여해 시장 등을 돌며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미얀마 참여불교 운동에는 스님들이 앞장서

미얀마에는 영국의 식민정책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 불교단체들이 결성돼 불교를 보호하고 진작시키려는 활동이 전개됐다.

대표적인 단체들이 중북부 만달레이의 불교협회(Buddhasasananugaha), 남부 몰라민의 불교수지회(Sasanadhara), 서부 뻬테인의 아쇼카 협회(Asoka Society)가 그것이다.

여기에는 스님들이 주도적인 활동을 했다. 미얀마 근대사에는 이처럼 스님들이 역사와 민족, 그리고 민중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참여불교' 정신이 있었다.

반식민지 반영투쟁운동 지도자인 옥뜨마(U Ottama) 스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불교교단은 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정신적 이익을 위해 집중해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불법의 위상은 신앙심이 좋은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다. 교단의 보살은 반드시 고난 속에 있는 중생들을 이끌어야만 한다."

옥뜨마 스님은 불교의 보살정신 발현이 사회와 역사를 바꾸는데 참여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옥뜨마 스님은 청년불교도연맹(YMBA)을 중심으로 영국에 대항해 미얀마 대중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운동에도 나섰다. 이 운동은 양곤대학 학생들이 중심이 된 이후 미얀마 각 대학과 학교로 퍼졌다.

옥뜨마 스님은 인도의 간디에 영향을 받아 영국식 민정부에 협력하지 않는 저항을 배워 미얀마 각지에서 세금을 내지 말 것과 외국상품을 구입하지 말 것 등을 선전했다. 옥뜨마 스님은 여러 차례 영국정부로부터 체포돼 구금을 반복하다 1939년에 생을 마감했다.

옥뜨마 스님과 함께 청년불교도연맹에서 활동한 우 위자라 스님은 반영 설법을 하다 거듭 투옥당했다. 우 위자라 스님은 세 번째 투옥 당시 단식으로 대항하다 166일 만에 옥사했다. 우 위자라 스님이 옥사한 다음해 미얀마에서는 영국통치에 저항하는 최대 규모의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이 당시 농민 봉기를 이끈 이는 사야 산(Saya San) 스님이었다. 1932년 진압되기까지 1만 명이 사살됐으며 8000명이 체포돼 28명이 사형, 270명이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사야 산 스님 또한 체포돼 1937년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미얀마 독립에는 학생들 또한 큰 역할을 했다. 1930년 학생들을 주축으로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됐는데 당시 미얀마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름 앞에 '떠킹(Thakin)'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Thakin'은 미얀마 말로 주인이란 뜻으로 꺼인(Kayin), 까친(Kachin) 그리고 샨(Shan)족 출신의 병사들이 영국군 장교를 '떠킹'이라 부르며 마치 주인처럼 여기는 것에 반대해 '미얀마는 미얀마인이 주인'이라는 의식개혁 차원에서 붙여졌다.

이들은 전국에서 민족의식과 독립의식을 고취시켰는데 1940년 경에는 청년 스님들도 이 운동에 참여했다. 1935년에는 정치정당으로 정식 창단됐으며 영국 교육 상 문제를 계기로 학생파업을 펼치기도 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이가 바로 마웅 아웅산(Maung Aung San)과 마웅 누(Maung Nu)였다. 아웅산은 후일 미얀마 독립을 이끌었으며 마웅 누는 미얀마 독립 후 초대 수상이 됐다.

미얀마 불교도들이 영국 제국주의에 대항해 민족성과 불법을 지키겠다는 운동은 해외로도 퍼져나갔다. 인도 대각회(大覺會 : Mahabodhi Society)와 미얀마 불교도들은 함께 연계해 인도 불교유적지 복원운동을 펼쳤다.

불교지도자 나서 반영투쟁운동 전개
스님들 옥고에 미얀마 국민 한마음
현대 상좌불교 사회 영향력 여기서 기인

대각회는 인도불교부흥운동의 선구자로 꼽히는 스리랑카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1864~1933)에 의해 설립된 불교부흥 운동단체다.

미얀마 짠드라마니 스님은 인도 성지에 40년 동안 머물며 대각회와 함께 인도불교재건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후일 인도불교 부흥운동을 주도한 신불교(Neo Budhism)운동 기수 암베드까르가 불교에 귀의한다.

이렇듯 식민지 시대 미얀마에서 스님들이 보여준 사회적 기능과 역할은 적극적이었다. 이제까지 우리는 초기불교전통을 잇고 있는 동남아에서 불교는 사회참여에 소극적인 소승일 뿐이며 동아시아에서 불교는 사회적 역할 의미를 강하게 지닌 대승이라는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얼마가 도식적인 사고인지 그리고 합당한 견해가 아닐 수 있는지를 미얀마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상좌불교 국가에서 불교도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단순히 전통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앞장서 이행했기에 얻어지는 것이란 점에서 현재 한국불교계가 본받아야 할 점이 많다.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삼환양초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밀납양초를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 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3×6사군자 (7.4ϕ×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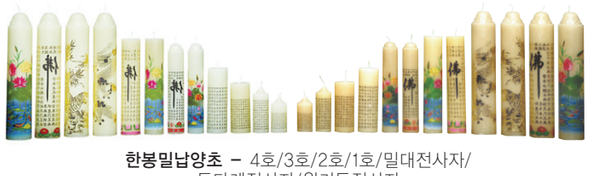
3×6식물성사군자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핑크/옐로우/살구/그린/개나리 (7.4ϕ×29㎝)



나비양초 – 화이트/핑크/옐로우/살구/그린/개나리(7.4ϕ×29㎝)



한봉밀납양초 – 4호/3호/2호/1호/밀대전사자/
돈타레전사자/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약쑥1호예술연꽃양초/야광 연꽃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1평 미니법당
(대웅전과 지장전)

부처님께서 감응하시어 장엄불사 했습니다.
모든 불자님께 알려서 친견 하시길 바랍니다.
- 나무석가모니불 -



대한불교 조계종 새로운 하얀마음선원(백심사)
전화 031)707-010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

가까이서 모시면 신심 일게 하는 어른 스님



方山老의 無影樹 〈18〉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법산 스님



법산 스님
동국대 교수, 보조사상연구원 원장 역임
아태불교문화연구원 원장, 동국대 명예교수

"주역은 우주의 기본 이론, 불교 공부에 도움 되는 철학" 강조
신심명 · 영가집 소중히 여긴 선사
〈신화엄경합론〉으로 '인촌상' 수상
"탄허 스님 권유로 대만 유학"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배움을 받으셨나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석사과정)에 들어갔는데 졸업한 것이 1973년도 2월이에요. 바로 그해 1월인가, 2월이었는데 그때 스님이 석파정(대원군 별장)에서 화엄경 교정을 보고 있었어요. 왜 그런 계기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탄허 스님을 도우면서 교정을 보던 무비 스님, 연관 스님, 성파 스님하고 내가 있었는데 "우리가 큰스님을 모시고 있는데 교정만 보지 말고 탄허 스님을 모시고 공부를 제대로 해보자"는 말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초발심자경문부터 이력 과정을 다시 배우게 되었지요. 그래서 석파정에서의 공부가 대원암으로 계속 이어졌지요. 그런데 나는 석파정에 상주하지는 않았어요. 나는 그 인근 세검정의 조그만 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절에서 예불을 마치고서는, 아침 일찍 석파정으로 와서 그 공부 모임에 참여한 것이지요. 그 때는 나는 동국대 강사를 할 때였어요. 그때 화엄경의 교정지를 찍어내는 사식기 기계가 석파정에 있었어요. 그 기계를 사자고 한 스님이 성파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탄허 스님이 성파 스님을 보고 조계종에서 경영이 최고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스님은 날보고 '석사'라고 불렀어요. 나는 대학원을 마쳤으니 그렇게 부른 것이지요. 다른 스님들은 한문만 한 스님들이어서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그때 스님을 시봉한 사람이 지금 민족사 사장인 윤창화이었고, 어떤 보살이 와서 이것저것 심부름을 하고 그랬어요.

-탄허 스님은 석파정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대원암으로 가셨는데, 대원암에서도 공부가 지속되었는가요?

그럼요, 나는 그 공부 모임이 끝났을 때까지 다녔지요. 석파정에서는 한 1년을 하였나 그렇고, 대원암에서도 오전 두 시간 정도의 공부를 한 이후에 화엄경 교정 작업을 하였어요. 그러나 나는 그때에도 세검정 절에 있었기에 숙박은 하지 않았고, 또 교정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학교로 와서 공부를 하였지요. 대원암 시절에는 범어사의 무비 스님, 지리산에 있는 연관 스님과 일장 스님, 시몽 스님 그리고 비구니로는 성일 스님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무렵 스님은 고려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어요. 그 장학금을 받던 최옥화가 대원암에 와서 스님의 일을 많이 거들어 드렸어요. 스님은 옥화가 국문과 출신이라서 문장을 잘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옥화가 머리를 깎고 출가했는데, 그 이름인 일초도 스님이 지어준 거지요. 스님은 옥화를 귀여워하셨습니다.

-대원암에서는 화엄경 출판의 일만 있었던 것으로 전하는데 그런 공부도 하였군요. 지근거리에서 본 탄허 스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신다면.

내가 스님에게 배워 보니, 스님은 가까이서 모시기가 신심이 나는 분이에요. 스님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찍 주무시고, 새벽 2시경에 일어나셔서 참선을 하시고 그랬어요. 스님은 우리들에게 12시 이전에 한 시간을 자는 것이 12시 이후에 두 시간, 세 시간을 자는 것보다 건강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스님은 가급적 일찍 주무시고 적어도 두세 시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스님은 머리가 아주 총명하셨어요. 기억력이 대단하셨지요. 스님은 사서삼경, 노자와 장자를 완전히 외우셨어요. 그렇게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기억력이 대단해! 그 어른은 열다섯 살에 사서삼경을 다 외웠대요. 그리고 노자와 장자도 혼자서 독파하였다고 그랬어요. 강의를 하시는데 자신만만하게 하셨어요. 기운이 펄펄 넘쳐 흘렀지요. 간혹 스님을 강사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스님의 안목은 선교일치(禪教一致)적인 입장에서 교를 보되, 선적(禪的)인 차원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탄허 스님의 은사가 방한암 스님이잖아요. 한암 스님이 입산 이전에 반고씨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풀기 위해 상투를 자르고 입산하였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한암 스님의 가풍이 유교에 선(禪)이 첨가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탄허 스님은 그런 한암 스님의 수제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탄허 스님은 한암 스님의 선적인 가풍을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볼 때 탄허 스님은 유교와 선이 결합된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분으로 봐야 돼요.

-탄허 스님은 주역에도 해박하셨지요?

그럼요. 스님은 주역에 아주 밝은 분이었어요. 스님은 주역은 우주와 세상 이치를 함축하여 말해주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스님은 우리들에게 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의 우주이고, 이 우주에는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를 제대로 알아야만 나와 세상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때그때 자신을 감지해서 모든 것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스님은 주역은 우주의 기본 이론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스님은 우리들에게 주역의 64괘(卦), 효사(爻辭)를 가르쳐 주셨고, 육효(六爻) 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침마다 육효를 쳤어요. 그때 나는 주역 서문도 다 외우고 그랬지요.

-탄허 스님의 역사에서 대원암은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탄허 스님이 대원암으로 들어가게 된 것에는 채벽암 스님의 역할이 있었어요. 탄허 스님이 들어가기 전에, 대원암에는 덕수 · 덕문 스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벽암스님이 불국사 주지를 하시다가 그만두고는 선학원에 와 계셨어요. 그 무렵에 동대 이사장도 하시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스님이 흥국사를 얻었어요. 주지를 끊었단 말이지요. 그러고 나서 벽암스님이 탄허 스님을 보고 화엄경 불사를 하는데 적당한 절도 없이 작업장소가 그래서 되겠느냐면서 흥국사에 와서 하라고 그러신 거지요. 그래서 탄허 스님이 흥국사를 가서 보니 서울에서 너무 멀고, 교통이 나빠서 안 되겠으니 아무래도 작업 장소는 서울 시내에 있어야 하겠다고 연락을 하였어요. 그러자 벽암스님이 대원암 덕수 스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흥국사와 대원암과 교환을 하자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흥국사로 들어가고, 탄허 스님이 대원암으로 갈 수 있었지요. 이런 것을 탄허 스님이 대원암에서 우리들이 공부할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장님이 항상 벽암 스님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듣고 알았어도, 기억해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탄허 스님은 화엄경 출간을 해서 인촌상을 타시고, 1977년에는 출간 기념으로 월정사에서 특강법회를 열었지요?

그렇지요. 나는 스님이 인촌상을 타신 것을 그때에 알았지만, 상을 받는 곳에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엄경 특강에는 나도 참석해서 두 달간을 가서 공부했어요. 그게 열리게 된 것은 대원암에 있던 스님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말에 의해서 하게 된 거예요. 화엄경 책이 나오고 나서 우리들이 책만 나온 것으로 그냥 두는 것보다 큰스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자, 화엄경을 제대로 한번 보자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 그런 말이 계기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서 하냐고 하였는데, 그때 마침 월정사의 강당(서별당)이 지어져서 그것을 회향하는 기념으로 하자고 희찬 스님이 말씀하셔서 월정사에서 하게 되었어요. 나는 아직도 그때에 받은 앨범과 수료증을 갖고 있어요. 그때에는 내가 강사 시절이었는데, 추운 겨울에 가서 공부를 잘 하였어요.

-그때를 회고하여 주시지요.

두 달간 공부하는데, 우리는 매일 여덟 시간을 배웠어요. 그때 거기에서 함께 배우던 스님들은 대원암 시절에 함께 있었던 무비 스님, 통광 스님, 성파 스님이 있었고 그 밖에 봉주 · 능혜 · 관조 · 선과 · 정우 스님이 있었고 비구니도 여럿이 있었어요. 성일 스님, 그리고 지금 승가사 주지도 있었지요. 어쨌든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스님이 얼마나 열강을 하셨던지, 스님은 흑판에 모든 경전을 달달 외우셔서 판서를 가득 하셨어요. 비구니 성일 스님도 녹음을 하였지만, 나도 녹음을 하였고 여러 사람이 녹음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어요. 나는 그때 스님의 강의를 통해 화엄경의 세계를 체득했어요. 화엄의 세계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태평양의 물방울, 지푸라기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처럼 화엄세계는 광활한 세계인데, 그런 세계도 한마음이 정해 준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화엄경의 철학성, 실상의 세계를 알 수 있게 해준 강의였어요. 그럴 때에 스님은 책을 보지 않고, 판서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스님 강의를 신심있게 잘 들었어요. 아마 그런 강의는 전무후무(前無後無)할 겁니다. 탄허 스님처럼 훌륭한 분을 모시고 그런 강의를 하였다는 것은 근세에 있어서 없지요. 정말 기념비적인 공부이고 법회였어요. 나는 그 무렵에 스님이 삼보법회에서 하였던 원각경 강의도 들었지요.

-탄허 스님은 보조사상을 무척 강조하셨지요?

그렇지요. 나는 대만에 유학을 가기 전에는 인도철학과 출신이라 인도철학과에서 강사로 있었는데 유학을 갔다 와서는 선학과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선학과 교수가 되었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대만유학을 간 것, 그리고 보조사상을 연구해서 박사를 받아서 선학과 교수가 된 것을 자세히 말해 주지요. 나는 수업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탄허 스님의 전도사예요. 나는 강의시간에 어른 말을 항상 잘 들어야 하고, 모든 일에 어른의 말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였어요. 나를 봐라, 내가 대만에 가서 공부하라는 탄허 스님의 말을 듣고 교수가 되었다는 말을 하였지요. 내가 대만에서 공부하다가 방학 때에 귀국해서 학하리로 탄허 스님을 찾아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스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어서 들어오라"고 대단했어요. 그리고 나를 칭찬해 주시면서 스님이 '향상일로(向上一路)'를 써 주셨어요. 그 말미에는 법산상인(法山上人)에게 준다는 것이 써 있지요. 그 유묵의 액자는 동국대 나의 교수 연구실에 늘 걸려 있었지요. 그리고 내가 대만에서 홍법원이라는 절을 만들었거든요. 스님은 그 홍법원의 현판 글씨도 써 주셨어요. 내가 홍법원의 개산조인데, 지금도 스님 글씨로 된 현판이 걸려 있어요.

-법산 스님에게는 탄허 스님의 영향이 상당하였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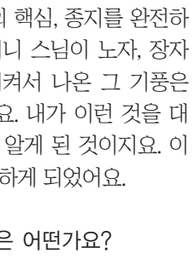
내가 대만에 가서 공부하면서 탄허 스님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스님의 글씨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탄허 스님의 초서 글씨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만에 가 보니, 대만의 우이임이라는 유명한 서예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중국 서예의 종점에 있다고 평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글씨는 힘이 넘치고 그런데, 탄허 스님의 글씨와 닮은 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탄허 스님이 학문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서예 예술의 세계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탄허 스님은 선교를 일치하는 학문세계에다가 예술세계가 결합된 정점에 도달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탄허 스님을 이렇게 봐요. 나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탄허 스님을 모시고, 재발심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내가 1986년에 귀국하기 이전에 스님은 1983년에 돌아가셨어요. 방학 때에나 귀국한 이후에 오대산 방산굴을 가 보았는데 나는 많이 서글펐지요. 탄허 스님은 교학을 가르치시면서도 늘 사서삼경이나 노자와 장자를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내가 대만에 가 보니 대만의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노장학, 사서삼경의 과목이 다 있어요. 일반 중국인에게 다 배우게 하였어요. 그래서 나도 대만에서 주역, 노자, 장자를 다시 배웠는데 그렇게 다시 공부하면서 탄허 스님의 실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지요. 중국에도 이런 어른(탄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대만의 그 많은 선생 중에서 탄허 스님과 같은 어른이 없었어요. 탄허 스님의 말씀, 강의는 불교의 참선을 하고 나서 딱 나온 것의 핵심, 종지를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스님이 노자, 장자의 도교사상과 선학을 일치시켜서 나온 그 기풍은 마음에 탁! 와 닿는 것이었지요. 내가 이런 것을 대만에 가서 공부하면서 철저히 알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나는 탄허 스님을 재인식하게 되었어요.

-탄허 스님의 개인적인 기질은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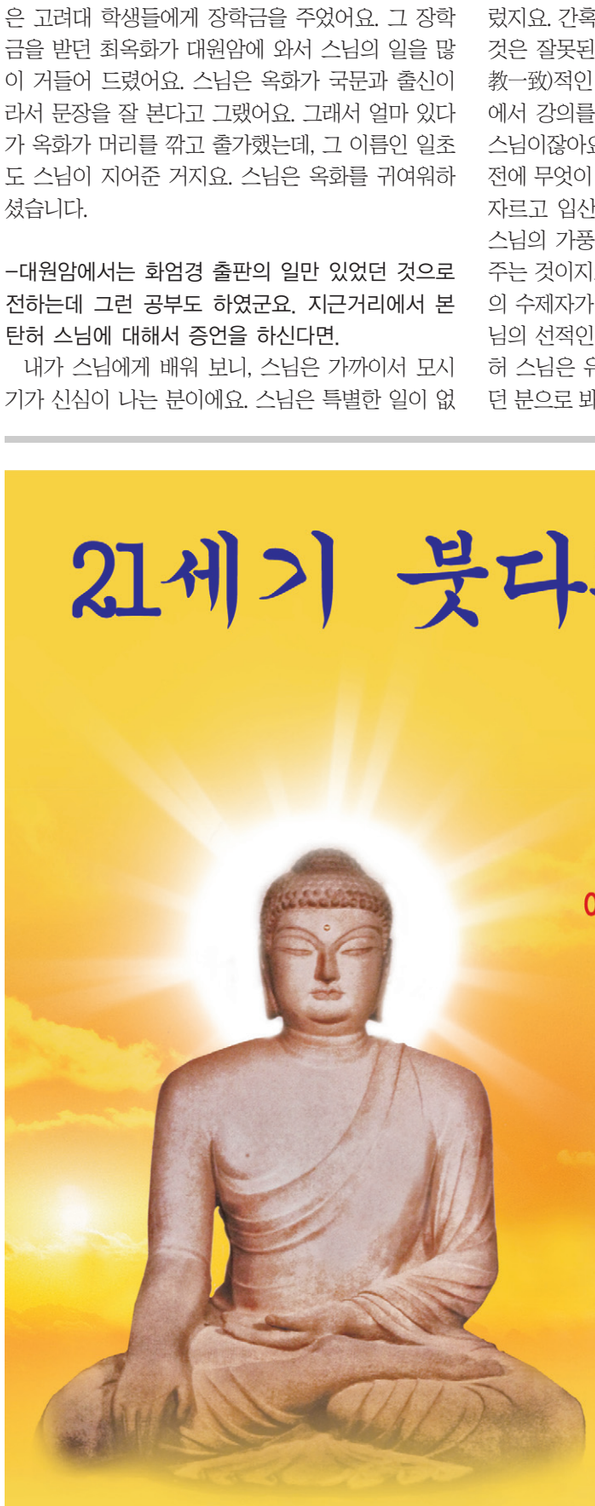
스님은 기(氣)가 있어요. 그래서 판소리, 창, 국악을 좋아하셨어요. 월정사 특강할 때에도 조상현, 안숙선, 신영희 등을 불러서 소리를 들었지요. 이것은 멋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멋쟁이였어요.

-탄허 스님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특징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나는 탄허 스님을 강사로 보면 안 된다고 보지요. 그 스님은 선교(禪教)를 겸한 어른이십니다. 교학적으로는 유불선을 통달하셨어요. 비록 그 어른이 논문을 쓰시지는 않았지만, 학문적인 체계는 완전히 갖추셨다고 나는 생각해요. 스님은 단순한 강백이 아니셨어요. 강의 도중에도 선적인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탄허 스님의 은사가 방한암 스님이 아닙니까? 한암 스님은 경허 스님의 법을 이었으며, 일제시대에 최고 선사(禪師)로 이름을 날린 스님이잖아요. 그런 스님의 정통을 이은 분이 탄허 스님이신데, 스님이 선을 안 했고 모른다는 소리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스님은 신심명과 영가집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참선을 하더라도 장자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하여간에 스님은 선에 해박하셨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지요.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 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개정판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도서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장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힘 다한 화살 다시 떨어져 내생 초래”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25〉



범어사 주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제행이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법이다.[諸行無常 是生滅法]” 하신 말씀을. 그리고 “힘이 다한 화살은 다시 떨어지니, 뜻대로 되지 않을 내생을 초래할 것이다. 어찌 무위의 실상문[無爲實相門]을 한 번에 뛰어넘어 여래지에 곧바로 들어감만 같으리오.”라고도 하셨다. 아쉽게도 그대는 이 정도의 근기가 아니므로, 옛 사람이 세우신 방편문에서 널리 지해(知解)를 배워야 하리라.

배휴가 눈뜬 바가 있기 때문에, 알음알이를 배우도록 권하는 것이다. 안목을 여는 체험이 없는 입장에서는 익히면 익히는 것만큼 어리석어지지만, 안목을 눈뜬 입장에서는 배우고 익힐수록 방편지가 새로워져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

‘제행이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법이다.’는 《열반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구게로 일명 ‘설산게(雪山偈)’ 혹은 ‘제행무상게’라고도 한다. 이어지는 대목은 ‘생멸이 멸해 그치면, 열반락에 이른다.[生滅滅已 寂滅爲樂]’이다. 그리고 ‘무위실상문~’ 구절은 영가현각(永嘉玄覺, 665~713) 대사의 절창 〈증도가〉에서 인용한 것이다. 실상문이란 ‘일체법 그 자체가 진실한 이법(理法)을 현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지공이 말하기를 ‘세간을 뛰어넘은 눈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대승의 법약(法藥)을 잘못 먹게 된다.’고 하였다.

공부한 후라도, 모든 일을 밝게 알고 있는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 가르침을 구해야 한다. ‘이미 나도 안목을 열어 선지식이 되었는데, 따로 선지식을 구할 필요가 없다.’며 증상만을 낸다면, 소위 ‘선지식병’에 걸리게 된다. 그러면 다시 어지러워져서 갈피를 못 잡을 때, 올바른 길로 인도 받을 기회를 잃는 것이다.

네 지금부터 행주좌와에 늘 무심(無心)을 닦아 오래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대는 역량이 부족해서 단박에 뛰어넘지는 못한다. 다만 3년이나 5년 혹 10년만 지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을 얻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그대는 이렇게 해내지 못하고, 굳이 마음을 가지고 선(禪)을 배우고 도를 배우려 하니, 그것이 불법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서두를 것이 없이 믿음을 내고 기다리면 자연히 이루어진다. 조심해서 시간 보내면 5년, 10년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질 것인데, 믿지 않고 허망한 짓을 하니까 공부가 되었어도 병통이 생기는 것이다.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좇는다 하더라도, 생각을 일으켜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유위의 생멸법은 불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여래의 설법은 모두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누런 나뭇잎을 돈이라 하여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이란 결코 실다운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중생으로 하여금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을 베푸신 것이다. 믿음을 잃어 중간에 그만두지 않도록,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면, 방편에 매달려서 그것이 공부 인양 오해하지 않는다. 방편을 배우고 숙지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수단에 집착하여 머무르며 시간 낭비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공부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시간 보내는 것이 공부가 더 빠를 수 있다. ‘누런 나뭇잎’ 이야기는 《열반경》에 나오는 우화다.

만약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종문(宗門)의 사람이 아니다. 또한 그대의 본분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경에 이르대, “실로 얻을 만한 어떠한 법도 없는 것을 아뇩보리라 한다.”고 하였다. 만약 이 뜻을 알아챈다면, 불도(佛道)와 마도(魔道)가 모두 그릇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근본 자리에서 보면, 법이라는 그림자도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기에 실답다고 할 수 없다. 선은 본래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실체를 등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반야지혜와 무명업식이 모두 본래 없음을 밝힘으로써, 단도직입으로 진리당처의 핵심오의를 드러나게 한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연 있는 이들에게는 참선을 통해 실질적인 수행과 깨달음의 문을 열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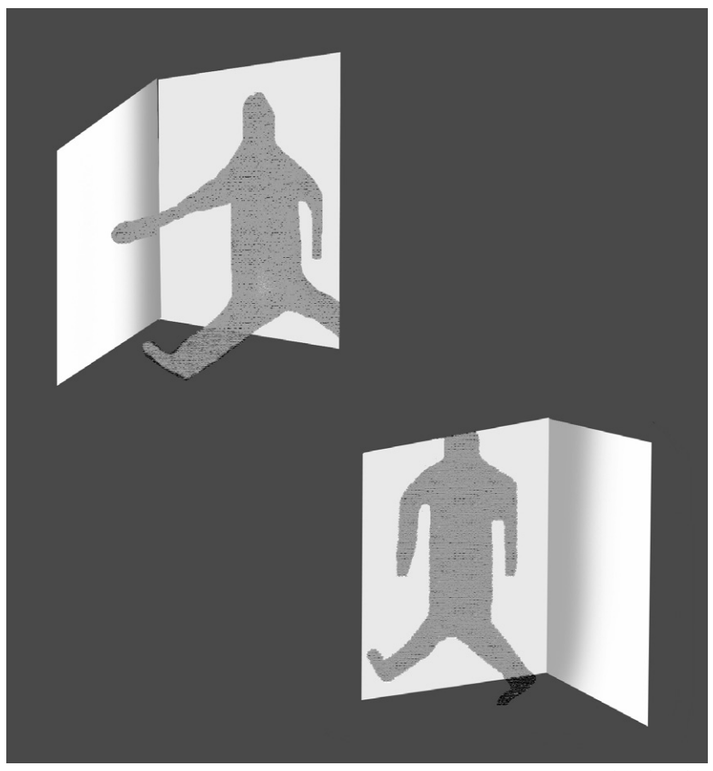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제행무상 이것이 생멸법’
〈열반경〉의 유명한 사구게

안목에 눈떠 배우고 익히면
방편지가 새로워져서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이익

눈 밝은 스승 만나지 못하면
대승의 ‘法藥’ 잘못 먹게 돼
선지식 병에 걸리게 되면
갈피 못잡아 바른길 잃어

마음갖고 禪과 道 배우는 것
불법과 무슨 상관 있겠는가
유위의 생멸법은
불법과 아무런 상관 없다
얻을 법 없는 것이 ‘아뇩보리’

본래 청정하며 투명하고 밝아서 모나지도 둥글지도 않으며, 크지도 작지도 않고, 길거나 짧은 형상도 없다. 번뇌도 열반도 없고, 미혹과 깨달음도 없다. 그러므로 “분명히 보라. 한 물건도 없다.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항하사 대천세계(大千世界)는 바다의 물거품이요, 모든 성현들은 스치는 번갯불 같다.”고 한 것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제행은 무상하다. 하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실상 자리를 투철하게 깨달아 알았다면, 남에게 설명할 수는 없을지언정 스스로 밝게 사무칠 수는 있다.

모든 것이 진실한 마음만 같지 못하다. 법신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과 조사와 더불어 동일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을 알아들었다면, 마땅히 크게 노력해야 한다. 이번 생을 마칠 즈음에는, 내쉬는 숨이 들이쉬는 숨을 보장치 못한다.

어떤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인지는 아는 사람만 안다. 모르는 사람은 부지런히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다 저지레지만, 아는 사람은 하는 바 없이 하면서 잘 살펴 쓴다.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천지현격이다. 안다 하더라도, 그 수단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 그 차이를 숨길 수 없다. 정신없이 살았는지 뼈저리게 정진했는지,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마련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⑮



모든 중생이 나와 같아지기를 발원하였다.

〈법화경〉

‘소승과 대승’의 개념

옛날에는 그랬다. 불교를 크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누었다. 소승불교는 열등하고 대승불교는 우수한 불교라고 말하였다. 그럼 어떤 불교가 소승불교였던가? 시간적으로는 대승불교 이전의 모든 불교가 다 소승불교이고, 지역적으로는 동남아시아의 불교가 소승불교이다. 그렇게 가르쳤다.

이런 방식의 분류가 잘못된 것임은 현대에 들어오면서 지적된다. 그 지적의 역사가 현대불교학의 역사인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어떤 책에서고, 어떤 교실에서고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다.

만약 그런 식으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나눈다면, 자칫 부처님 당시의 불교도 다 소승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실제로 중국에서 “아함경”이 번역되었지만, 널리 읽히지 못한 데에는 이러한 점 역시 하나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소승이라는 말보다는 부파불교라든지 하는 개념으로, 대승불교 이전의 상황을 설명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데 정말 ‘소승’은, 없는 것일까? 아니, 없어도 좋은 것일까? 불교사적 시대구분으로서는 용도폐기되어야 할 말이지만, 이념형(理念型)으로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닐까.

올바른 불자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사람을 보면, “야, 너 그렇게 하면 소승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경책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올바르지 못한 관점과 자세를 갖추고 있는 ‘소승’은 〈아함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대승경전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 동남아의 불교도들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북방불교의 신자들 사이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소승과 대승’의 기준

누가 소승이며, 누가 대승인가? 그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일까? 〈법화경〉 방편품에서, 나는 그 해답을 발견하였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기를 바라는 사람”은 대승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승이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깨닫기를 바라는 사람은 대승이고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깨닫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소승이다. 다른 사람이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대승이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소승이다.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부자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대승이고,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나는 알 바 없다는 사람은 소승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물음이 제시된다. 그래, 좋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깨닫기를 바란다. 그런데 일단 나부터 깨달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러니 내가 깨달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달라. 그 동안은 나의 깨달음에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 그것이 바로 소승이다.

나는 〈법화경〉 방편품의 말씀을 동시적(同時的)으로 읽는다. 모든 중생이 나와 같기를 바란다는 것은, 오늘 내가 깨달음



그림 · 박구원

을 향해서 1킬로 전진하였다면 그 1킬로의 전진을 다른 모든 중생이 다 동시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중생은 부처님으로부터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전수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아가는 과정에 동시적으로 참여하도록 초청받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회향(廻向)이 있다. 내가 오늘 〈법화경〉 방편품을 읽고 공부했다. 그렇다면, 거의 동시적으로 회향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모든 중생 사이에는 차이가 질 수밖에 없다. 나는 방편품을 읽고 공부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아, 그럼에도 그 상황을 그냥 두고 본다면, 어느덧 나는 소승이 되고 만다. 무서운 일이다.

다행히 회향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로 열려있다. 지금 현대인들은 그런 점에서 행운아들이다. 인터넷이 있고 SNS가 있다. 길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뜻이 없을 뿐이지. 그렇게 뜻(願)없는 사람 그를 우리는 ‘소승’이라 부른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공 고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 호법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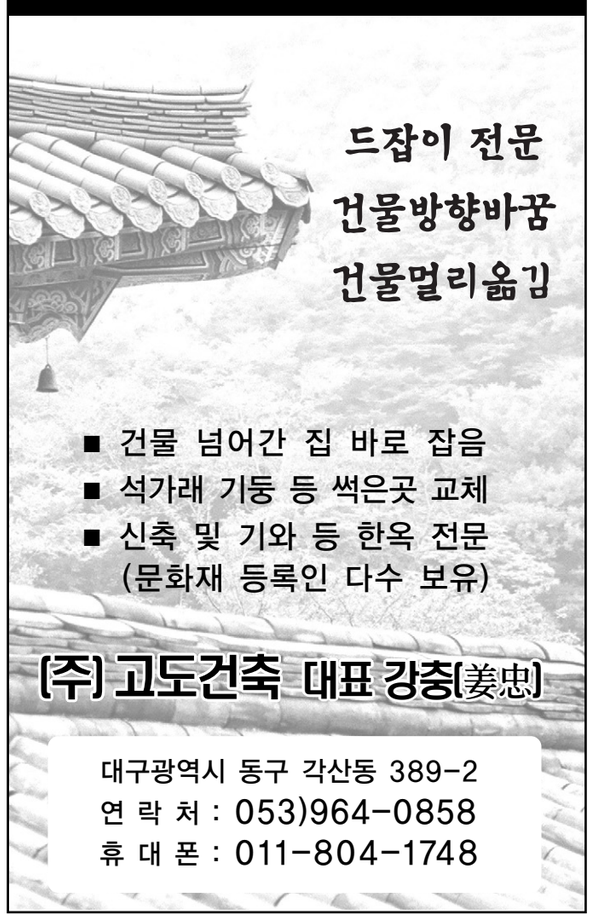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음범패
제2기학인모집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예불)
(천도, 49재, 모든의식)
▶작 법 무 : 천수바라, 황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교육과정 : 6개월
▶모집인원 : 수시모집
▶교육대상 : 제한없음
▶개강일시 : 2013년 6월 17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까지)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
대무량사 총무원(불교회관)
▶문 의 처 **010-5065-5690**
011-887-4591

사)한국미륵불교 부설
불 교 대 학 범 패 원

고(古) 건 물
수 리 전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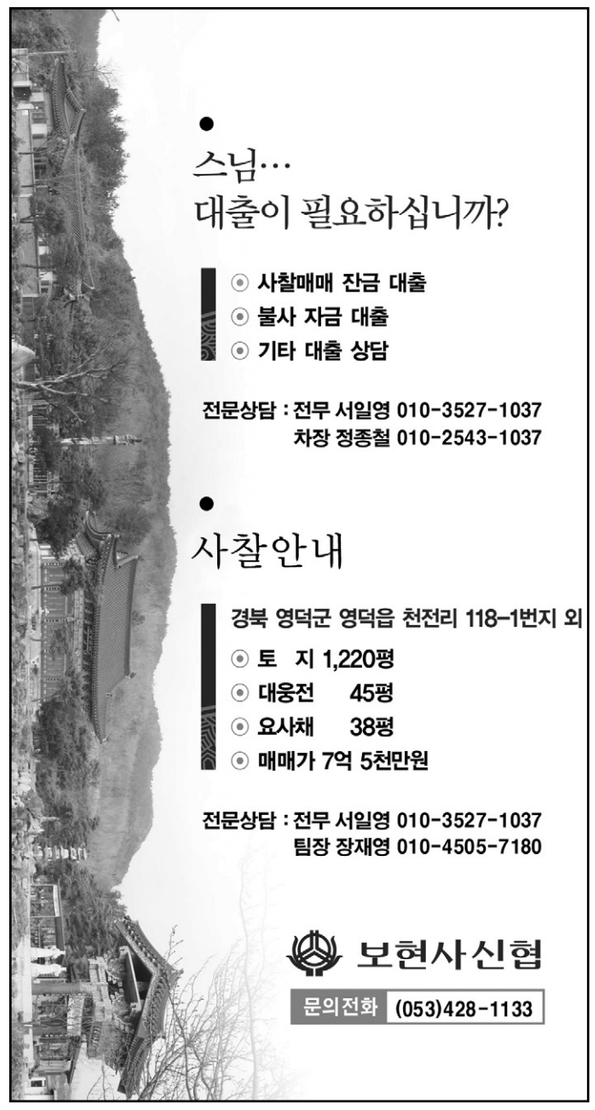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매매 잔금 대출
◉ 불사 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사찰안내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118-1번지 외
◉ 토 지 1,220평
◉ 대웅전 45평
◉ 요사채 38평
◉ 매매가 7억 5천만원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팀장 장재영 010-4505-7180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순풍에 뱃길 여의하시길"

초의가 벗을 찾아 제주로 향했던 시기는 대략 1843년 늦은 봄으로 짐작된다. 이런 사실은 이 해 여름, 그가 제주 목사 이원조와 어울려 지은 〈제목이공색시차망경루운(濟牧李公索詩次望京樓韻)〉에서 확인된다. 그가 차운(次韻)했던 망경루는 제주목의 관아 객사였던 영주관의 부속 건물이다.

현재 제주 북초등학교 동쪽 삼도2동에 위치했던 이 관아는 세종 16(1434)년 화재로 유실되었다가 다시 복원된 후 거듭 증, 개축되었는데, 관덕정, 홍화각, 연희각, 우연당, 영주협당, 외대문, 귤림당, 동대문, 망경루, 회랑 등이 어우러진 제법 큰 규모였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대부분 유실되어 관덕정 건물만 남았던 것을 1999년~2010년 제주 관아 일부가 복원되면서 망경루의 옛 모습을 되찾게 된 셈이다. 바다 건너 임금이 계신 곳, 궁궐을 바라보며 군신의 지중한 예를 갖추었던 장소, 망경루는 바로 제주에 부임했던 관리들이 임금을 향한 충정을 드러낸 누각이다. 초의 또한 이 망경루에서 제주목 이원조와 한바탕 글재주를 다투던 곳. 이런 아회(雅會)도 잠시 초의는 제주에서 상흔(傷痕)을 입는다. 말을 타다 입은 상흔은 객승 초의를 고달프게 했던가 보다. 그가 제주를 떠날 무렵 추사는 그의 안위를 걱정하여 편지를 보냈는데, 이러한 전후의 사정을 담았던 편지가 〈주상운타첩〉에 수록되었다가 세상에 드러났다. 〈완당문집〉 '여초의'에도 누락된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돌아 온 인편에 그대의 편지가 있어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오히려 오랫동안 이어져 빨리 암자로 돌아가 한가롭고 편히 지내는 것만 못합니다. 고달픔에 지쳐서야 떠나게 되는군요. 이 또한 망상이겠습니다만 한 일 년 쯤 머무는 것이 좋았을 겁니다. 다만 돌아간 후에 따로 절룩거리는 원숭이 같은 몸을 치료하시고, 그런 후에야 온 몸이 편하고 마음대로 움직여져서 쓸모없던 것이 원래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말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희극일 뿐입니다. 오직 순풍에 뱃길이 여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1843년 9월 6일 륵 (便回禪存甚慰 所苦之尙爾彌延 不如亟歸庵中任其偃仰 至於曳病來別 是又妄想 一以截住爲佳 但於歸後 另治跳猿 然後百骸無不便利 至若蟲臂任化 何足計爲此言書出 戱劇而已 惟冀風順帆吉 不宣 癸卯九月六日 沕)



초의가 제주를 떠날 무렵 추사로부터 받은 편지인 〈주상운타첩〉

벗을 아끼는 마음 잔잔하게 전해져
초의 스님, 1843년 봄 제주 방문
제주목과 망경루서 글재주 겨뤄

당시 초의의 고달픈 정황은 "고달픔에 지쳐서야 떠나게 되는군요"라고 한 추사의 증언을 통해 짐작된다. 당시 초의는 상흔이 다 아물기도 전에 제주를 떠나야했던가 보다.

곤란한 상황에서 제주를 떠나야하는 벗을 위해 "고통스러운 것이 오히려 오랫동안 이어져 빨리 암자로 돌아가 한가롭고 편히 지내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한 추사의 위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간파한 그다운 처방이다.

한편으론 오래도록 자신의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란 그의 마음은 "이 또한 망상이겠습니다만 한 일 년 쯤 머무는 것이 좋았을 겁니다"라고 한 것에서 또렷이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풍자와 희언을 구사했던 추사의 언행 속에는 해학을 넘어 잔잔한 애상(哀傷)이 밀려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희극일 뿐입니다"라고 한 추사의 말 속엔 유배지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분명하다. 그의 말처럼 "돌아간 후에 따로 절룩거리는 원숭이 같은 몸을 치료하시고, 그런 후에야 온 몸이 편하고 마음대로 움직여져서 쓸모없던 것이 원래대로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한 충언엔 벗을 아끼는 마음이 잔잔하게 전해져 읽는 이의 콧등을 아리게 한다. 충비(蟲臂)는 자잘해서 말할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한다. 초의의 상흔은 그런 것이다.



1843년 9월 경, 뭍으로 돌아가는 초의에게 순조로운 바람, 뱃길도 여의하길 빌었던 추사였다. 지기(知己)이란 바로 이런 성의를 서로 전하고 느껴지는 관계이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社團法人 세계 불교 법왕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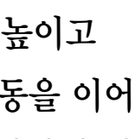
법왕 추대시까지 임시 중앙 정부 조직으로 추진위 활동
추후 임시 중앙정부 10월 9일 선포식 예정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 큰스님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하여 추대 하고자
법 왕 청 을 설립 하였습니다.

세계 불교 지도자들은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지구촌 중생 교화, 교육, 중생구제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법왕 및 승왕을 추대 옹립한 이후 각 불교국 나라의 대표자
대승정, 승정을 임명하여 법왕청을 중심으로 세계 불교인들의
체계적 조직을 이룰 것입니다.
큰스님들께서 직접적인 동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왕청에서는 동참하시는 스님들께 경제적인 부담이나 경비를 단 한번도 요청한 적도 없으며 회비조차도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항간에 금액을 요구했다느니 하는 모략과 시기성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철없는 자들의 언행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禪的 직관과 통찰로 순수 서정시 지평 심화

최동호 고려대 교수(시인 · 평론가)

6월 20일 최동호(65)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제자들이 〈치인(痴人)의 숲과 바람의 씨눈〉이라는 제목의 기념문집을 발간했다. 오는 8월 정년퇴임을 앞둔 스승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다.

경남대 국어국문학과,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최동호 교수가 걸어온 길목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들이다. 그 이정표에는 연구자로서, 시인으로서, 비평가로서의 이름이 돋을새김 되어 있다.

시력(詩歷) 40년을 앞둔 최동호 시인은 시인과 평론가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면서 세 학교에서 수많은 시인, 평론가, 연구자를 길러냈다. 정일근(경남대 교수) 시인, 문태준(춘천 불교방송 PD) 시인, 성선경 시인, 장만호(경상대 교수) 시인, 박덕규(단국대 교수) 시인, 맹문재(안양대 교수) 시인, 오형엽(수원대 교수) 문학평론가 등. 그동안 최 교수의 가르침을 받고 문단에 발을 내디딘 문인만 70여 명에 이르며, 학부와 대학원에서 그에게 현대시를 배우고 국문학자의 길로 들어선 제자만 포함하면 120명을 넘는다. 이 가운데 60여 명의 시인, 20여 명의 평론가, 40여 명의 문학연구자가 기념문집에 참여해 자신들의 대표시와 최 교수의 시에 대한 감상과 인연을 담은 에세이집 〈치인의 숲과 바람의 씨눈〉을 봉정했다.

이처럼 한국 현대시문학이라는 숲에 수많은 씨앗을 심은 최동호 교수는 사실 불교와 인연이 깊다.

그는 고도의 정신주의 시세계를 열었던 시인이자 승려였던 김달진(1907~1989) 시인의 사위로, 박덕규 시인과 함께 김달진문학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김달진 전집(문학동네)을 냈다.

제1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그는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선정을 10회까지 도맡아 했으며, 만해대상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최 교수는 최근 만해 스님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11회 유심작품상 시 부문에 선정돼 오는 8월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는 만해축전에서 상을 받게 된다. **(본지 943호 4면 보도)**

6월 18일, 서울 성북구청 근방 최동호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시사랑문화인협의회 사무실에서 최 교수를 만났다. 그의 자리에는 연구와 교육, 그리고 시 창작과 평론에 35년을 바친 노학자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청년시절 〈법구경〉 구절로 방황 달래
김달진 시인 딸 김구슬 교수와 결혼
"경전번역 몰두 장인 모습 외경 스러"
1990년 '김달진문학상' 제정, 사상 기려
그가 만든 '극서정시' 격식벗은 선시 비슷
보조국사 〈참 마음 닦는 법〉 출간 준비

만해 스님 '님의 침묵' … 가을의 전율

1948년 수원에서 태어난 그는 당시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근무지를 따라 부산, 목포 등 지방도시에서 유년기를 보내다 다시 수원으로 돌아와 남창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책을 좋아하는 학생이며 도서부장과 문예 반원으로 활동했다'고 기록돼 있다. 최 교수는 당시를 떠올리며 "멀리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외갓집에서 홀로 공부하는 소년의 외로움이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중학생이 된 1960년, 팔달산 언덕과 수원 천변서 놀던 기억은 최 교수의 문학적 상상력의 출발점이 됐다.

"초여름 어느 날 화령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보았던 붉은 작약꽃밭은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놀람과 경이의 기쁨을 느끼게 했습니다. 화령전 한편에서 들리던 국악 소리도 영혼 깊숙한 곳에 맴도는 음악적 체험이었으며 화령전 입구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는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의 표상이 됐죠."

일학년을 마친 그는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던 목포로 전학했고, 얼마 후 아버지는 5 · 16 군사정변으로 인해 강제 퇴직을 당했다. 중3 시절은 최 교수에게 우울하고 어려운 시기였다.

이후 시골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옮긴 최 교수는 역사나 철학서를 탐독하며 전공으로 공부하겠노라고 다짐했다. 최 교수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산문(山門)에 들어가 스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용기가 없어 결단하지 못했지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많아 책을 많이 읽던 시기였다.

그러다 고2 가을 국어시간, 동급생이 만해 한용운의 시를 암송하는 것을 듣고 크게 마음이 흔들렸다.

"동급생이 '님의 침묵'을 낭송했습니다. 약간 더듬거렸지만 그가 낭송을 끝내고 나자 침묵하던 교실 안은 이상한 전율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이 알 수 없는 가을의 전율을 계기로 문학을 지망하게 됐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시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 교수는 법이나 경영을 지원하길 희망했던 부모님의 권유를 뿌리치고 조지훈 시인이 있는 고려대로 진학했다. 시의 매력을 느끼기도 잠시, 대학 3학년 시절인 1968년 5월 조지훈 시인이 타계하면서 최 교수는 한동안 문학적 방황을 했다. 무너진 꿈을 찾기 위해 그는 혼자서 몇 백 권의 시집을 독파하는가 하면, 동시 교내 독서 서클 호박회 회장이 돼 매주 학생들과 함께 한 권의 고전을 읽었다. 졸업을 앞두고 도서관에 진을 치고 있던 학구파들이 회계사가 되거나 고시를 하고, 일류회사에 입사하면서 하나둘 씩 제 길을 찾아갔다. 반면 최 교수는 습작시를 쓰고 있었으나 뚜렷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날들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최 교수에게 위로가 된 글이 있었다. 바로 김달진 시인이 역술한 〈법구경〉의 구절이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이 멀 듯이/ 불법(佛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생사(生死)의 밤길은 길고 멀어라'

최 교수는 군복무를 하면서도 습작시를 써내려갔다. 제대 후 20대 중반 무렵, 고등학교 교사가 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일생을 걸고 문학을 계속 할 것인지 고민했다. 그러던 중 월정사 마당에 가슴 속에 새겼던 〈법구경〉의 그 구절이 돌에 새겨져 비를 맞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숫타니파타〉 〈아함경〉 〈유마경〉을 탐독하는 계기가 됐다.

스님 김달진 시인과의 만남

1976년 시간강사를 할 무렵, 최 교수는 대학시절부터 갖고 있던 시작노트를 정리해 〈황사바람〉(열화당)을 발간했다. 이때 지인의 소개로 한 여인을 만났다. 김달진 시인의 딸 김구슬 교수(협성대) 였다.

"아내(김구슬 교수)를 몇 차례 만나면서 부친이 김달진 선생님인 것을 알게 됐고, 그 분이 생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연이라 생각했죠. 책에서 본 인연이 10년이 지나면서 현실로 이어지게 된거죠."

시인이자 한학자이며 승려였던 월하 김달진 시인은 1960년대 이후 은둔하면서 동국대학교 역경(譯經)위원으로 불경 국역사업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1983년에는 불교정신문화원에 의해 한국고승석덕(碩德)으로 추대됐다.

김달진 시인은 은둔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시세계를 견지했으며, 시집 〈청시(靑詩)〉(1940)를 비롯해 시전집 〈올빼미의 노래〉(1983), 선시집(禪詩集) 〈한 벌 옷에 바리때 하나〉(1990) 등을 통해 세속적 영욕이나 번뇌를 초탈한 절대세계의 지향을 표현하고자 했다.

"김달진 선생님은 수도자적인 분이셨고 자신의 공적을 남에게 알리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시인이라는 세속적인 이름을 버리고 불교 경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내볼까 하는 생각으로 고민하던 최 교수에게 노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서너 시간씩 경전번역에 몰두하던 김달진 시인은 외경스런 존재였다.

"선생님은 세속범사는 잘 모르는 분이셨지만 유명한 스님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보다도 제게 가르침



최동호 교수와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장호 동국대 교수, 송재학 시인 등 문인들이 1995년 김달진 시인의 '열무꽃' 시비(詩碑)를 김달진 시인의 고향 경남 진해 시민회관에 세우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최동호 교수는 … 1948년 수원에서 출생해 고려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첫 시집 〈황사 바람〉을 펴냈다. 197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평론으로 등단했으며, 경남대 조교수, 경희대 부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있다. 시론집 〈불확정 시대의 문학〉(1988), 〈디지털 문화와 생태 시학〉 (2000), 〈진흙 천국의 시적 주술〉(2006) 등이 있으며 시집으로 〈딱따구리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1995), 〈공놀이하는 달마〉(2002), 〈얼음 얼굴〉(2011) 등이 있다. 문학상으로는 〈현대불교문학상〉(1996), 〈대산문학상〉(2006), 〈고산문학대상〉(2009), 〈박두진문학상〉(2009) 〈유심문학상〉(2013)등을 수상했다. 이 밖에 최동호 교수는 시 전문지 〈서정시학〉을 1990년 창간했고, 국내 문인 가운데 처음으로 2011년 노벨문학상 시상식에 공식 초청받아 참석할 정도로 지명도 높은 시인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을 많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하고 인연이 돼 불교에 관계된 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평생 해오신 일이 역경(譯經)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분 밑에서 심부름을 했고, 지금도 김달진 선생에 관한 불교 책은 제가 다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1989년 김달진 시인이 작고하면서 최 교수는 그의 삶을 묻어두어선 안 되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이듬해 김달진문학상 제정위원회를 조직해 매년 '김달진문학상'을 시상하고 있다. 인간이 구현해야 할 정신주의 영역을 일관되게 추구했던 월하 김달진 선생의 시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다. 또 최 교수는 1996년부터 매년 가을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김달진 문학관에서 김달진 문학제도 개최해오고 있다.

바보[痴人]가 설악산 숲길을 헤매다

2000년 가을, 수년간 오현 스님과 교유해오던 최동호 교수는 설악산 백담사에서 스님을 만났다. 오래전 말씀드린 당호를 받기 위해서다. 오현 스님이 내려준 당호는 '치인(痴人)'. 어리석을 '치(痴)'에 사람 '인(人)'이다. '바보'가 되다니, 마음속으로 부러워하던 전설적인 명호 들이 최 교수의 머리를 스쳐갔다.

"큰 기대를 가지고 설악산에 들어갔는데 죽비 한 방을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현 스님은 당황한 최 교수의 마음을 간파하고 말했다. "〈벽암록〉에 나오는 족보 있는 당호요. 앞으로 열심히 시를 쓰라는 뜻이지."

방문을 열고 나와 소변을 보고 나니 설악산 계곡에 쏟아지던 달빛과 물소리가 최 교수의 몸을 휩쓸고 지나갔다. 만해 한용운이 '님의 침묵'에서 말한 바로 그 숲길을 어둠 속에서 걸었다. 그리고선 벽암록 제7칙의 본문을 음미했다.

혜초가 법안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법안이 답했다. "네가 혜초냐." 혜초는 이 말 한 마디에 바보가 됐다. 그리고는 크게 깨달았다. 되다 만 바보는 바보가 아니다.

"시의 길을 가는 하나의 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 흔들림이 있었지만 서로 창작이 바로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비분리의 길을 찾아서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최동호 교수는 10년 전 불교신문에 〈선문염송〉을 1년간 연재 하면서 처음 〈선문염송〉을 읽었을 때 옛날에 꼭 어디선가 읽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선문염송〉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읽고 종합하면서 평설을 덧붙여 연재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교경전을 알음알이로 아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저는 불자라고 내세우며 다니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도, 또 제가 해온 일도 그렇고 마음속에는 늘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동호 교수의 시 철학은 그가 만든 '극(極) 서정시'라는 용어에 잘 녹아 있다. 극서정시란 인간의 희로애락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서정시 중에서도 짧고 간결한 시를 뜻한다. 장황하게 나열하지 않고 단 몇 줄만으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게 목표다. 모든 형식이나 격식을 벗어나 궁극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시(禪詩)와 비슷하다.

'거품 향기, 찬 면도날/ 출근길 얼굴/ 저미고 가는 바람/ 실핏줄 얼어, 푸른 턱/ 이파리 다 떨군/ 나뭇가지/낙하지점, 찾지 못해/ 투명한/ 허공깊이 박혀/ 눈 거품 얇게/ 쓴/ 홍시 얼굴 하나' (최동호 '얼음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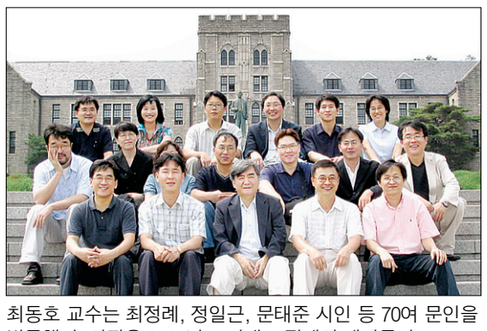
최동호 교수의 시와 비평은 불교적 직관과 통찰을 바탕으로 유가적 동양시학의 전통을 정립하는데 바쳐졌다. 그의 비평은 20세기 후반 서구의 시학을 넘어서서 한국의 주체적 시학을 확립하는 토대를 만들었으며 그의 시는 물신주의를 넘어서는 선적 직관과 통찰로 순수 서정시 지평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런 최 교수는 서정시 본연의 미학과 이론을 창출하기 위해 시 전문지 〈서정시학〉을 1990년 창간했고, 선시문학과 서정시의 영역을 확대·심화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년을 앞둔 최 교수의 마음은 수원 남문에 가 있다. 요즘 그는 고향인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 창작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3회 이상 결석하면 수료증을 안 주고 탈락시킬 정도로 학사관리가 엄격하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수강생들이 최동호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다.

"고향에 가면 다시 초등학생이 되는 기분입니다. 분주함도 번다함도 없어요. 시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시의 기초를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 현재 제 소망입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최동호 교수는 최정례, 정일근, 문태준 시인 등 70여 문인을 발굴했다. 사진은 2005년 고려대 교정에서 제자들과.



1992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 국제창작 프로그램에 참가해 시낭송을 하는 최동호 교수. 그는 세계 시인들과 교유하며 동양과 서양의 시를 천착했다.

전법일기

도시락엔 반찬만 담긴 것이 아니다

독거 어르신 반찬 봉사

수치와 통계를 나열하는 것은 쓰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지루한 일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우리절이 위치한 지역은 저소득층 노인이 많다. 6월 20일 현재 우리 동네인 대구 달서구 송현1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2,688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19명으로 8.1%를 차지한다. 2011년 현재 전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이 평균 2.9%인 걸 감안하면 우리 동네에 저소득층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동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독거노인의 수는 179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가운데 6.7%를 차지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전체에서 독거노인의 비율을 따져보면 무려 81.7%나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10명 가운데 여덟 명이 혼자 사는 것이니 그 비율이 놀라울 정도다.

나는 아직 젊은 편이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입장을 헤아리기엔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노인이 되면 만사가 귀찮을 것 같고 몸을 움직여 음식을 해먹는 것이 서글플 것 같다.

특히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있는 것처럼 무료한 나날을 보내면서 즐거움이라곤 억지로 꼽아봐야 TV 밖에 없는 혼자 사는 노인이라면 먹고 사는 것조차 번거롭고 싫을 것 같다. 맨날 먹는 반찬이라 해봐야 김치 몇 쪽이 전부일 것이고, 그나마 귀찮으면 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일 것이다. 그게 하루 이틀, 한두 달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심각한 영향 불균형을 초래하여 노인들은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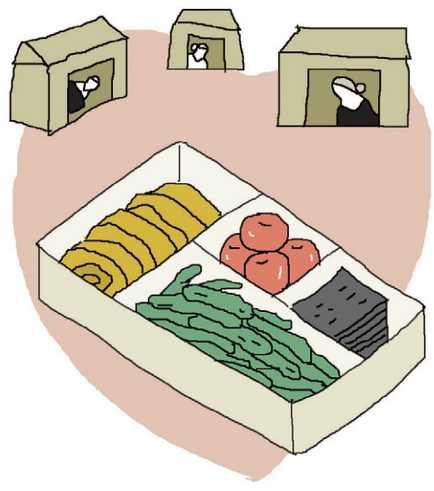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기초수급 노인 80% 독거
노인들 삶 위로하는 게 사찰 목표

그런 노인들은 돌봐야 하는 것은 당연히 갖가지 형태로 세금을 걷어가는 국가의 역할이지만, 우리의 자랑스런 조국 대한민국이 그런 것까지 해줄 것 같진 않다.

국가가 하지 못하면 그 일을 지역사회가 떠맡아야 할 텐데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이웃에 관심을 갖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형편 때문에 우리절에서 반찬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다. 약 5년 전에 4, 5곳으로 시작한 일이 점차 늘어나 이젠 22곳을 헤아리게 되었다. 독거노인을 위해 거창하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운을 떼더니 고작 그것밖에 하지 못하냐고 힐난하는 분도 계실 테지만 말이 쉬워 그렇지 스물 두 분의 홀몸 어르신들에게 1주일 반찬 서너 가지와 떡, 때때로 국과 과일을 제공한다는 것이 사실 여간 문제가 아니다.

반찬 도시락 배달을 위해 나선 분들은 송현1동에 사는 송현 법등 불자들이다. 전체 25명 가운데 절반 정도는 우리절 신도이고 나머지는 다른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다. 이들은 4개조로 나누어 주 1회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나오는 열성회원도 몇 명 있다.

후원회원은 전체 35명으로 형편에 따라 현금으로 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고깃집을 하는 신도 두 분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로 제공한다. 이들이 후원하는 액수는 월 1백만 원 가량으로 부족액은 특별 후원을 받거나 절에서 부담하기도 한다.

우리절의 목표는 일단 결핍되기 쉬운 노인들의 영양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큰 목표는 좋은 반찬을 갖다주는 그 마음으로 더 많은 홀몸 어르신들의 삶을 위로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르신들의 배우자 노릇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자식 노릇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의 정성으로 궂은 날 신경통처럼 쑤셔오는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찬덕불교 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클릭 한 번으로 세계 성보 한눈에 감상

구글 아트프로젝트, 세계 박물관 고대유물 · 미술품 감상 서비스 실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 그곳에 부처 그림이 있다면? 18세기 상징주의 화가 오딜롱 르동(Odilon Redon)이 그린 '붓다(The Buddha)'라는 작품은 여간해선 인터넷 검색으로 찾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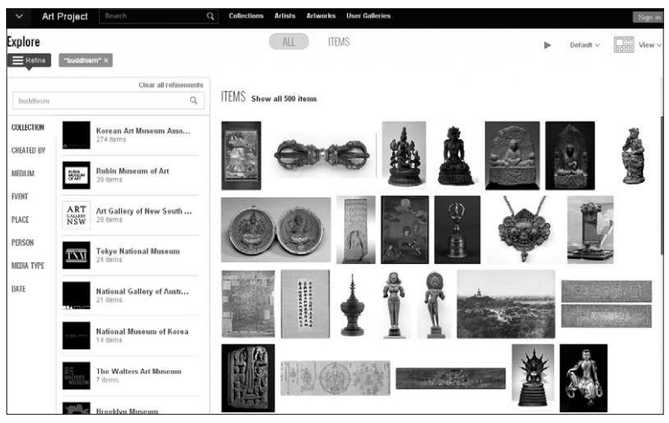
이처럼 존재유무조차도 몰랐던 불교 관련 문화유산을 집에서,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 볼 수 있게 됐다. '구글 아트프로젝트(http://www.googleartproject.com)'를 통해서다. 세계 유명 미술관과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과 고대유물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초대형 가상 미술관쯤으로 여기면 된다. 반 고흐의 작품은 물론 마네, 렘브란트,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볼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 흩어진 불교 미술품 또한 감상할 수 있다. 게다가 제공되는 이미지는 70억 화소의 고해상도. 확대도 문제없다. 르동의 섬세한 색상 터치는 물론 부처의 윤곽을 그린 데생 라인에 덧그려진 선을 발견할 수도 있다.

2011년 시작 당시만 해도 서비스 범위가 9개국, 17개 미술관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46개 미술관 3만여 점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도 지난달부터 참여하기 시작했다.

가령 불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 'Buddhism'을 검색하면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부터 아프가니스탄 지역 불상은 물론 홍콩, 도쿄, 델리의 박물관과 파리, 미국의 미술관 등 41곳에 전시된 500개의 관련 문화재,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작가, 작품유형, 국가, 날짜 별로 선택해 볼 수도 있다.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제공된다. 특히 인기가 많은 서비스는 사용자 갤러리(User galleries).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 '내 갤러리'에 추가, 개인별 박물관을 만들 수도 있다. 부처를 주제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박물관을 구경하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이만하면 충분한데 구글은 더 심혈을 기울였다. 마우스를 통해 전시실을 직접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물관을 그대로 컴퓨터로 옮겨놓을 수 있었던 건, 360도 방향에서 찍은 건물 내부 이미지를 통합한 기술 덕분이다.

70억 화소 '기가 픽셀' 이미지
박물관 돌아다니며 가상 투어
불교 시대상 담긴 사진도 검색



구글 아트프로젝트 홈페이지. 'Buddhism(불교)'을 검색했더니 세계 41개 박물관 및 미술관에 전시된 500개의 전시품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역사적 순간(Historic moments) 프로젝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역시 'Monk(승려)'나 'Buddha(부처)'를 검색하면 세계 각국의 불교 의례나 행사, 역사적 순간을 담은 사진을 볼 수 있다. 1936년 미국에서 발간된 시사 화보 잡지인 라이프(LIFE)지에 실린 사진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었다. 아직까지는 1964년까지의 자료들만 제공하고 있지만, 불교관련 시대 문화상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다.

불교의 시간을 그러모아 멋지게 갈무리하는 곳. 구글 아트 프로젝트는 2600년 불교 역사가 차곡차곡 쌓인 기록관이다. 또한 부처에 감화 받은 이들이 만든 작품 속 순수한 정신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배현진 수습기자


미얀마 라쉬오 시의 사원 스님들이 무슬림 들을 돌보고 있다.

미얀마 사원, 무슬림 보호 나서

"1200여 무슬림, 유혈충돌 피해 불교사원으로"

불교-이슬람 간의 유혈 충돌로 삶의 터전을 잃은 무슬림 1,200여 명이 인근 불교사원들에 머물며 사태 진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AP(The Associated Press)통신이 전했다.

이번 충돌 사태는 지난달 29일 미얀마 북동부 샨(Shan) 주 라쉬오(Lashio) 시에서 무슬림 남성이 휘발유 판매상인 불교도 여성(24)과 말다툼 끝에 이 여성에서 석유를 끼얹고 몸에 불을 붙인 것이 발단이 됐다.

여성은 생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중상을 입지는 않았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불교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휘두르며 이슬람교도들의 사원, 고아원, 가게, 가옥 등에 불을 질렀다.

당시 공포에 질린 1,200여 명의 무슬림들은 스님과 군인의 보호를 받으며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이 전복된 채 나뒹굴고, 스키드 마크(skid mark)가 선명한 도로를 지나 인근 불교사원을 찾았고, 사원 측이 이들을 맞은 것이다.

"샨 주 라쉬오 시의 불교-이슬람 간의 유혈 충돌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한 사원의 스님들은 "종교는 다르지만 무슬림 피난민들 역시 우리의 인연 고리에 엄연히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원의 대중 스님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무슬림 피난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한편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피난민들의 일상을 돕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라쉬오 거리에서 스님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다"는 킨(Khin, 59) 씨는 "우리 다섯 가족은 왜 공격을 받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허겁지겁 집을 나서야만 했다"며 "불교사원에서 이틀째 보내고 있지만,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상을 입은 여성이 이송된 병원 인근 상점과 가옥이 불에 탔다"고 전한 틴(Tin, 48) 씨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서야 전후 사정을 알게 되었다"며 "병원 인근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한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집을 나섰다"고 당시를 회상하고, "사원 스님들의 노력이 불교-이슬람 간의 분노를 다스리는 데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얀마 법원은 최근 여성 불교도를 폭행해 지난달 격렬한 종교간 충돌을 부추긴 40대 무슬림 남성에 대해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한편 메일리온라인(Maily-Online) 지는 "불교-이슬람 간의 갈등과 충돌이 서부에 이어 경제중심지인 중부에서 재발한 데다 동북부까지 확산됨으로써 불교도와 무슬림 간의 반목이 본격적으로 표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메일리온라인 지에 따르면 미얀마는 버마족이 70% 정도로 다수이고 샨족, 카렌족, 카친족 등 130여 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동남아에서 민족구성이 가장 복잡한 나라다. 종교적으로는 불교도가 89%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슬람교 4%, 기독교 4% 등이다. 이로 인해 주류인 불교도와 외래종교인 이슬람교도 간의 반목과 갈등이 심각한 실정이다.

뿌리 깊은 종교, 민족 간 반목은 테인 세인 대통령 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인해 사회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표면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종교, 민족 간의 갈등 조정과 화합은 미얀마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개방의 성공을 위한 관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네팔 문화 아이콘, 에니 쵸잉 드롤마

앨범 판매 수익금 … 비구니복지재단 설립

"제 노래는 부처님 지혜에 대한 신념이자, 저의 정신적 헌신입니다."

네팔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된 비구니 스님이 있다. 바로 티베트계 네팔인 에니 쵸잉 드롤마(Ani Choying Drolma) 스님이다.

1959년 부모의 손에 이끌려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망명한 에니 쵸잉 드롤마 스님은 가난한 성장기를 보냈다.

이후 나기 곰파(Nagi Gompa) 사원 에서 출가를 준비하는 여정에서, 스님의 재능을 한 눈에 알아본 스티브 티벳(Steve Tibbetts · 뮤지션 · 미국) 씨의 도움을 받아 노래를 시작했다.

그리고 1998년 공연기획사인 International Music Scene의 요청으로 미주 순회공연을 성황리에 진행하며 미주와 유럽 대륙의 가요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스님의 앨범 〈Cho〉(1997), 〈Selwa〉(2004), 〈Dancing Dakini〉(2006), 〈Inner Peace 2〉(2011) 등이 크게 성공했고, 그 수익금으로 네팔 비구니 복지재단(Nun's Welfare Foundation of Nepal)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네팔 대중문화 아이콘이 된 에니쵸잉 드롤마 스님

"제 상업적인 성공은 단지 제 개인의 것이 아닌, 부족한 다른 이웃을 위한 부처님의 정재"라고 말한 스님은 "부처님의 선물인 제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 이상 바랄게 없다"고 말했다.

에니 쵸잉 드롤마 스님은 현재 중국 순회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에 입국서류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명품' 치장 · 전용 제트기… "스님 맞아?"

호화생활하는 태국 승려
유튜브 공개… '불교 망신'

유튜브에 명품 가방을 든 태국 스님들의 호화로운 모습이 게재돼 세계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전용 제트기를 탄 승려들'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약 3분가량의 동영상에는 주황색 승복을 입은 세 명의 태국 스님이 선글라스를 낀 채 아이팟으로 음악을 들으며 비행을 즐기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탄 비행기가 전용 제트기라는 것. 무선 명품 헤드폰과 좌석 한쪽에 놓인 루이비통 가방역시 네티즌들의 눈썰미를 피해가지 못했다. 힙합 가수 뮤직비디오의 등장인물 같다며 네티즌들이 비아냥대는 이유다. 현재 동영상은 조회수 53만 건을 기록했다.

이들은 태국 북동부에 있는 칸티 땀 사원의 승려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타임, 텔레그라프, 가디언, AP통신 등의 세계 매체에 보도되며 '스님 망신'을 톡톡히 시키자, 국립 불교 사무총장 노파라트 벤자와타나눈은 "청빈과 자기수양을 강조한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문제가 된 스님들은 사치스런 행동에 관한 경고조치를 받았다.


해외토픽감으로 전락한 동영상 속 태국 스님들. 들고 있는 헤드폰은 40만원 대이고 오른쪽에 있는 가방은 명품브랜드 루이비통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목적으로 프랑스에 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와 관련한 이야기는 추후에 하겠다며 얼버무렸다.

비행기는 신도들이 제공해 준 것으로 스님들은 프랑스로 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여행의 구체적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노파라트 씨는 "부처님 생존 당시에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이 없어서 규율이 단순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기술 사회니만큼 스님 스스로가 적절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승려의 자율적인 태도를 강조했다. 신도들 또한 스님에게 호화로운 물건을 공양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태국은 국민의 95%이상이 불교를 믿는 불교국가다. 사찰 수만 2만 7000개고, 스님은 20만 명이 넘는다. 때문에 스님의 격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왕왕 발생한다. 태국은 2012년에도 음주, 성(性) 스캔들 등으로 300명 이상의 승려들이 징계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배현진 수습기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화두참구의 길잡이! 간화선의 필독서! 선어록의 최고봉 《벽암록》

1. 시인 석지현(釋智賢) 스님이 역주 · 해설한《벽암록》은 국내 최초의 완역본이다. 번역 기간 9년, 출판 기간 3년 걸린 책이다. 이 책은 원문에 토(吐)를 달고 번역과 해설을 붙인 책이다. 또한 이본(異本)을 대조하여 원본에 대한 교감(校勘)을 했으며《벽암록 속어(俗語) 낱말 사전》을 첨부하여 독해에 절대적인 편의를 제공했다. 따라서 석지현 역해《벽암록》은 선어록 역주의 새로운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번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이 책의 특징

첫째, 기존의《벽암록》번역은 대부분 수시(垂示) · 본칙(本則) 정도만 번역했다. 그 뒤의 본칙착어 · 본칙평창 · 송 · 송착어 · 송평창 등은 번역하지 않았다. 석지현 역주《벽암록》은 그 어느 하나 빠뜨리지 않은 완역본(完譯本)이다. 벽암록 완역(完譯)은 국내 최초이다.

둘째, 기존의《벽암록》번역은 대부분 단순한 글자번역이거나 지나치게 주관적인 데 비하여 본《벽암록》은 원문의 정확한 번역과 뜻해설, 원문의 낱말풀이 등을 곁들였다.

셋째, 이 책은 단순한 교양서의 입장에서 번역 해설을 붙인 책이 아니라, 선수행(공안참구)상에 있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의 입장에서 해설을 붙였다.

넷째, 이 책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원문의 이본(異本) 대조를 통한 충분한 교열을 거쳐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한 번역이다.

다섯째, 이 책은 우리말이 가진 장점을 충분히 살려내면서 번역했기 때문에 선문(禪文)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연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속어(俗語) 낱말사전을 별도로 만들어 각 칙의 해설과 함께 이 사전을 참고한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독파할수 있도록 했다. 하나의 선어록에 대하여 별도로 사전을 만든 경우는 처음이다.

3. 벽암록은 어떤 책인가?

벽암록은 선어록(禪語錄)의 백미이다. 선의 문헌 가운데 첫 번째로 꼽는 책(宗門第一書)이자 선종문화의 총결산이다. 벽암록은 선수행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다. 선수행을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체험은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 공안(화두)참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화두(공안)의 암호해독 즉 공안 타파(公案打破)를 통해서 가능하다. 공안의 암호해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깨달은 선지식을 만나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은 선지식을 만나기란, 아니 깨달은 선지식은 그리 흔치 않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

…… 여기 《벽암록》이 있다. 벽암록의 공부와 공안참구의 좌선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암호해독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벽암록은 선수행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길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지참해야만 하는 수행의 필독서이다.

4. 벽암록이 출현하기까지

벽암록은 설두중현(980 ~ 1052)과 원오극근(1063 ~ 1135) 선사에 의해 완성됐다. 설두는《조당집》《전등록》등 옛 선사들의 어록에서 공안 100칙을 가려 뽑아 여기에 각각 송(頌)을 붙여《설두송고백칙(雪竇頌古百則)》이란 책을 출간했다. 이《설두송고백칙》에 원오선사가 수시(垂示) 착어(著語) 평창(評唱)을 붙여 비로소《벽암록》이 완성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벽암록 출현 이후 선승들은 너나없이 벽암록의 문자공부에만 몰두, 선수행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원오의 제자 대혜종고(1089 ~ 1163)는 벽암록 판각과 책들을 모두 한 데 모아 소각해버렸다. 그 후 원나라 초기에 거사 장명원(張明遠)에 의해서 벽암록은 다시 복간됐다. 불 속에서 영영 재로 사라져버렸던 벽암록이 불현듯 불사조가 되어 다시 되살아 난 것이다.

5. 벽암록의 구조

벽암록은 수시 · 본칙 · 본칙착어 · 본칙평창 · 송 · 송착어 · 송평창 등 7중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본칙(本則)은 옛 공안(古則, 또는 公案)으로서 벽암록 핵심부분에 해당한다. 100개의 옛 공안이 벽암록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는데 앞의 수시와 뒤의 착어, 본칙의 평창, 송, 송의 착어, 송의 평창은 모두 이 본칙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착물들이다.



신국판 전5권 각권 500쪽 내외
값 145,000원(전5권)

민족사 문의 02)732-2403

불교성전의 편찬과 세계속으로 불교 홍보


혜인스님

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인스님) 역경원이 '불교성전(부처님 말씀)'을 편찬했다. '불교성전'은 부처님 말씀의 정수를 뽑아 엮은 책으로 부처님, 가르침, 계행, 도반 등 4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책은 내용이 충실하고 문장도 쉽고 평이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책 앞쪽은 한글로 기록하고 책 뒤쪽은 영문으로 실어 외국인들도 쉽게 볼 수 있게 했다. 부록에는 불교통사, 생활 색인, 용어 해설, 증지부 등이 수록돼 있다. 제1편 부처님편에서는 1장 역사 속의 부처님, 제2장 영원의 부처님, 제3장 부처님의 모습과 부처님의 덕 으로 구성 되어 있어 쉽게 부처님의 생애를 접할 수 있고 제2편 가르침 편에서는 인연, 사람의 마음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 깨달음의 본질, 번뇌로 이어지는 논리적 전개 후 마지막 부처님의 구원에서는 부처님의 서원 및 정토로 이어지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조명하였다. 제3편 계행은 깨달음의 길과 실천의 길로 계를 각 경전을 바탕으로 고증하여 계율의 중요성을 설하였다. 제4편 도반편에서는 인간으로서의 도리 와 생활 지침을 경전에 의거해 설명해 놓음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하면 삶이 풍요해 짐을 밝혀 놓았다. 마지막 제5편 불국토에서는 부처님의 나라와 부처님 나라를 지키는 자 를 통해 불국토를 말하였다. 혜인스님은 책 서문에서 "이 경전을 함께 하는 이, 행복한 삶이 되길 바란다고" 고 밝혔다.

- 서문 -

『이 경을 열면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 다겁생(多劫生)동안 고행을 통하고서 비로서 보리수 밑에서 정각(正覺)이루신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으니 광명이며 행복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청정심으로 종(宗)을 삼고, 중생의 믿음은 청정하지 않은 것으로 종(宗)으로 거울을 삼는다. 중생계는 미혹 때문에 중생이 되고 모든 부처님은 청정심으로 부처가 되었다. 중생과 부처는 영상이며 삶과 죽음은 이름 뿐이다. 만일 사람이 부처로써 거울을 삼는다면 '계, 정, 혜'가 모든 청정심이 선(善)이 되어 신과 하늘 성문연각, 보살 여래가 이로 인하여 나오는 줄 알면 믿고 따르지 않는이 없고, 중생으로서 거울을 삼는다면 탐냄, 성냄, 어리석음이 모든 악의 종이 되어 수라, 축생, 지옥, 아귀가 이로부터 나오는 줄 알 것이다. 선과 악은 다르다 해도 종(宗)은 동일하다. 한 방울의 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다시 수증기로 구름, 비, 눈, 얼음산을 이루며 다시 바다로 모이는 것과 같다. 이 경전을 열면서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옮기지나 않았는지 염려되고 조심스럽다. 태양의 광명을 감사할 줄 모르듯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부처님께 겨자씨만큼이라도 보은(報恩)이 되고자 한다. 부처님 말씀(불교성전)으로 행복의 길을 부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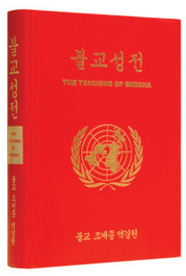
세계 포교, 그 첫걸음 중국

혜인스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부처님께 겨자씨 만큼이라도 보은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서 불교성전의 출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불교성전 편찬외에도 선구안적인 노력으로 내일의 불교를 준비해온 혜인스님은 세계속으로 불교를 홍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첫번째 걸음이 중국이다.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외환보유고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오는 등 21세기의 중심은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 뿐 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글로벌 경쟁시대에 '중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8년전 한국 불교의 중국내 설파를 위한 일환으로 중국 남경대학 남경중의약대학 중의약(한의학)과와 모든 학과에 꾸준하게 유학생을 배출 하고 있는 남경중의약대학 한국분교〈총장 혜인스님〉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바로 중국을 목표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UN에서도 인정한 세계 100대 대학교중 세계 침구 1위 명문국립한의학 대학인 남경중의약대학은 중의학, 중의미용, 중의외과학, 중약학, 침구학 전공 등 11개의 전공과목을 비롯해 학부, 석사, 박사 과정으로서 한국분교에서는 체계화된 관리시스템과 한국의 지도교사들이 항시 상주하여 유학생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삼화불교대학 학장을 18년간 역임한 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혜인스님의 노하우가 중국 유학을 꿈꾸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

"격변하는 세계에 동반자의 자세와 더불어 2013년에는 작은 것에도 만족 하는 '소욕지족(小欲知足)의' 해로 삼을 것을 당부하셨다."



값 15,000원
문의 : 02)511-2026

불교와 역학의 간극은 서로 좁아질까


송월스님

이 시대 전자문명의 반도체는 과학문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컴퓨터 원리가 하도의 음양오행과 일치한다고 1967년 일본인 가와하다가 "컴퓨터의입문"이란 책을 내놓았다. 내용을 보면 컴퓨터의 소재는 음전자와 양전자이며 이것을 역학의 하도의 오행 성립구조에 맞추어 기계화한 것이다. 하도 음(-)양(+). 컴퓨터의 음양전자. 하도오행. 컴퓨터의 5개 구조 입력. 출력. 기억. 연산. 제어가 일치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음양 오행과 과학의 만남이듯, 불도 수행자와 음양 오행학의 만남이란 전혀 이상 할것도 없고 생소하지도 않을 듯 싶다.

요즘 역학 출판계에서 화재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그것은 관음출판사가 간행한 "사주학핵심비결"에 이어 "사주풀이의 법수"가 발행되었다. 이 책은 고전 자평명리학의 핵심인 자평수록 39편인 자평

음양 오행과 과학의 만남이듯, 불도 수행자와 음양 오행학의 만남도 전혀 생소하지 않을 듯

진전의 골수를 새롭게 집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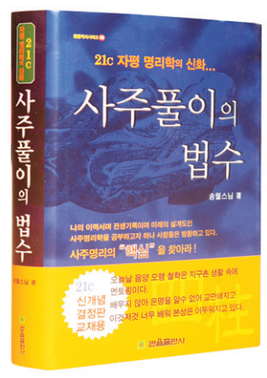
즉, 저자인 송월스님이 오랜 세월 어렵게 공부하여 직접 임상했던 실전비법을 공개한 책이다. 이 책에서 특이한 점은 용신을 빠르게 정하는 법이지만 신살(神殺)편에서 피하기 어려운 흉한 살성을 제압하도록 다른 역학 서적에서 볼수없는 주문(呪文)이 하나 하나 모두 소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생살이에서 취길피흉(取吉避凶)의 참뜻이요 저자의 마음일 것이다. 운명을 상담하면서 나쁘다고 지적은 하지만 나쁜 것을 극복해 나아갈 방법을 일러줘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송월스님의 저서인 "사주풀이의법수"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장벽에 부딪히는 것이 용신과 격국이라 하였다. 저자인 송월스님은 수많은 격국 이론은 모두 버리고 오직 자평진전에 근거한 월령위주의 용신법인 11개의 육신 위주로 체계화하였다. 수많은 내방객에서 임상한 간단 명료한 용신과 희신과 기신과 사주의 병(病)을 5초 이내에 구분하여 사주를 간명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사주의 통변은 말할 것도 없고 대운이나 매년 운세를 보는데 그 어느 명리학의 이론보다 정확하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저자는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관음출판사 주관으로 "명사초청특강"을 2013. 7. 1일 오후 2시부터 5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가장 어려워하는 "용신과 격으로 운보는 법"이다. 저자가 어렵게 내린 핵심비법이 전수되는 귀중한 시간으로 귀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이며, 눈이 있는 자는 보게 될것이라 한다.

명리학을 오랜 세월 공부하였지만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황금과 같은 큰 선물이 될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저자가 수행하는 스님이기 때문에 포교차원에서 진솔하게 비법을 전수한다고 한다고 하니 이번 특강에 참여하는 독자들은 전생의 소중한 인연의 결과일 것이다.

송월스님은 일찍이 누대에 걸친 학자의 집안으로 내려오는 선친께 13세부터 음양오행학을 익혀 왔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익혀진 음양오행 공부가 불경(佛經) 다음으로 전문적인 학문이 되었다고 한다. 송월스님께서는 1997년 사주학핵심비결과 육효학핵심비결을 출간하고, 사주풀이의법수는 특별히 필리핀 국립 이리스트 대학에서 전통명리학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립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전문 직업반인 역학상담사들에게 명리학, 육효학, 풍수지리를 가르치고 있는 전담 교수이다. 그리고 불서로서는 한글법화경 · 불공재의 · 신해행증 · 옴 명상집 등 많은 저서가 있는데 100만불서 보급의 원력을 세우고 정진하는 문서 법문 포교승이다. 현재 까지 1억원 이상의 불서를 군부대 · 교도소 · 노인대학 · 경찰서 · 일반인 등에 무상 보급하고 있다.



값 75,000원

관음출판사 저자 초청 특강
문의 : 02)921-8434

청담 ART 십이지상 천연황옥(印)

존경하는 스님! 불자님 보살님 사주대중님들!
'나'를 대신하는 인감도장 낙관 법인감 등을
제대로 된것을 갖추고 계십니까?

혹, 막도장이나 싸구려 등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여기! 세계 하나뿐인 '명품'이 있습니다.
이런 천하의 명품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本人의 띠(十二支狀)을 형상화한 천연황옥(印)

주문 ⇒ 생년 월, 일, 시 성명감정 ⇒ 수작업 ⇒ 배송



양띠

말띠

本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스마트폰으로 QR Cord를 찍으시면 회사소개와 황옥에 관한 많은 정보 및 조각예술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www.cheongdamartworld.com
名黃明玉

천지운명

불자 여러분들에 건강과 운명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부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 주는 책!



서산대사께서 입적하기 직전 읊은 시
나의 운명 나의 건강. 108가지 민간요법
108가지 약초 담그는 법
108가지 꽃 효소 만드는 법
치유와 깨달음의 미학, 달마도

무령 지음 | 신국대판 | 474페이지 | 정가 50,000원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이 책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졌고, 첫 페이지에는 서산대사께서 입적하시기 직전에 "읊은 시"와 "권효가"가 들어있으며 우리들의 운명과 건강이 자세하게 설명 되어있습니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 즉, 효소 담그는 방법, 여러 가지 약재를 만드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운명"은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볼 수 있게끔 띠별로 각각 수록되어 있어, 모두 둘러 앉아 서로가 서로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정말 신비로운 책입니다.

스님의 108가지 비방 소승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약초 쓰는법" "약초 담그는 법"을 12년 동안 중국을 오가며, 연구하여 정성으로 불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시는 각 사찰 스님들께는 30%로 할인을 해드리면서, 꼭 스님분들이 알아야하는 비방법을 써서 전국 사찰 스님께 소정에 값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꼭 스님 분들만 알고 계셔야 불자님들이 답답하고 힘들때, 묘방으로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아주 신비한 책으로서 다음 회에 드리려고 합니다. 전화번호와 사찰명을 잘 알아 두었다가 꼭 주문하세요. 각 사찰 스님분들께서는 이 책을 잘 읽어 보시고 불자들에게 많은 포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24-119번지
대선불교조계종 천운사 무령 합장
전화 032)655-1356 / 팩스 032)664-1356 / H P 010-6674-1356
입금계좌 : 농협 170972-51-038226 / 신한 110-113-445631(예금주 : 장지엽)

초절전형 슈퍼에너텍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대환영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5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3,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오색으로 태어난 반가사유상의 변신

김석영의 '침묵의 소리' 展


김석영 작가의 'sound of silence'

미륵반가사유상이 컬러풀한 색감으로 대중들을 찾아왔다. 김석영의 '침묵의 소리'가 7월 1일까지 템플스테이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 열린다. 김석영 작가는 미륵 반가사유상을 화려한 채색을 통해 서양화 기법으로 표현했다.

작가가 미륵반가사유상을 이렇게 화려한 컬러로 표현한 이유는 뭘까? 김 작가는 "인간의 희노애락 등 다양한 모습을 컬러로 보여주고자 했다. 인간 내면 속에는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 반가사유상의 형상에 화려한 터치를 통해 이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전한다.

작가가 이처럼 미륵반가사유상에 천착하게 된 이유는 뭘까? 그것은 우아한 곡선의 미학 때문이라고 전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륵반가사유상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가사유상은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형상을 빌렸으되 그 육신을 구성하는 근육과 뼈와 살가죽이 아닌, 물결치듯 온몸을 휘감아 흐르는 '선'이 만들어낸 하나의 오브제죠." 작가는 눈과 코, 입과 귀 심지어는 살포시 얹어진 삼산관마저도 우아하게 흐르는 곡선을 통해 그 미소를 살려내고 싶었다고 한다.

또한 작가는 미륵반가사유상의 아름다운 미소를 대중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했다. 그는 "미륵은 범어 마이트레야(maitreya)를 음역한 것으로 이는 친구를 뜻한다. 그래서 미륵은 친구처럼 친밀하고 자유롭다는 뜻"이라며 "작품을 통해 미륵보살의 미소를 전달해 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연꽃 그림을 만나볼 수 있다. 이는 작가가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사찰여행을 다니며 보아온 연꽃들을 화폭에 담았다고 한다. (02)2031-2000 정혜숙 기자

고려인 돕기 세계평화기원 음악회

부산연합신도회…영화의 전당서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의 세계평화기원 음악회가 6월 20일 해운대 영화의 전당 '하늘 연 극장'에서 열렸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세바스트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초청 다양한 무대를 펼쳤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신도회는 "이 공연은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돕기 위한 음악회다. 관람객들이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잠시나마 행복한 꿈을 꾸길 바라며 아울러 이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동포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개최된 공연"이라고 전했다.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고려인 돕기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정혜숙 기자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임원연수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서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임원 연수 기념촬영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문화부장 진명)가 주최하고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영애)가 '2013 전국불교합창단 임원연수'가 6월 19일~20일까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전국 불교 합창단 및 임원들이 참여 강연, 각 단체별 사례발표와 방향 공유는 물론 노래율동배우기, 레크리에이션, 아카펠라공연, 새벽길 걷기명상 등을 진행했다. 정혜숙 기자

홀대받는 찬불가 대중화 발원… 공연 1년

좋은벗풍경소리 '붓다콘서트'… 6월 20일 12회 공연


찬불가의 대중화를 꾀하며 시작된 붓다콘서트가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한국불교역시문화기념관내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6월 20일 열린 12회 공연 장면.

6월 20일 한국불교역시문화기념관내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은 찬불가 무대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범진 스님의 회심곡을 시작으로 소프라노 윤정원, 가수 최백건, 능인 스님, 법만 스님, 각원사 도솔합창단 등의 공연이 이어지면서 관객들의 연이은 박수에 출연진들도 흥에 겨워 열정의 무대를 펼쳤다.

좋은벗풍경소리(이하 풍경소리 · 회장 덕신)가 주최하는 붓다콘서트가 1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2년 7월 첫 회를 시작으로 매달 찬불가로 대중들을 찾아가는 붓다콘서트는 부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전하며 음성포교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1년 동안 3천여 명이 공연을 관람했고 80여 팀의 가수들이 공연을 하면서 붓다콘서트는 불음의 향기를 세상에 전해왔다.

"불교음악으로 포교를 해보자고 시작한 불사였습니다. 불교음악하면 어렵고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붓다콘서트는 부처님 말씀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마련 관객과의 소통을 도모했습니다."

그동안 무대에서는 법문가요부터 트로트, 클래식(합창, 성악, 악기연주곡, 오케스트라), 힙합, 대중가요, 국악(창, 가야금 연주, 사물놀이, 판소리) 등 다양한 음악들이 선보였다. 정행 스님(소프라노), 테너 허철영 씨, 가야금 병창 지음, 원적정사 합창단 등 수많은 출연진들이 최고의 무대를 만들었고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붓다 콘서트는 불자 음악인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덕신 스님은 말한다.

"어떤 국악인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신심을 가지고 불교 음반을 만들어 왔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공연할 기회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붓다콘서트가 있어 불교 음악을 공연할 수 있어 기쁘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불교 음악인들이 원력을 가지고 음악 작업을 해도 무대가 없고 관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개신교로 개종한 어떤 불자가수의 개종 이유는 교회에 가면 자신이 신나게 부를 수 있는 공연장도 많고 알아주는 사람도 많은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서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누가 불교 음악을 하겠어요?"

열악한 불교계 공연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말해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붓다콘서트의 12회 공연은 불자 음악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다양한 음악인들이 무대에 섰고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각종 단체나 사찰 공연 등에서 섭외 요청을 받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찬불가를 대중화하고자 했던 노력도 돋보였다. 공연 시작 전 '다 함께 노래를' 시간에서는 연꽃 '피어오르리', '차를 마시네', '기쁜 날' 등 찬불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마련, 대중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덕신 스님은 찬불가가 좀더 대중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불가는 의식곡 이외에 사찰에서 불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동안 많은 찬불가들이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그것을 일상에서 부르는 사람도 없고 또 가수들이 설 무대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마는 것이죠. 사찰 주지 스님들이 의지를 갖고 찬불가를 부르는 시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찬불가가 나와도 사라지고 말겠죠. 붓다콘서트는 이런 점에서 찬불가를 배우고 알리고 일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계사 전통문화 공연장서
매달 다양한 무대로 사랑받아
찬불가 대중화와 더불어
불교음악인 발굴에 최선 다해

이제 한 돌이 된 붓다콘서트는 걸어온 길보다는 가야 할 길이 더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도 있고 보완해야 될 점도 있다. 우선 가장 급한 것은 공연을 이어갈 재정마련이고 그 다음이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성이다. 덕신 스님은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붓다콘서트를 꾸려올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빚으로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는 한계점도 있다. 재정확보를 통해 좀더 다양한 출연진을 섭외하고 이를 통해 특색 있는 무대를 마련한다면 붓다콘서트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붓다콘서트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마련 소외계층과 소외 지역 대중들을 위한 공연도 기획하고 있다. 이에 풍경소리는 올 하반기에 지방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연을 계획 중에 있다. (02)723-9836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찬불동요 앨범 풍경소리 36집 발매



"마음에 연꽃을 심어요/ 한 송이 두 송이 가득 가득 심어요/ 연꽃을 정성스레 키워요 사랑과 자비를 가득 담아서/ 햇살보다 따스한 착한 마음을 쪼이고 소나기보다 개운한 미소를 뿌려요"

좋은벗 풍경소리에서는 찬불동요 창작곡 앨범 '풍경소리 36집'을 발표했다. 이번 앨범에는 '마음에 연꽃을' '바람의 노래' 등 총 8곡의 음반이 담겼다. 한편, 풍경소리 찬불동요 창작곡집은 지난 1994년 1집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두 장씩 여름 · 겨울 불교학교를 위해 발표해 왔다. 풍경소리 음반은 전국 단위 연수회 및 강습회의 교재로 활용 되며, 또한 일선의 어린이법회와 불교학교에서 찬불가 교재로 사용된다. 정혜숙 기자

추신수 "혜민 스님 목소리에 힐링"

슬럼프 어려움 불심으로 극복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연일 맹타를 쏟아내고 있는 불자야구선수 추신수가 6월 20일 "혜민 스님의 목소리로 힐링이 됐다"고 발언해 화제다.

추신수 선수〈사진〉는 6월 20일 네이버 MLB일기에서 "얼마 전 제가 꼭 만나고 싶었던 혜민 스님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부드럽고 정감있는 목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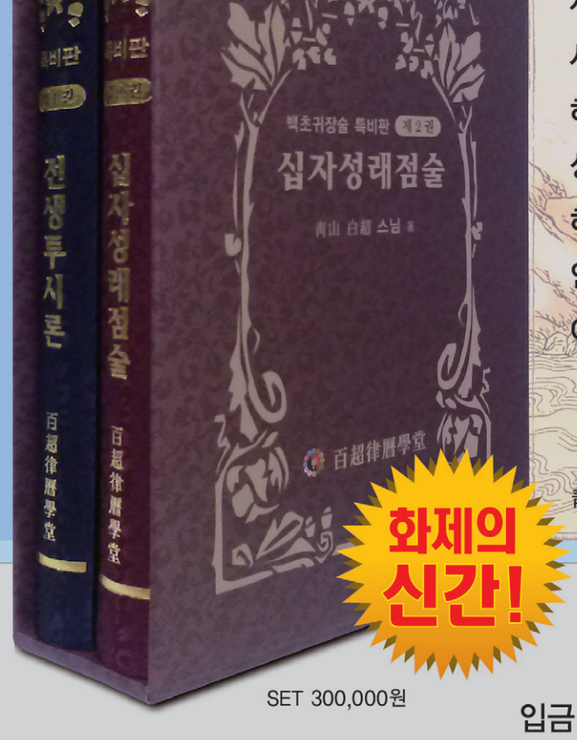
추신수 선수와 혜민 스님의 전화 통화는 박찬호 선수가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불자인 박찬호 선수는 현역 시절 명상을 통해 심리안정을 꾀했으며 지난해 12월 SBS '땡큐'를 통해 인연을 쌓았다.

추신수 선수는 일기에서 "혜민 스님 책을 워낙 좋아하고 평소 꼭 만나고 싶어 선배님게 부탁을 드렸다"며 "미국에 오실 때 직접 만나뵙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신수 선수는 지난 4월 네이버에 실린 매거진S 이영미 칼럼에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세 번 읽었는데 몇 가지 구절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다"며 "사람들의 험담과 비난에 상처받지 마라. 그들이 하루 1,2분 투자해서 쓴 글들에 나의 24시간이 힘들어진다면 손해라는 내용들이 날 많이 움직였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당시 FOX스포츠 와이드인터뷰 란에도 소개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1권
전생투시론
지금까지는 전생(前生)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론이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개개인의 사주를 토대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생에 어디에 살았으며, 무엇 이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현생에 고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영혼투시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최면요법이 절대 아닙니다.
또 빙의가 되었는지, 어떤 조상영가가 지금 고통을 주는 것인지도
알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青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제1권 345쪽



화제의 신간!
SET 300,000원

사차원운명둔갑술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2권
십자성래점술
사람의 운명의 길흉을 판단할 때 지금까지는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아서 감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성래점술은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지 않고도
상담자가 묻는 질문의 답을 알 수 있고, 된다 안된다와 하라
하지마라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신 비법을 공개합니다.
인도의 점성술 천궁도와 귀장술의 12신궁으로 만들어진 12궁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면 됩니다.
青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 제2권 350쪽

◆ 책 구입은 서점으로 배포되지 않고 백초율력학당에서만 판매합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041)943-6882 / 010)3813-4443
百超律曆學堂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예금주 : 김경석

안 보이는 '영기' 보이는 식물로 표현한 원리 이해해야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인동당초문(忍冬唐草文)' → '제3영기싹 넝쿨모양 영기문 ㊦



정답으로 굳어버린 일본 학자의 번역

우리는 이제 '당초문'이란 용어가 얼마나 허망한 명칭인가 알았을 것이고, 그 무의미한 용어가 '영기문(靈氣文)'이라는 이름을 새로이 부여받으면서 생명생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고차원의 상징을 띠는 것을 새로이 알았다. 여러 가지 당초문들 가운데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인동 당초문(忍冬唐草文)'일 것이다. 특히 불교미술의 모든 장르에 매우 많다. 서양미술의 '팔메트'라는 것을 두고 '인동초(忍冬草)'라고 일본인들이 번역하였으므로 인동초(Honeysuckle)와 팔메트(Palmette) 두 가지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여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 혼란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보겠다. 겨우 '인동초'만이 모지게 추운 겨울에도 꿋꿋이 살아 있어서 끈질긴 생명이라는 것을 그대로 무늬의 상징으로 대신하고 있다.

동양 용어인 인동초를 영어로는 허니 서클(honeysuckle:인동넝쿨), 프랑스·독일에서는 팔메트(Palmette: 종려 잎 무늬:棕櫚葉文)라고 한다. 그런데 이 팔메트를 인동이라고 잘못 번역한 사람이 일본 학자 이또츄타(伊東 忠太: 1867~1954)다. 그는 메이지시대와 쇼와시대를 걸쳐 왕성하게 활동한, 일본 건축가이자 건축사가(建築史家)이다. 현대 일본 건축의 창시자로 1902년에 처음으로 중국 불교미술의 보고인 운강석굴(雲岡石窟)을 발견했다. 그는 1902년에 건축학 연구를 위해 3년간 중국, 인도, 터키로 유학했으며, 1905년에는 유럽과 미국을 경유하여 귀국, 도쿄제국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가 팔메트를 인동이라 번역한 이래 모든 그의 제자들이 이를 따랐고, 우리 학자들도 무조건 따른 데서 점점 혼란은 더욱 더 심해졌다. 그 큰 혼란은 이미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었음을 살펴보자.

유럽에서는 부채꼴 모양으로 확산하는 고대의 다양한 조형을 보고, 영국에서는 인동초라고 부르고,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팔메트라고 부르고 있으니 서양의 미술사학계는 그 문제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게다가 이집트의 부채꼴 모양의 로제트라는 것 까지 포함하여 세 가지 식물을 함께 쓰니 혼란은 더욱 증폭한다. 거기다가 아칸서스까지 합세하므로 가히 서양의 인문학적 지성이 파경에 이른다. 서양의 미술사학자들이여! 그리스 이래의 서양미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형을 풀어내지 못하고 어떻게 서양미술사학이 성립할 수 있단 말인가!

'무엇이든지 확산하는 조형'을 여러 가지 식물이름으로 부르므로 상징을 찾아낼 수 없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영기의 추상적 표현을 현실에서 보는 식물들인 인동-팔메트-로제트-아칸서스 등으로 부르니 '확산하는 조형'이라는 영기문은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이 뻔하다. 서양의 옛 예술가들이 꽃잎처럼 만든 것은, 영기문을 끝없이 확산시켜 우주에 충만한 영기를 표현하기 위함이었지, 현실에서 보는 인동도 아니고 넝쿨도 아니었음을 조형들을 채색분석하여 증명할 것이다.

우리가 인동초 혹은 팔메트라고 부르는 '확산하는 부채꼴 모양'의 조형은 서양이 창조한 최소 단위의 영기문이다. 그러므로 '확산하는 부채꼴 모양의 영기문' 혹은 단지 '부채꼴 모양 영기문'이라고 용어를 임시로 만들어 두기로 한다. 영기문의 중요한 속성들 가운데 둘이 바로 '사방으로 확산하는 것'과 '횡으로 뻗어가는 것'이다. 그 최소단위가 이미 확산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최소단위가 주어진 공간에 맞추어 사방으로 확산하거나 한 줄로 연이어 횡으로 무한히 전개한다. 즉 그 두 속성으로 이루어진 영기문이지 현실의 식물이 아니다.

그리스와 바빌로니아의 영기문

그러면 우선 인동초가 무엇인지 식물도감에서 찾아보자.(그림①) 자연의 인동초를 보면 앞으로 살펴 볼 인동당초의 조형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비교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단 말인가! 그러면 그리스의 인동당초문이라는 것을 채색분석해 보면서 그 전개과정을 설명해 보기로 하자.(그림②-1)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채색분석한 도면에서 바로 할 것이다. 그리스의 무늬는 한 편에서 시작하여 한 방향으로 물 흐르듯 전개하지 못하고 같은 무늬가 반복하여 병렬(竝列)하여 있다. 그러나 이 영기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연이어져 있어서 절묘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의 인동당초문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인동과 이집트의 연꽃의 결합이라 널리 알려져 있다. 이미 채색분석해 본 것처럼 이 무늬에는 현실에 존재하는 식물과는 전혀 관계없는, 생명생성의 영기문으로 제1, 제2, 제3영기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이 무늬를 단순화시켜보면서 성립과정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그림 ②-2)

나는 수년 전에 독일의 베르린 박물관에서 바빌로니아의 궁전 벽(발굴품에 근거하여 복원한 것)에 표현된 영기문을 본 적이 있다. 벽돌로 쌓여진 성벽 면에 표현된 영기문을 보면, 그리스의 영기문의 연원이 바빌로니아의 칼데아 왕조의 2대 왕인 '네브카드네자르'가 기원 전 580년경에 지은 궁전의 채유(彩釉)벽돌 벽의 도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③-1) 그 영기문을 채색분석 해 보는데 그 자세한 설명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도면에 둔다.(도 ③-2) 즉 바빌로니아의 기둥 위에 있는 주두(柱頭)의 표현이 놀랍다. 주두는 우리나라 건축의 공포(栱包)에 해당하는데, 바로 '추상적인 생명생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영기문'이 아닌가! 나에게는 운명적인 만남이다. 만물이 생성하는 영기문의 원형을 바빌로니아에서 만나다니! 기둥이 우주목이며 동시에 생명수(生命樹)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일체의 인동당초라고 하는 조형의 근원은 기둥 위의 주두(柱頭)에서 비롯한 것임을 알았다. 알렉산더대왕이 서아시아와 인도 북부를 정복하였을 때, 그리스미술이 동쪽으로 전파하기도 하였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더 오랜 미술이 그리스로도 전파되었음을 증명할 수도 있게 되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동당초문이라는 추상적인 바빌로니아의 예와 구상적인 그리스의 예를 들었다. 특히 그리스는 서구문화의 근원이다. 그 근원지의 무늬가 엉뚱하게 현실에서 보는 인동과 수련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으로써 그 이후에 다양하게 변화하며 전개한 모든 인동당초문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는 셈이고, 그 무지(無知)는 그대로 일본을 통해 동양 전체로 전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동당초문은 영기문이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조형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제3영기싹으로 이루어진 넝쿨모양 영기문'보다 더 구체적인 용어를 만들 수는 없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 ①



그림 ②-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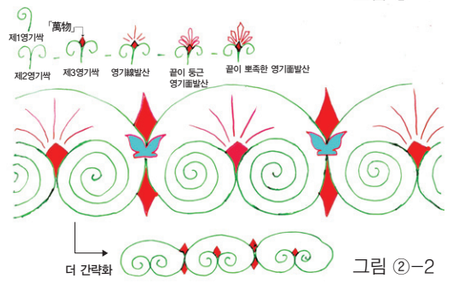


그림 ②-2

①중앙의 무늬를 보면 여러 번 도르르 말린 녹색의 제1영기싹이 마주보며 그 갈래 사이에서 빨간 색의 만물(이 갈래 사이에서는 무엇이든지 탄생하므로 단지 만물이라 부르려 한다)이 탄생한다. ②노란 색의 형태는 잎이 아니고 영기화생한 만물에서 발산하는 영기를 구상화한 것이다. ③그 옆으로 같은 단위의 무늬가 연결되어 있어서 아래로 향한 갈래 사이에서 만물이 탄생하는 제3영기싹을 이룬다. ④가운데의 노란 색의 '벌어진 씨방 같은 형태'에서 다시 두 갈래의 영기문이 힘차게 뻗쳐 나아가고, ⑤그 갈래에서 다른 형태의 녹색 세 가닥으로 이루어진 만물이 탄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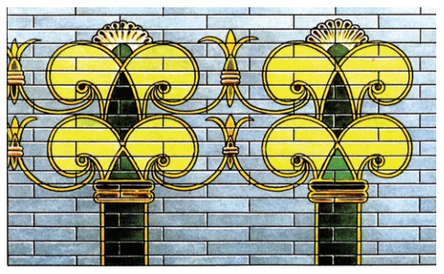


그림 ③-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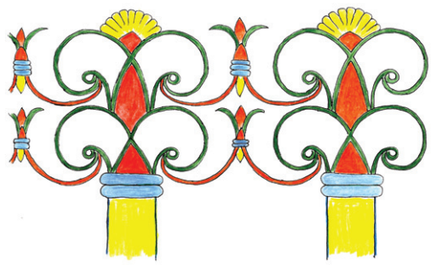


그림 ③-2

① 기둥 위의 매듭 같은 부분에서 제2영기싹 갈래에서 만물이 탄생하고, ② 다시 그 삼각형 모양에서 긴 둥근 영기문이 뻗쳐서 처음의 제1영기싹으로 흡수됨. ③ 그런 제3영기싹이 반복한 다음, ④ 맨 위의 제3영기싹의 만물에서 노란색 영기문이 발산한다. 잎이 아니다. ⑤ 그 두 기둥 사이에 같은 성격을 띤 작은 제3영기싹 영기문이 서로를 연결하여 역시 병렬식 무늬이다.

藥이 되는 사찰음식

여름 대표 채소 '가지'는 암예방에 탁월

가지편채와 가지김치



가지편채

△재료(4인 기준)

○ 가지 2개, 당귀잎 15g, 치커리 10g, 참나물 15g, 어린잎 50g, 황금팽이버섯 50g, 노란파프리카 1/4개, 붉은 파프리카 1/4개, 소금, 찹쌀가루 약간씩

○ 소스 - 간장 1큰술, 청장 1작은술, 감식초 2큰술, 매실청 2큰술, 고춧가루 1작은술, 참기름 1큰술, 통깨 2작은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① 가지는 필러로 얇게 저민 후 소금으로 밑간한 후 수분을 제거한 다음 녹말가루를 얇게 입혀 구워낸다.

② 황금팽이버섯은 밑둥을 잘라낸다.

③ 파프리카는 채썰고 샐러드 야채는 찬물에 헹궈 아삭하게 준비한다.

④ 분량의 재료를 잘 섞어 소스를 만든다.

⑤ 접시에 구운 가지를 돌려담고 샐러드 야채를 소스에 버무려 중앙에 소복하게 담아낸다.

가지김치

△재료(4인 기준)

○ 가지 4개

○ 김치소 - 청고추 5개,

○ 김치 양념 - 홍고추 6개, 국간장 3큰술, 소금 1/2작은술, 통깨 1큰술, 생강 1작은술, 찹쌀풀 3큰술



△만드는 법

① 가지는 5cm 정도의 길이로 자른 후 열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넣고 김오른 찜통에서 2~3분 정도 쪄서 식힌다.

② 청고추는 곱게 채썬다.

③ 김치양념은 분량대로 잘 섞은 후 채썬 청고추를 넣어 버무린다.

④ 찐 가지에 소를 채운다.

식물활성 영양소 풍부한 가지의 효능

이른 무더위로 인해 자칫 기력이 떨어질 수 있는 요즘, 여름의 대표적인 식재료인 가지를 이용한 요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지는 청열, 장 기능 개선, 염증치료,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식품으로 특히 가지의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알칼로이드, 페톨화합물 등 암을 예방하는 식물 활성 영양소가 풍부하다.

그러나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비위가 허약한 사람은 한 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리할 때도 굽거나 튀길 경우 바로 튀기게 되면 가지에 가장 많이 함유된 비타민 B의 손실이 커지므로 튀김옷을 입혀 튀기는 것이 좋다.

가지를 얇게 저며 소금을 살짝 뿌려 수분을 뺀 다음 찹쌀가루를 묻혀 굽게 되면 찹쌀이 가지의 찬 성질을 보완할 수 있어 좋다. 구운 가지에 향긋한 채소를 곁들여 소스에 버무려 먹음으로써 입맛을 돋울 수 있는데, 이를 응용한 또다른 조리법으로는 구운 가지에 여러 가지 생채소를 넣고 돌돌 말아 겨자소스를 곁들여 먹는 방법도 있다.

가지김치는 생으로 담는 것보다 살짝 쪄서 담게 되면 가지 특유의 아린 맛을 없애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데, 가지김치는 오래 두고 먹기보다 만든 후 바로 먹는 것이 더욱 맛있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아름다운동행 대한불교조계종

학교건립 불사

극심한 가뭄과 기아, 질병
그리고 부족한 배움의 기회로 인해
아프리카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학교 건립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후원참여]
[벽돌 한장] 10,000원
[책상·의자] 50,000원
[땅 한평] 100,000원
[식수대] 300,000원
[컴퓨터] 1,000,000원
[교실 한동] 10,000,000원
[법당(10명)] 50,000,000원

[후원계좌] 농협 301-0112-9859-5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후원문의] www.thenanum.org T. 02-737-9595 F. 02-737-9195
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백조인 자신을 오리로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미운 오리새끼들
박선영 글
돌 스튜디오 그림
참글어린이 펴냄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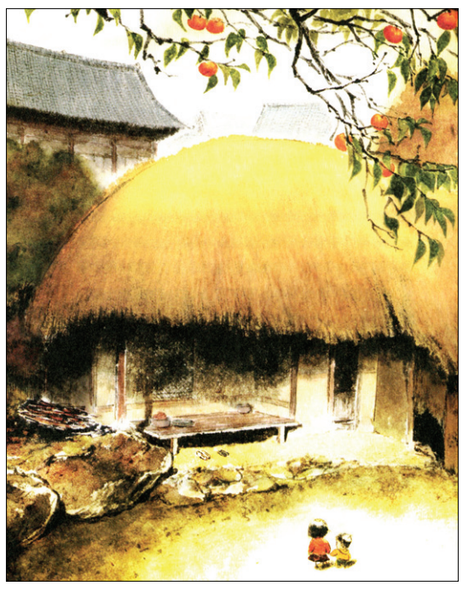
누나 지은이와 동생 지환이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더 이상 밭일을 할 수 없게 된 할머니는 절 공양간 일을 보기로 하고 두 손자들과 절 옆집으로 이사를 했다. 하지만 그 일조차도 할머니 몸이 더 안 좋아져서 힘들어졌다. 할머니 대신 공양간 설거지를 하고 나온 지은이는 법당에 들어가 앉았다. 자꾸만 한숨이 나온다. 책은 초등학생의 자식을 둔 엄마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로 엮은 단편 12편이다.

엄마는 출산 후에도 아이를 직접 돌보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맡기고 직장에 다니고, 엄마의 정이 한참 필요한 아이는 엄마와 떨어져 유아기를 보낸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 미술 등을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야 한다. 자아 없이 부모의 결정에 의해 어린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 의지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다.

도서출판 '참글세상'은 부처님의 말씀을 교재로 삼아 현대의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를 만들어 아이들의 행복을 모색해 보는 계획을 세웠다.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삶이 행복해기 때문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며 도서출판 참글세상은 어린이전문 출판사 '참글 어린이'를 세우고 어린들의 인성을 키워줄 책을 계획했다. 그 첫 번째 책이 〈미운 오리새끼들〉이다.

법당에 앉은 지은이가 한숨을 쉬는 이유는 내일이 담임선생님 생일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반 아이들 모두를 초대했다. 선생님은 선물을 사절한다고 했지만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 선물 이야기만 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이는 걱정이다. 회장 선주는 모아놓은 용돈으로 머리핀을 사겠다고 했고, 반에서 집이 제일 부자인 강우는 아빠가 백화점 상품권을 사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은이와 단짝인 나은이는 엄마가 추천해준 책을 사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은이는 얼마 전 어버이날에 돼지저금통을 뜯어서 그 돈으로 할머니한테 드릴 카네이션을 샀다. 법당에 앉아 부처님을 보고 있자니 지은이는 눈물이 난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걸까. 엄마 아빠 없어도 할머니가 계시니까 그리고 지환이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너무 너무 가난한 것이 속상하다. 울고 있던 지은이는 법당 구석에서 초파일에 만들고 남은 연등 재료를 보게 된다. 지은이는 선생님에게 연등을 선물하기로 생각한다. 그리고 스님의 도움을 받아 예쁜 연등을 만들어 다음날 선생님에게 선물한다. 지은이의 선물을 받은 선생님은 목이 잠겼다. 선생님이 케익의 촛불대신 연등에 불을 밝히자 아이들은 '스승의 은혜'를 부르기 시작했다. 서른일곱 명의 아이들 목소리가 나지막이 울려 퍼진다. 연등의 불빛을 타고 노래는 멀리멀리 퍼졌다. 언제나 꺼지지 않을 것처럼.

가난한 여인 난다의 등을 떠올리게 한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저마다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갈팡질팡한다. 열 두 편의 동화를 삽화와 함께 엮은 책은 한 편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뒤에 비슷한 사례의 부처님 이야기를 이어간다. 책을 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편 삽화

엄마가 바라본 아이들 이야기 12편
어른들 아이 손에 동화책 들려줘야

은 아이에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기 위해서다. 선생님의 생일 선물로 손수 만든 연등을 선물한 지은이의 이야기 끝에 부처님 당시의 가난했던 여인 난다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난다는 어렵게 등 하나를 겨우 달게 된다. '밤이 깊어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밝힌 등불이 하나 둘 꺼져 갔지요. 그런데 단 하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이르셨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여인이 정성을 다해 켠 등불이어서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은 다른 돈 많은 사람이나 지위 높은 사람들의 등불보다 가난한 여인 난다의 등불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새끼'처럼 백조인 자신을 오리로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도 알고 보면 모두가 멋진 사람입니다." 라고 작가는 격려한다.

2013년 5월 국제아동지표학회 소속 10개국 연구진이 세계 처음으로 국제어린이 행복종합지수를 발표했다. 평균 100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국제행복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90.3점을 얻어 이번 조사 대상 8개국 중 7위에 그쳤다. 1인당 GDP가 한국의 5분의 1 수준인 알제리(6위 · 99.5점)보다 순위가 낮았다. 경제력이 한국의 40분의 1에 불과한 우간다(8위 · 80.9점)를 앞질러 최하위를 면했을 뿐이다. 한국 어린이는 괜찮은 옷, 개인 컴퓨터, 인터넷 접근권, 휴대전화의 4가지 품목 중 평균 3.83개를 가져 가난한 나라인 알제리의 2배, 우간다의 4배가 넘는다. 하지만 한국 어린이는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12편의 동화가 위의 지수를 한 순간에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나 인터넷, 게임 등 성인들과 거의 비슷한 문화와 생활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 어린이들에게 '책'은, 그것도 '동화책'은 눈길을 끌기 쉽지 않다. 책은 짧은 동화 한 편을 통해 아이들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아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는 것이다. 책을 아이들의 손에 들려줘야 하는 일은 어른들의 몫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2 ~ 6/18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탁낫한 명상	틱낫한	불광출판사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5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6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보경	민족사
7	그건 내 부처가 아니다	서암	정토출판
8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9	이해하고 내려놓기	일묵	궁리
10	명상에 답이 있다	장현갑	담앤북스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문관

무문혜개 지음 | 청봉청운 강설 | 운주사 펴냄 | 1만3천원



조주 선사에게 어떤 승이 묻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 조주 선사가 "없다(無)." 했다.

책은 무문 혜개 선사의 〈무문관〉 강설이다. 만공월면 선사로부터 법을 받은 덕숭산 혜암 현문 선사의 전법 제자인 청봉 청운 선사의 강설이다.

"선을 배우는 데는 수행자가 우선 설치한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묘한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분별심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조사의 관문을 뚫지 못하고 분별심을 단절하는 체험이 없는 자는 초목에 사는 정체 없는 유령과 같은 것이다." 무문 선사의 평창이다. 게송이 이어진다.

"개의 불성이여 / 올바른 법령을 그대로 전체를 내보였도다. / 유무의 두 견해로 건네면 / 몸 잃고 목숨 잃게 되니라."

청봉 선사의 '문'과 '착어'가 이어진다.

"자! 누가 일러보시오. 어째서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는데 조주 선사는 '없다'라고 했는가?"

"달이 달을 삼켰도다."

〈무문관〉은 남송 임제종의 무문 혜개 선사가 고래로부터 전해오는 수많은 고칙공안(古則公案) 중에서 간명하면서도 선의 근본 취지를 잘 드러내는 공안 48칙을 가려뽑아 각각에 평창과 송을 붙인, 선가의 대표적 공안집이다.

책은 청봉 선사가 〈무문관〉을 우리말로 옮김은 물론, 자신의 살림살이인 '문'과 '착어'를 통해 간화선의 선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무문 혜개 선사는 중국 간화선의 대성자인 오조법연(?~1104)의 6대 법손으로서 공안 중 가장 유명한 '조주무자'를 시작으로 48칙의 공안을 모았다. 그 형식은 본칙을 제시하고, 본칙에 대한 평가인 평창을 붙이고, 마지막으로 게송으로 거듭 그 뜻을 드러내는 송(頌)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송 때인 1228년(소정1)에 간행되었고, 1245년에 중간된 이래 1405년 일본에서 간행되는 등 수차례 간행되었다.

책을 강설한 청봉 청운 스님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출가했지만 뛰어난 선기로 수덕사 초대 방장 혜암 선사의 전법인가를 받았다.

물론 그 이면에는 어린 시절부터의 불가와 맺은 지중한 인연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출가 이후 투철한 수행을 통해 자신을 가다듬은 후 본격적인 대중화를 시작, 전국 각지에서 출, 재가자를 가리지 않고 공부인들을 제접했다.

유고집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책은 청봉 청운 선사가 강설한 원고에 문도회에서 간단한 각주와 원문을 붙여 편집했다. 원문에 대한 알기 쉬운 우리말 번역도 이 책의 장점이지만,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각 공안마다 말미에 청봉 선사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한 '청봉선사 문'과 '청봉선사 착어'에 있다. 청봉 선사의 번뜩이는 선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문'과 '착어'는 〈무문관〉에 대한 단순한 문자 이해를 넘어서는, 간화선의 본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방'이자 '할'이다. 그 간결한 문답 속에 내재한 간절함과 투철함은 공부인들에게 간화선의 참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박재완 기자**

삼교(유·불·선)의 회통은 불가능한 것인가

북송 초기의 삼교회통론

김경수 지음 | 예문서원 펴냄 | 2만6천원



동양철학의 3대 중심축인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삼교 교섭사를 통하여 인간 지성의 구조와 자아완성의 경지에 이르는 길을 철학적으로 살펴본 연구다.

유교와 불교 그리고 도교 삼교는 오랜 세월 동안 동아시아 사상의 중심으로, 민중의 생활을 지배해온 이념들이다. 전한시대부터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자리매김한 유교는 통치계급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인의 사유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미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은 후한시대에 인도로부터 유입된 불교는 힘겨운 토착화의 과정을 겪으며 수당시기에 이르러 출가한 지식인을 기반으로 중국불교로 거듭났다. 후한 말기 민중 속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종교인 도교 또한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 장생불사를 꿈꾸는 복을 기원하는 민간신앙으로 정착되었다.

하지만 삼교는 근원적으로 이질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왕조의 흥망성쇠를 따라 지지와 탄압이 거듭되었다. 또한 각 종교는 내부적으로 겪어야 했던 갈등의 요소들로 인해 어려웠고, 다른 종교와의 사이에서 겪는 갈등으로 어려웠다. 종교의 화해와 공존, 더 나아가 회통은 불가능한 것인가? 물론 역사 속에서도 단편적으로 그런 사례는 있어왔고, 오늘날에도 일부 종교인들은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하다.

동아시아 역사에서도 드물게 삼교의 정립이 이루어진 시기가 있었으니 바로 북송 초기였다. 북송은 문치주의를 채택하여 학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였으며, 국가 차원에서 당시 대중화되기 시작한 인쇄술을 바탕으로 삼교의 경전들을 전집 형태로 간행하여 널리 보급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춘추전국의 제자백가를 능가할 정도로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그야말로 학문의 최대 융성기를 누렸으며, 한편에서는 성리학이 막 태동하고 있었다. 이 당시 삼교는 서로 비판적인 관점을 지양하고 상호 회통적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책은 그 화해의 움직임의 대표적인 인물로 인식되어온 불교의 계숭 선사와 도교의 장백단을 비교 연구하고 있다.

계숭의 삼교융회론이 그것이고, 장백단의 삼교귀일론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삼교회통론은 서로 뚜렷한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계숭은 유교와 불교를 주로 비교하여 그 가르침은 서로 같은 부분이 많지만 결국은 불교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장백단은 도교와 선불교는 각각 명(命)과 성(性)을 바탕으로 수련하는 것임을 말하면서 자신의 내단 이론에서는 이를 초월하는 도교적 경지를 구축했다. 이러한 두 사람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대립과 갈등으로 이루어진 삼교교섭사에서 전례 없었던 화합과 회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박재완 기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내면에 귀 기울여라”



달라이라마의 고양이

데이비드 미치 지음
추미란 옮김
샨티 펴냄
1만5천원

‘달라이 라마의 고양이’가 된 자신의 운명에 감사하게 된 고양이, 그러나 이 고양이는 원래 인도 빈민가에서 두 소년에 의해 헐값에 팔릴 운명이었다. 그러나 허약한 뒷다리 때문에 쓰레기더미 속으로 버려질 순간, 마침 그곳을 지나던 달라이 라마가 2달러를 주고 고양이의 목숨을 구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고양이는 인도 허름한 뒷골목에서 달라이 라마의 아름다운 성소, ‘조캉’으로 이동해 새 삶을 시작한다.

이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총 12개의 에피소드는 각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달라이 라마와 그의 비서인 초갈 및 텐진과의 첫 만남, 달라이 라마의 요리사로 인정은 많지만 흥분을 잘하는 트린치 아줌마, 고양이라면 질색을 하고 영적 허영심에 가득한 카페 주인 프랭크, 자기 계발 분야의 세계적 인사지만 자신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잭 아무개’라는 사람, 박애주의자로 숲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는 영국인 여배우, 프랭크의 스승이 된 왕포 스님, 주인공 고양이가 한눈에 반해버린 수고양이 맘보, 육식을 거부하다 병이 생긴 텐진의 딸 로렌, 원치 않는 결혼을 앞둔 텔레콤 기사 라지, 아는 것은 많으나 자신 없고 소심한 샘, 그리고 이 책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서점 개점식 등이 그것이다.

이 열두 개의 에피소드는 주인공 고양이가 깨우쳐가는 깨달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우리의 주인공 고양이는 생명의 귀중함, 외로움의 정체, 행복의 조건, 사랑하고 자비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남을 나처럼 생각해야 하는 이유, 변화에 탄력적이어야 하는 이유, 절제하는 법, 육식과 채식의 문제, 약한 마음을 극복하는 법, 열등감을 극복하는 법 등을 이 에피소드들을 겪으며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나간다. 이는 어린 고양이가 성장하는 과정서 벌이는 크고 작은 실수담과 얽히면서 독자들의 웃음 코드를 자극한다.

예컨대 어느 날 바깥에 나갔다가 덤불 속에서 ‘쥐’를 발견하고는 본능에 압도되어 쥐의 목을 물어 기절시키고, 그것을 자랑하려다가 조캉의 직원들에게 망신을 당한다. 그리고 고양이는 ‘성하님의 마우저(Mouser)’ ‘마우지 슬레이어(쥐 살인자)’ 그리고 끝내 ‘마우지둥(마오쩌둥)’이라는 굴욕적인 별명을 얻고야 만다.

다행히도 쥐는 살아났지만 풀이 죽은 고양이에게 달라이 라마가 말한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 때로 본능이나 부정적인 조건에 압도당할 때가 있단다. 나중에 우리가 한 짓을 몹시 후회하기도 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단다. 부처님은 너를 저버리지 않았단다. 이번 실수에서 배우고 계속 가자. 그럼 된다. 내일은 또 온단다.”

또 주인에게 버려져 조캉으로 온 개를 예뻐하는 달라이 라마를 보며 개를 질투하고 달라이 라마에게 배신감마저 느낀다. 그때 마침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세계적인 자기계발 전문가에게 달라이 라마가 하는 말을 고양이가 듣게 된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키우는 개인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첫째,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겁니다. 불교도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요. 둘째, 불만족스러워하거나 고통받는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비라고 부르죠.” 그 말을 곱씹으며 고양이는 스스로 깨우치게 된다.

고양이 주인공… 12개 에피소드 소개
인도 빈민가서 달라이 라마가 데려와
달라이 라마의 법문들도 곳곳에 수록

그리고 하는 말, “나는 질투심을 느끼지 않을 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질투와 분개는 아주 힘든 감정이라 마음의 평화가 깨진다. 나를 위해서라도 불행하고 불합리한 감정에 소모될 이유는 없다.”

또 온갖 황홀한 먹을거리에 빠져 뚱뚱해지는 줄도 모르고 음식을 탐하던 즈음, 계단을 뛰어오르다가 무거운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모욕적인 추락’을 하는 망신스러운 일을 겪게 된다. 고양이는 충격 받고 비로소 깨우친다. “덜 먹어야 한다는 것을 나도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 그 모욕적인 추락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창피를 당하고 나서야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이 행동으로 바뀌는 ‘깨달음’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 안의 아늑한 어둠 속에서 달라이 라마가 자기를 쓰다듬으면서 하는 말을 듣는다. “귀여운 스노우 라이언, 오늘 힘들었겠구나. 문제를 알면 훨씬 쉽게 바꿀 수 있단다.”

그런가 하면 범고양이 맘보를 보고 첫눈에 ‘열렬한 사랑’에 빠져 뜨겁게 그리워하던 순간, 달라이 라마와 틱낫한 스님의 대화를 듣게 된다. 평정심을 갖고 변화하는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자기 중심의 멜로드라마에 빠져,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가”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양이는 자기가 “살아온 날들 대부분이 바로 그 자기 중심적인 멜로드라마였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 후 범고양이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와 괴로울 때마다, 고양이는 ‘자기 중심의 멜로드라마’를 쓰기보다는 내면의 평화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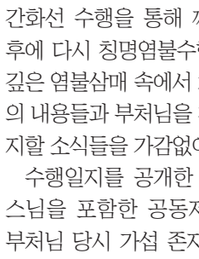
이 책은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가르치거나 강요하지도 않고, 꾸짖거나 훈계하지도 않는다. 달라이 라마가 자신의 실수를 부끄러워하는 고양이를 향해 온화한 목소리로 “내일은 또 온단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달라이 라마가 또 그가 전하는 진리의 세계가 어떻게 우리를 자신의 넉넉한 품으로 초대하는지 보고 깊은 위로를 얻게 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는 실천의 종교, 마음수행 하면 누구나 견성 할 수 있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

글 광명 만덕, 자재 만현 | 현지사 펴냄
각권 1만8천원



“불교는 실천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학식이 있고 변재라 해도 실천 수행이 없으면 안됩니다. 세계적인 대석학이라도 해도 믿음이 없고 행이 없으면 악도행입니다. 마음공부에서 깨달아야 하고, 깨달음을 완성해서 아라한이 되고, 보살지에 오르고, 궁극에 이르러 붓다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피가 없이는 윤회를 벗어나는 아라한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력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명염불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05년 초판이 발행되자마자 6개월간 연속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던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가 7년 후에 내용을 완전히 보완하고 저자의 치열했던 수행일지 중 중요한 부분을 첨가해 전면 개정판을 발행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후에 다시 칭명염불수행으로 전환해 깊은 염불삼매 속에서 체험한 깨달음의 내용들과 부처님을 친견한 경천동지할 소식들을 가감없이 기록했다.

수행일지를 공개한 한 분의 저자 스님을 포함한 공동저자 스님들은 부처님 당시 가섭 존자와 아난 존자의 후신으로서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바른 삶의 길을 안내하고 또 세계불교계의 새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저술했다고 법문을 통해 누차 밝힌 바 있다. 이 책은 우리가 한번쯤은 품었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사후세계가 실제로 있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윤회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진정 잘 사는 것인가? 이제 바쁜 걸음을 조금 늦추고 우리는 다시한번 이 질문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여러 분야에서 학문이 매우 전문화·첨단화 되고 과학문명은 고도로 발전하여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고 있는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진정 행복한가?

이 책은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이런 질문들에 대해 깊이 있고 세련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이 시대 영적 스승이 불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종교가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바른 삶의 길을 안내하는 탁월한 삶의 지침서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책은 기존 한국불교의 타성과 잘못을 지적하고 선종 중심의 교학과 수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위빠사나 수행 중심의 남방불교, 참선 수행 중심의 중국불교의 영향을 받은 북방불교, 밀교 수행을 기반으로 하는 티벳불교 등 종파화된 세계불교계를 쇄신 통합해 21세기 불교가 나아갈 새 방향성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저술이기도 하다.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열반에 든 석가모니부처님이 ‘무아속절대계’(연화장세계)에 실재하고 있으며 불신(보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다는 것이다. 자력수행 중심의 기존 불교의 수행 전통 속에서는 부처님이 계시는가 안계시는가하는 문제는

칭명염불 수행 중요성 강조
한국불교 나아갈 방향도 지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저자는 치열한 칭명염불 수행을 통해 대적정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의 실존을 체험하고 증명함으로써 부처님의 실존을 교학과 수행의 중심주제로 전환시켰고 불교 이해에 있어서 새로운 파라다임을 제시했다.

그리고 삼매 속에서 중생의 윤회하는 여섯 세계를 꿰뚫어 보고 하늘세계도 실재하고 지옥과 극락세계도 실재함을 증험함으로써 2600년 전 부처님의 교설이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재확인 해주고 있다.

불교 교리적으로도, 부처님의 무아설에 대해 기존 불교계의 잘못된 이해를 비판하고, 불교 교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설인 불신(佛身)의 삼신론을 새로이 조명하고 증명했으며,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무아와 윤회 주체간의 모순을 해결한 영혼체윤회론을 제시함으로써 이 때까지의 불교 교학에서 논쟁과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부분들을 모두 종결지었다.

이 책은 어려운 불교 교리를 새롭게 조명하고 재천명하면서도 매우 평이하게 서술하여 관심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김주일 기자**

〈반야심경〉은 참나 꿰뚫는 지혜 선사

깨달음으로 읽는 반야심경

장길섭 지음 | 나마스테 펴냄 | 1만3천원



〈반야심경〉은 ‘반야’라는 가장 큰 지혜를 찾고 만물의 이치를 깨우치게 해주는 불교 경전이다. 함축해서 정리한, 270자 안에 담긴 정수에서 말하고자 한 가장 큰 지혜란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는 그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 즉 나의 실상을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 〈반야심경〉은 일상적인 생각과 감정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만물의 실상을 거울처럼 비추어 참나를 꿰뚫어볼 수 있는 지혜를 선사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신이라는 절대 존재가 있고, 그것은 자신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은 사실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생각과 관념과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한, 진정한 신도, 진정한 나도 만날 수 없다. 그렇다면 참나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반야심경〉에서는 ‘저 언덕을 넘어서는 것’을 지혜를 만나는 방편으로 제시한다. 언덕 너머란 정토와 극락세계이다. 언덕을 넘어서는 것, 즉 자신의 생각과 느낌, 감정, 나아가 사실까지 넘어서면 참나를 만날 수 있다. 이 책은 자신의 생각을 넘어 만물의 실상과 만나고, 삶의 진리를 깨달아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는 〈반야심경〉을 노래하는 깨달음의 향연이다.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색(色)’과 ‘공(空)’ 개념이다. 색은 쉽게 말해서 물질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다.

반면 공은 정신, 존재, 영혼을 말한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한다. 색과 공이 같다, 즉 세상 만물의 실상이 공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비어 있다는 것은 곧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선’ 체험하면 마음속에 ‘맑음’ 출현

마음공부와 선

김성갑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2천원



인류는 고대로부터 정신과 육체를 다스려 가장 행복하고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왔다. 그 결과 정신적·육체적인 여러 수련법들이 개발 전승돼 왔으며, 이는 민족이나 종교에 따라 각기 다른 전통으로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법은 정신에 관한한 가장 궁극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이 불교만의 문자와 언어에 결박되면 그 확장성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현대인들의 언어와 관심, 사고방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들을 마음공부와 선의 세계에 인도하고 있는데, 즉 동서양의 철학과 고전, 불교와 기독교, 심리 및 최면 요법 등의 이론까지 등장한다. 더불어 우리 민족 전통의 선도 및 경혈까지 접합시켜 육체적 능력의 개발까지 나아간다. 저자에 따르면 깨달음은 법력이고, 법력은 맑음이다. 즉 법력은 청정에서 오고, 청정은 마음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은 의식을 쉬게 하는 것이다. 생각을 쉬게하는 것은 정신통일뿐이라고 저자는 이 책에서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수행이란 자아를 강제로 지우거나 없애는 일이 아니지만 자아가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자아의 속임수를 폭로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존재하지 않는 자아를 소멸시킬 수는 없지만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식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선은 무엇일까? 침묵의 정진에서 이론과 지식을 떠나고 종교의 암묵적 암시에서 벗어날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선을 체험할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그때 출현하게 되는 것이 맑음이라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기도와 회향은 중요함
우울증, 알콜중독, 비만 악몽 가위눌림
대학입시기도, 사업성공
치매, 암 중풍 예방 기도
조상영가 태아영가천도
조상숭배 실천대회
조상님 산소에 가서 잡초 잡목제거
여름방학 수련회 (3박 4일)
초,중,고등학생 부모, 일반인 참가
촛불을 잘 밝혀야 기도가 잘 됨
소원양초 대표 임익준
010-3815-7162 (주문환영)
천부경 수맥탐지특강
풍수지리 정태철 (법사.지사)
010-2797-1633
부산 – 제주, 부산 – 일본오사카
수륙천도재 하실 분 신청바람
대불정능엄신주 특별지도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대전·서울·부산·대구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⑫ 1931년 선학원의 재건과 선의 대중화 (2)

'禪苑' 창간 문서포교… 시대 앞선 불교지

〈선원(禪苑)〉지는 선학원의 기관지이면서 대중지이다. 1931년 10월 6일 창간해서 현재 통권 208호에 이르고 있다. 선학원의 설립정신이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침체된 선의 중흥과 대중화에 있었다면 〈선원〉지의 성격 역시 그와 무관하지 않다.

불교는 신령스러우면서 깨닫고, 고요하면서 비추는 일물(一物)을 가르쳐서 혹은 불(佛)이라 하고 혹은 여래(如來)라 이르며, 선종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혹은 일영(一靈)의 진성(眞性)이라하고 혹은 열반(涅槃)의 묘심(妙心)이라하는 바 선학의 공부로써 이 한 물건을 발견하고 포착(捕捉)하는 미묘한 이치가 지극히 간단하고 쉽고, 지극히 밝고 명료하여 곧바로 믿고 깨달으면 본래 성불(本來成佛)이다. 그러나 이런 이취(理趣)를 입으로 말하지 않고 붓으로 써보지 않으면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본래부터 문자에 서투른 선학의 수자(修者)라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침묵하고 지키기만 할 때가 아니어서 본지를 세상에 보내게 된 것이다.

1931년 〈선원〉지의 창간사다. 선학이 훌륭하고 미묘한 이치가 많지만, 말로써 표현하지 못하는 '일물(一物)'을 입과 붓으로 보이기 위해 〈선원〉지를 세상에 내놓았다는 것이다. 당시 선 수행을 비롯한 선학의 침체를 대중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선원(禪院)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여 홀대하고, 대처풍조의 만연으로 독신수좌들을 배척하는 당시 불교계의 분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학원, 1931년 〈선원〉 창간
한국 禪 가치 재조명… 의미 커
수좌 배척 상황 극복 노력
맹신적 기복신앙에 경종 울려

한참동안 과학만능을 부르짖는 것이 높아 다윈의 진화론(進化論)을 말하지 않으면 행세할 수가 없고 막스의 유물론(唯物論)을 입에 걸지 않으면 사람노릇을 못하는 것같이 떠들더니 이제는 그런 시대가 벌써 지나가고 말았다. … 유물 만으로만 살 수 없음을 각성(覺醒)하는 자가 많으니 어찌 유물주의에만 항상 걸려있을 것인가. 그렇게 철석같이 굳은 것처럼 사납게 날뛰는 주의자들도 이제는 대부분 사상전환기에 들어서 종교의 문을 두드리고 인생다운 사람의 길을 밟으려고 한다.

〈선원〉지 4호(1935)에 실린 김태흡(金泰洽)의 글이다. 진화론과 유물론이 유행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한 불교개혁론과 유신론이 불교계를 휩쓸었지만, 그 한계는 분명하게 드러났고 오히려 종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일제강점기를 맞이한 불교계의 변질, 새로운 사조(思潮)의 수용, 전통불교에 대한 반성과 개혁,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질주하고 있었던 것을 비판한 것이다. 사실 당시 불교계는 이전의 탄압과 소외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는 듯 '개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다. 대신 정체성이라는 본분사와 부처의 골수를 부수는 핵심은 놓쳐버린 것이다. 쭉정이들만 반짝했다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선원〉지의 창간은 결국 선학원의 설립목적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불교계가 맞이하고 있었던 혼란과 위기를 지적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선방에서의 수행이 주지가 되기 위한 위조증명서 한 장으로 대체되었던 선에 대한 경시풍조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원〉지 창간호부터 4호까지 글을 쓴 필진은 약 36명이다. 이 가운데 주요 필진들은 임제종운동(臨濟宗運動)과 선학원 설립을 주도했던 한용운·백용성 등이었으며, 방한암·박한영·권상로·김태흡과 같은 당대의 고승과 지식인들이었다. 이 가운데 박한영(朴漢永)은 권상로·한용운과 함께 당시 불교개혁론의 대표 인물이었지만, 불교가 지닌 근본정신의 진면목을 기초로 시대변천과 문명사조의 세례를 유의해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이른바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의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백용성 역시 8편의 글을 실었는데, 화두의 개념과 참구의 방법을 소개했으며 〈선문염송(禪門拈頌)〉을 중심으로 한 화두풀이에 대한 강화(講話)였다. 선의 중흥을 위한 대중화를 염두한 글이었다.

한편 김태흡은 〈선원〉지를 통해 '심즉시불(心卽是佛)'·'선(禪)의 인생관'과 같은 선에 대한 기초적인 논설을 썼지만, 당시 심전개발운동(心田開發運動)에 대한 비판적인 글도 소개하였다. 예컨대 그는 〈선원〉4호에 소개한 '심전개발과 선의 대중화'라는 글을 통해 "조선총독부가 심전개발운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은 조선인들로 하여금 정책에 순응하게 하고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량한 황국신민(皇國臣民)을 만드는데 있었다"고 하였다.

우리 불자는 무엇보다도 해탈의 경계를 얻어 대중을 위해서 노력하려면 먼저 참선이 필요하다. …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일을 하려면 먼저 선을 연구해야 할 것이요, 선을 연구한다는 것보다도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할 급무(急務)이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이상엔 능히 남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참된 사람이라 한다.

위의 글은 풍고(風皐)라는 필명을 지닌 이의 글이다. 김태흡이 당시 불교계가 맞이하고 있었던 모순과 침체를 시대상황을 기초로 비판적인 글을 썼다면 풍고는 선수행의 당위성과 같은 원론적인 글을 통해 선의 중흥을 모색했다.

〈선원〉지는 이밖에 선사상과 중국선종사, 불교교리와 함께 시와 소설을 망라한 불교문학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1931년 재건 직후 선학원의 대내외적인 활동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선학원일기초요(禪學院日記抄要)'를 통해서는 1931년 침체를 딛고 일어선 재건기의 활기찬 움직임을 소개하였다. 다양한 법회와 스님들의 치열한 선 수행, 부인선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신도들의 수행과 포교활동을 전하기도 하였다.

'지방선원소식(地方禪院消息)'이나 '조선불교계의 선원과 납자(衲子)수의 통계'는 1921년 선학원의 설립이후 그 관심과 지원으로 침체된 선원이 부활하고 체계적인 수행여건이 마련된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해를 거듭할수록 선원과 수행납자의 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선원〉지 4호는 1934년 선학원이 재단법인의 인가를 받아 조선불교선리참구원으로 확대 개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수록하고 있다.

예컨대 중앙선원을 전국 선원의 모범선원으로 지정한 점이나 선종중앙종무원(禪宗中央宗務院)·재단법인(財團法人)·조선불교중앙부인선원(朝鮮佛教中央婦人禪院) 등 산하기관의 활동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일제 심전개발운동 등 비판 제시
민족불교 전통성 수호·중흥 도모
1930년대 치열한 수행현장 담아
선학원 역사 기록 역할도

결국 선학원의 〈선원〉지 창간은 한국근현대불교사에서 몇 가지 적지 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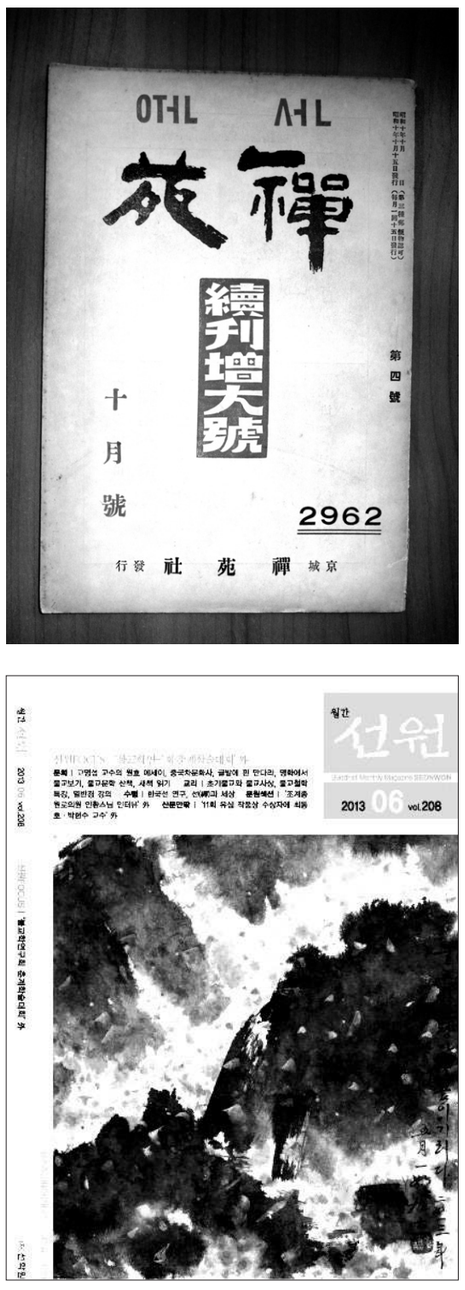
첫째, 선학원이 표방했던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구현하고자 했다. 당시 불교계에서 간행된 대부분의 간행물이 너도나도 불교개혁과 같은 시류를 부르짖을 때 본분사에 충실했고 구현하고자 진력한 것이다. 당시의 시선으로는 시대를 거슬러가는 어리석은 짓이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둘째, 선의 대중화에 앞장선 점이다. 이른바 주지전횡, 왜색불교 만연의 영향으로 선방의 수좌들은 소위 밥값 못하는 부류로 인식되었고, 선원은 황폐화되어갔다. 〈선원〉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선이 지닌 가치와 실질적 효능을 대중들에게 소개하여 당시 한국불교가 지닌 모순과 왜곡을 바로잡고자 진력하였다. 특히 맹목적인 기복신앙(祈福信仰)에 젖어있던 신도들은 선(禪)을 통해 불교와 수행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었다.



지금도 〈선원〉지는 선학원의 설립정신을 의연하게 이어가고 있다. 지면을 통해 그 성숙과 발전을 기원한다.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1935년 선학원에서 간행한 〈선원〉지 4호〈사진 왼쪽 위〉와 2013년 6월 간행된 〈선원〉지〈사진 왼쪽 아래〉. 선학원〈사진 오른쪽〉의 기관지인 〈선원〉지는 민족불교 중흥과 선 대중화라는 초기 설립 정신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입 종 안 내

사단법인 불교 정중종

▷ 淨衆宗 : 깨끗한 무리의 중생들이 불국정토를 염원하는 종단

불법에 소중한 인연을 이어갈
불교 정중종 입종을 발원합니다

사단법인 불교 정중종 총무원

총무원장 진여 법만 합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40길 100 (중화동 274-63)
전화 02)433-6591~2 /팩스 02)433-6508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 스 생 명 공 학 ※대리점 모집중

"기적을 일으켜 주고있는"

생전예수재기도

이 기도가 자신의 운명과 운세를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7일 마다 한번씩 20분정도 집에서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준비 되어있는 기도문 내용을 방편 앞에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생전예수재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 기도로서 자신의 삶이 바뀝니다.
(1)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현재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특히 불치병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3)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자주 막히고 진행이 잘안된다.
(4) 결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5) 결혼후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
(6)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7) 취업이 잘 안되고, 되어도 좋은 직장이 안된다.
(8) 무슨 시험이든 운이 약하게 작용하여 합격이 어렵다.
(9)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잘 안된다.
(10) 직장에서의 승진이 어렵다.
(11) 앞으로 남은 생의 삶은 정말 새롭게 잘 살아 보고싶다.
(12) 특히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이 기도를 필히하십시오.

이상의 내용에서 몇 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본 회에서 무료로 보내드리는 「생전예수재의 필요성」책자를 신청하여 읽어 보신 후 마음이 닿으시어 기도 신청을 하시면 바로 집에서 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이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 보시고 신도들에게 펼치시고자 하시면 별도로 전화 주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름답지만 향기 없는 꽃이 이익이 없듯이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도 따르고 실천이 없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
아름다우면서 향기로운 꽃이 많은 이익을 주듯이
잘 설해진 훌륭한 가르침도 따르고 실천해야만 많은 이익이 있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찬찬히 잘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범음범패 학인모집

• 초급과정 : 사물(목탁,요령,태징,법고)다루는 법
사시예불,도량석,쇳송,각단예불,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 천도재,49재,점안식,예수재 등
• 작법과정 : 바라무(요잡바라,천수바라), 나비무
• 수시모집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주소 :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불모산 삼보사 염불원
연락처 : 010-5934-1766(강주스님)
010-8612-6914(총무스님)

지리산 청학동 (미륵암 자비수양원)

황토방과 건강치료설비를 갖춘 수양원에서 식이요법 및 유기농 식단 등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께선 많은 연락바랍니다
* 또한 암자에서 참선수행 하실분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 찾아주십시요
011-759-0183
010-8484-6124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천명리강의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모든 고민은 네이버에서
"샤먼노트"를 검색해 보세요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록명법 특강

전귀명은 부동산 투자성공하고
폭패파택살(김우중)은 부도나고 경문년에 오바마 대통령재선 천사통수격(박근혜)은 대통령됨. 마두대재는 창업성공 부자되고 봉황록귀는 부귀로 세계에 이름떨침.
범귀자 영장살자는 매사 중도좌절
명귀보궁 비살병투자는 남자친구한테 APT받고 비재성자는 복권당첨됨
쉽고 새로운 천년비법 최초공개!!
010-4022-2967
010-9469-7719

재의식에 필요한

사물 및 작법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북, 태징, 법고, 홍고, 작법)
02)532-0529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기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불사용(佛事用) 달마도 보급안내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 친필 달마도를 정성껏
저렴하게 그려 드립니다.
보급처 051)202-8770.
010-2953-8770
*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합니다.
부산청암달마원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범음범패 학인모집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선암 (부산 진시장 앞)
010-6569-1010

불교의식(범음,범패)학인모집

실전위주 교육(재가불자가능)
불공의식.천도재,49재,점안식
천수바라,나비무
010-9263-8057
부산 은진사.인호,수법 합장

전법을 위한 생활불교 강좌

대 상 : 스님, 법사,
불교에 관심있는 분
기 간 : 6개월
월회비 : 5만원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6~8시
010-2493-2560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 전 교 육
– 사물(태징, 목탁, 송주북, 정근북, 법고)
– 천수바라, 작법(나비무), 49재, 천도재, 점안등
경남 양산시 주남동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최선생 실전사주 수 업 공 개

–기초는 배울만큼 배웠지만 실전에서 헤매는 분들을 위한 고급 과정임
–매주 화,목요일 오후 5:30~7:20
–명리철학연구실 (종로6가 신신시장 건너편)
010-2382-3788
*신설 기초반은 7월초 개강예정

명리학 사주 개인지도 직접상담

사주,궁합,택일,작명(성명학)을 배우고 싶은 분,알고 싶은 분
–스님께서 직접지도–
031-448-5065
010-8440-8430
안양(명학역근처) 선문사

향기도의 묘법

• 어떠한 소원도 이루게 해주는 기도
이기도법을 원하는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032)664-0048 / 011-741-0867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 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사 과 문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도에게 보낸 대구, 경북 분구에 대한 공문에서 전 종무원장 법운스님과 함께 탈종한 스님들을 지칭한 내용에 대하여 경북교구 종무원은 행정상 착오하였음을 법운스님과 동참한 스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종무원장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40~50세)
011-9514-3721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관악구 약수사)
02)877-7514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총무스님 010-5511-7000

자성주(자성사리) 수익사업

친환경 납골문화의 21C 선두기업
고인의 유골을 섭씨 2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아름답고 품위있게 自性珠(구슬사리)로 생성하는 기계.
대도시 및 종교시설. 문중사당. 가정에서 모심
전국지사 및 사업동반자 환영
1899-1042. 010-3679-1080
(주) 보은의 사랑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청주)
010-3691-5865

불심있고 참신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7223-7893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가족세우기 (전문)지도자 과정 붓다의 가피명상 지도자과정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둠명상, 해독단식명상, 태교명상 원네스 명상
니르바나명상센터
문의전화 – 혜산 010-4114-6600
다음카페–니르바나명상, 네이버–원네스 행복한 가족 참조

달마일장금(경) 강의 (스님만 / 공양. 숙식제공)

왕초보에서 고수로 3박4일(1일 8시간 / 총 24시간 강의)
■ 강사 : 유천철학원 원장 011-838-1134
■ 장소 :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339번지 (여여암) ☎ 055)744-5300
■ 내용 : 포태법, 십이신살, 십이운성, 불귀법, 혼령잡는법
신도를 자연스럽게 천도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비방법
법복 안 손으로 짚어 1분안에 당신의 과거10년 미래10년을 꿰뚫는다.
첫날 오후 2시~ 6시 수강 후 회비 입금가능 함

최면 역학

최면 전생,빙의퇴마, 우울,각종심리 치료 (6회완성)
개인지도 직접상담
역학 명리학 속성완성 작명,궁합,사주
010-9342-9794
051-517-9793

부전스님 소임을 원합니다

010-5281-4481

불자정보

946호 |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 대지 약 90평, 건평 57평 • 법당 2층 27평, 스님 접견실
• 요사채 : 1층 접견실, 거실방
• 비구니 스님 적격임
• 가액: 2억 6천만원 • 현재 운영중
011-9625-1400

절 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 전 3076평 계곡 귀농 전망 A
• 마대산 1052, 배틀제 680높이 아래 정감록의 기술된 십승지
• 전쟁, 흉년, 천재, 이상형의 의풍리 넘어가는 길지의 명당 자리
• 급양도가 : 9,500만원
010-3288-131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강원도 속초시내(중앙동)
• 4층 건물에 3층. 80평
• 시설완벽, 몸만 오시면 됨 • 아미타, 대세지, 지장, 관음
• 2013년 3월 점안 • 전세 250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절충불가함
010-3750-5424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육임CD프로그램 효 사 비 결

정확합니다
당면사 / 일생사 / 성부단정이
확실 합니다.
정가 600만원
고복자 효사
02)738-8680

부전자리 원합니다

57세 비구입니다
(경남이나 경북으로 작은암자 원합니다)
052)269-0028

자연인으로 같이 할 남녀 도반을 찾습니다

산약재 공부와 더불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011-9534-2000

사찰 관리하고 기도할 비구, 비구니 찾습니다

불자 부부 및 출가행자 환영
(강원도)
010-9421-07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보시금 130만원,
숙식제공, 출퇴근 가능
010-6789-4952

불사에 필요한 그림 보시함

목단꽃,잉어,말,용,
소나무,달마도 등
어떤 크기 어떤
그림이라도 원하시는
작품을 직접 그려드립니다
010-8718-6262
국전수상경력 혜인 합장

교통 편리한 곳에 조그만 사찰 전세나 금액이 적다면 매매도 좋습니다

010-4668-1284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 게재일 : 접수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술에 취하여 밤과 낮을 알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사람, 그는 지금 자신의 생명의 뿌리를 마구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여, 이를 알아라. 탐욕과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대 자신으로 하여금 기나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라.

- 본생경 -

삼 보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은평,의정
- 법당 : 20
- 요사 : 20
- 포교원 1000/70
- 시설비 약간

- 위치 : 서울
- 대지 : 20
- 법당 : 50*2동
- 대지 : 1000
- 가액 : 6억

- 위치 : 포항
- 대지 : 350평
- 법당 : 26평
- 요사 : 3채방5개
- 가액 1억8천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 및 토굴안내

낙동강변 예쁜 토굴

- 총 대지: 약 200평 (반월리)
- 요사채 40평, 아자형 황토방 10평
- 마금산온천, 부곡온천 10분거리내
- 주남저수지와 낙동강변의 전망 최고
- 사찰형답장, 앞마당 잔디, 소나무 다수 식재
- 왕대밭과 솔향이 어울러진 토굴
- 양도가 2억 7천만원

토굴안내 (경주)

- 총부지 : 800평
- 법당 요사채 60평
- 아생화가 어울러진 아름다운 토굴
- 주변경관 수려함, 텃밭 200평
- 양도가 : 3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강원도 토굴 다량확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소재
- 부지 : 약 1000평(종교용지)
- 임법당 : 60평(청기와
- 기타 : 산신각, 용왕당, 석탑 등
- 가액: 2억 8천만원
- 특징: 속리산자락명당터에 위치한 포교 기도도량임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소재(호미곶)
- 부지 : 150평(대지)
- 법당 : 40평(3층 산신각, 청기와, 단청)
- 요사채 : 40평(2층, 방5개)
- 종무실40평(1층 주지실)
- 가액: 2억 9천만원
- 특징 : 관광명소에 위치한 해수관음도량으로 포교와 기도처로 아주 좋습니다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5848-0455 / 서울 010-5828-0455

종교관련시설터

- 요양시설, 수련원, 선방, 포교원 등
-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자락)
- 평수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 약 40평 있음
- 특징 : 산 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곳
- 토지거래 해제 및 개발완화로 문화관련 시설 및 신축도 가능합니다
- 가액: 20억

011-372-7744

토 굴 선 방 터

- 위치 :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관리지역)
- 평수 420평 ~ 3000평 (자율선택)
- 정남향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
- 평상 25만원~30만원까지

- 위치 :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 평수 약 2200평 (약 1/2 = 관리지역)
- 동향 서울에서 약 1시간 20분거리
- 평당 10만원 (필요시 인,허가 내줌)

010-2215-3657 (주인 직접 합장)

포교원안내

- 위치: 대전 등산로
- 대지 61평, 상가주택
- 건평 78평
- 후불탱화, 삼존불
- 가액: 2억 2천만원

010-6668-2249

임법당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지례
- 평수: 130평, 임법당 35평
- 삼존불, 소불, 신중단
- 방3, 거실겸 주방, 화장실
- 마당에 잔디, 주차 5대가능
- 텃밭 11평
- 가액: 5천만원

010-2101-252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종합운동장부근
- 시설 잘되어 있는 전통형사찰
- 대웅전(90㎡), 지장전, 삼성각, 전통목조
- 토지(대+전) 5,000㎡
- 양도가액: 8억 8천만원(융자있음)

010-7347-1010
이박사공인중개사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용호동
- 시장통 사거리, 위치 좋음 1층
- 법당, 삼존불, 산신, 신중, 후불탱화 다 맞춤
- 방1, 다락2개,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약 20평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 15만원
- 시설비 : 500만원 (가격 답사후 절충) 시설완벽

010-4747-879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 호원1동
- 대지 27평
- 법당 2층 조립식 약 20평
- 요사 1층 방 3개 화장실-세탁실
- 창고 - 소각장
- 부처님6분, 신중, 칠성, 산신, 영가단
- 교통편리 - 전철 10분, 버스 2분
- 주변에 주차할 수 있음
- 양도가액 : 2억

010-8900-4874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로변
- 2층 75평
- 전세 500만원 월 60만원
- 공양간, 찜질방
- 3층 75평
- 전세 1,000만원 / 월 60만원
- 법당, 산신, 관음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071-3718

포교원사찰 및 불교대학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 3층건물 3층, 100평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 차고, 심야전기, 인테리어 최고시설
- 법당 60평, 큰방2, 작은방1, 큰주방
- 욕실, 화장실 3층 내 스님 요사채
- 거실, 욕실, 주방, 방큰방 2개
- 전세 5000만원, 집기시설보시고 결정
- 옥상사용, 방수공사, 창고 방2개
- 꼭 하실분만 연락하세요

010-4912-5007

허가난 절터 안내

- 위치: 전남 해남군 계곡면 소재에 뒤에는 암벽 병풍산이 둘러있고 앞에는 큰호수가 있으며 조용한 수행처로 최고의 명당터입니다
- 평수 : 임야 약 3천 2백평
- 가액 : 평당 5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바람

010-4668-7380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하이면
- 평수 : 약 78평
- 슬라브 2채, 화장실 2, 방3 , 현대식주방
- 모든시설완비, 2층 기초 공사 완료
- 가액: 절충가능
- 산밑 조용함

010-3477-6638

신축 사찰(급)안내

- 남양주시 청학동,별내신도시 인근 (서울상계동에서 차로15분거리)
- 종교용지,전,도로 합500평
- 건평:147평(대웅전,지장전,사무동)
- 2013.5월/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됨
- 2011년 신축 (주차장 있음)
- 양도가격 : 18억(융자 6억포함)

010-4299-5388

암 자 안 내

- 위치: 부산 진구 부암동 최요지
- 법당: (미타, 약사, 관음, 지장) 호신불 150 공양실 1, 스님방 1, 텃밭, 소대
- 시설완벽 주변좋음, 몸만 오시면 됨
- 버스정류장 3분거리
- 100平정도(개인) 보증금 1천8백만원, 월 33만원
- 비품 시설비 절충

051)803-15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서울 송파구 문정동
- 문정역에서 약 3분거리
- 법당 : 원목탁자, 닷집, 108불
- 방3, 에어컨2대, 주차장
- 보증금 2천만원 월 145만원
- 시설비 無. 몸만 오실분
-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후 방문 선택

010-9259-0108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 평수 : 72평
- 법당 : 불상, 소불, 탱화
- 방3, 화장실2
- 가액: 9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41)841-577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주시 가흥2동 472번지 금 명 사
- 법당, 산신각, 방 2개, 욕실, 주방
- 월세 : 1년에 200만원 (가격조절가능)

011-9370-7513

임 법 당

- 대구시 동구 방촌동 861-98번지
- 평수 44평
- 주택 1, 2층 방 7개 , 도시가스
- 불사 관계로 급 양도, 꼭 하실분만
- 가액: 1억 5천만원

053-983-3920
010-9367-8184(보살)
010-5485-3920(스님)

아담한가옥(암자터)

- 위치: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 경관 좋은 명당 길지
- 동산 내 6부 능선, 가옥 20평
-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상가 마을이 한눈에 다 보임
- 가액: 2천 3백만원

010-2878-3380

포교원안내

- 위치 : 서대문구청앞
- 평수 : 50평
- 삼존불 108불, 산신, 칠성
- 방2, 상담실
- 보증금 1천 7백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2)394-74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부평시장
- 약 100평, 방4개, 식당 큼
- 삼존불 각탱화, 연등 400개 에어컨 대형 2대
- 화장실 두개, 시설비 3천만원
- 보증금 1000만원 총 4천만원 월 80만원
- 유동인구 많음 시췰 최상급
-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8754-6762

사찰(급)안내

- 위치 : 증평 관내
- 등기, 총면적 980평
- 법당 : 목조건물 20평 단청
- 삼성각 : 목조건물 5평 단청
- 요사채 : 기와집 단청 40평
- 무허가건물 : 창고 및 주차장
- 7층 석탑
- 급양도가 : 4억 7천만원

010-9468-6601

안 면 도

- 전원주택 및 사찰,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 명상센터, 체험학습장 등
- 건물 2동(48평, 30평)
- 대지, 전, 잡종지 : 5246㎡
- 국유지 : 990㎡
- 가액: 6억 5천만원
- 건물 1동 (48평)
- 대지 전 4555㎡ (가액 5억)

010-9253-2527

사찰(급)안내

- 경북 경주시 건천읍
- 대지: 약90평 기타임야
- 법당 약40평산신,용왕각
- 단석산 삼국유사 유래의 천년고찰
- 단청완벽,주차시설용이
- 가액:10억

011-878-1225

사찰(급)안내

- 도심속에 산사의 맛을 풍기는 사찰
- 위치: 부산 사하구 관내
- 대지 215평
- 가액 : 6억 9천만원
- 은행융자 3억원 (절충가능)

010-6237-596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진주에서 15분거리)
- 부지 : 1000평
- 법당 : 20평(목조) 요사채 25평 산신각 3평
- 조용하고 전망좋고 옆 작은개울 흐름
- 가액: 3억 (보시고 절충가능함)

011-586-8696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남구 대명 5동 2층
- 60평, 방3개
- 시설비 1,900만원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완비

070-8784-2010
010-5011-4096

포교원(급)안내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226-4호
- 법당 1, 방2개, 거실, 화장실, 엘리베이터
- 법당 일체, 붙박이장, 에어컨 A급시설
- 보증금 1500만원 / 월75만원 일체 시설비 보증금 포함 2,500만원
- 최고시설 5층 건물에 4층
- 전체 : 약 40평

010-6674-1356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사찰
- 면적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7억

- 위치 : 경남도시내
- 부지 : 3000평
- 법당 : 35평(전통목조)
- 요사 : 전각 4채
- 양도 : 32억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고창
- 종교용지 140평, 대지 550평 기타 2766평
- 법당 20평 1동 본관, 산신각, 요사채 등
- 가액: 5억 7천만원

010-8933-9937

토 굴 안 내

- 위치: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지
- 가액: 1억 2천만원(절충가능)
- 대지 100평, 법당 20평
- 공양간 7평, 스님방1칸 (종무소겸)
- 비구니스님에게 적합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9183-0654

포교원안내

- 위치 : 김해 경찰서 뒤
- 3층 중 1층 포교원
- 총평수 40평, 법당 약 20평
- 전세 8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800만원(조절가능)
- 주차 2대 가능

010-9376-7242

지리산 청학동 사찰 양도

- 위치 : 청암면 묵계리(계곡접)
- 면적: 1815평, 법당 목조 30평, 산신각 목조 7평
- 요사채 25평, 창고 1동, 해우소 1동
- 난방,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수도(자가 및 마을공동겸용)
- 양도가: 13억원, 최상의 명당터 동향임
- 부지조성완료

010-3403-3355

선 ~ 정토 터 안내

- 위치 : 경북 영주 시내에서 15분 거리
- 산에 위치하나 지목이 밭(과수원)임
- 산 정상까지 묘, 송전철탑 등이 전혀 없음
- 구포란형(龜抱卵形)으로 백두대간이 보이며 전망 경치가 좋음
- 도로(주차장포함), 전기, 부지 정리 완료
- 12년생 금강송 9백그루(3억 상당) 무상 양도
- 총 5,266평(평당 6만 3천원)(금/토/일 중 방문예약)

016 - 573 - 2032

사 찰 부 지

- 가평군 상면 율길리
- 금계포란형 2만평, 평당 16만원
- 이메일 주시면 토지주가 직접 번지를 공개하겠습니다
- 원로(큰스님) 모시고 좋은 일
- 하실분 현장답사 후 연락 주세요

soonlee2010@hanmail.net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경북 과학대학 근방
- 부지 2500평, 건물 70평
- 방6개, 폭포수 가까이 있음
- 경관 화려함
- 고사리 약 800평
- 가액: 3억 7천만원 (융자 1억 6천 포함)

011-556-550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포항시 해수욕장 앞
- 대지 약 700평, 건평 목조건물
- 1층 약 60평, 2층 약 60평
- 오존불
- 가액: 보증금 3000만원 / 월50만원 시설비 보시고 가격 절충

010-3516-6700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5 · 끝〉 마음챙김과 성장 & 치유력

존 카밧진 (의학부 교수 · 미국)

수행은 씨앗 뿌리고 물주며 보살피는 것



자신의 명상 돌보기

수행(cultivation)이라는 말은 농업과 관련된 용어다. 이 말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서 그것에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다시 말해 씨앗을 보살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씨앗들은 새가 먹거나 소들이 밟거나 비에 쓸려내려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씨앗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밭이나 과수원, 포도밭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배수 도랑을 내는 것이다. 마음챙김이라는 씨앗은 도토리의 잠재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 주기적으로 물을 주고 잘 보호해주면 도토리는 폭풍우로부터 믿음직한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거대하고 믿음직한 참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막 터를 잡은 자신의 명상을 잘 돌보며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처음 30~40년동안은, 명상은 매우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일상 그리고 서로 상충하는 마음의 요구에 의해 쉽게 짓밟히고 씻겨 내려갈 수도 있다.

명상에도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이제 막 명상을 시작했다면 자신의 명상 경험에 대해, 또 명상을 시작한 사실에 대해 사람들에게 섣불리 말하고 싶은 자연스런 충동에 유의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자신의 명상 경험에 대해 남에게 이야기 하는데 에너지를 모두 써버리기 쉽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거나 어떤 식으로든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라도) 명상이라는 것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시작도 하기 전에 또는 타인의 의견이 당신에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명상 습관이 붙기도 전에 명상의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

또한 당신이 만약 자신의 명상과 명상의 대단함에 점점 열성적이 되면 이것은 하나의 습관이 돼 조만간 당신은 명상보다 자신의 명상 '경험' 과 '통찰' 의 대단함, 그리고 마음챙김이 얼마나 놀랍고 변용적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허비해버릴지도 모른다. 당신은 명상의 지속적인 경험에 몰두하기 보다 자신의 이야기에 더 몰두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자기화(selfing)가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단지 이번에는 마음챙김 주제를 둘러싸고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끝없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신의 명상에 대해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얼마간의 관심과 주의, 의도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 한 사람(희망컨대 자신보다 경험이 풍부한 수행자나 최소한 자신보다 더 오래 명상을 해온 사람)과 어느정도 자세하게 자신의 명상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 당신에게 필요한 설명을 넘어 명상에 대해 타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마도 최선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온갖 난관에도 공식적인 명상의 추진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당신이 모으고 있는 초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탐욕, 끊임없는 불만족

불교에는 우리의 건강하지 못하고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마음 상태에 대해 말하는 매우 실제적인 방법이 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독(毒)' 이라고 부른다. '독 있는 마음 상태' 로도 불리는 이것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독은 탐욕의 독이다. 탐욕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지려는 충동을 말한다. 그것을 '독이 있다' 고 표현하는 것은 다소 강한 어조로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비춰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렌즈로서, 우리의 충동과 행동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까지도 큰 자각(알아차림) 속에서 볼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움켜쥔다. 그것은 어떤 때는 더 많은 음식과 더 많은 신용, 더 많은 사랑 같은 사소한 욕망이며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노력과 무관하게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커다란 욕망이다. 그러나 크건 작건 즉각적인 욕망의 대상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라고 느끼거나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주 비참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 하나를 얻고 나면 우리가 다시 완전해질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 그에 관한 한 그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정말로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우리는 틀림없이 다시 불완전한 기분을 느끼게 되며 다음 욕망의 대상을 가질 때까지 다시 움켜쥔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끝없는 불만족의 연속이다. 그것은 대규모의 집착으로서 붓다가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라고 선언한 인간의 경향성이다. 탐욕이 작동할 때 거기에는 항상 무엇인가(갖게 된다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어떤 것)가 빠진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있지만 종종 우리 자신의 내면보다 타인에게서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본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욕망해서는 안 된다거나 목표와 야망을 가져서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욕망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 자각(알아차림)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조절하도록 할 대 자신과 타인 속에서 괴로움을 덜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그러나 이것을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결코 쉽지 않다.

"자신이 욕망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면 괴로움 덜 일으킨다"

"하루에 얼마나 자주 성내는지 알아차려 보라… 깨우침 온다"

성냄, 탐욕의 이면

미움 또는 성냄은 탐욕의 이면이다. 성냄 역시 욕망에 대한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한다. 이것은 사물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달라졌으면 하는 욕망이다.

당신이 원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 당신이 벗어나고 싶거나 움찔 물러나거나 밀쳐내고 싶은 것, 또 없어지게 만들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로부터 성냄이 생길 수 있다.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성냄이라는 이 하나의 범주 속에 뭉뚱그려진다. 화, 미움, 격노, 두려움 같은 여려 개의 큰 감정과, 회한, 똥함, 언짢음 같은 보다 작은 감정의 핵심에 놓여있는 것도 바로 이 성냄이다.

하루에 얼마나 자주 성냄이 자기 안에서 이런저런 식으로 고개를 드는지 알아차려보라. 이 실험은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줄 수 있다. 누군가 어떤 말을 하거나 당신과 다른 방식으로 식기세척기를 작동한다든가, 당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당신을 비난한다든가, 당신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공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등에 대한 통렬한 언짢음 같은 것이 고개를 쳐든다.

그러나 우리의 혐오적 위축을 어김없이 촉발하는 사건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내린 뜻밖의 행운일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그것에 준비가 돼 있다면 말이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안녕이란 것이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생황이 전개 되는가에 달려있는지 알게 해주는 무수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얼마나 모든 것이 우리 식대로 전개되기를 원하는 데 무의식적으로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대접받기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 사람 모두가 우리를 대접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런 사례들에서 자기화(selfing)의 요란한 흐름과 그러한 내적 이야기가 얼마나 큰 독성을 갖는지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에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자신이 그것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성찰할 때 자신의 마음에 홍수처럼 밀려드는 수많은 사례들에서 그러한 흐름을 틀림없이 느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냄을 마음챙김하는 것은 심오한 치유의 작업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이라는, 자아가 부여한 무의식적인 구속을 해체시키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후라 해도 조금의 자각(알아차림)은 우리가 그 순간에 매우 실제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만약 우리가 방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성찰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에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진정으로 잘한 일인지 성찰한다면 우리는 성냄의 영원한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것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일로부터 생기는 몸의 위축되는 에너지를 느끼도록 허용하고 그것을 더 분명히 볼 것을 기억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순간의 거친 에너지에 대해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강요를 통해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통제하지 않고도 그것이 스스로 일어나 자신의 복잡한 임무를 다한 뒤 사라지게 내버려두는 의도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다. 마치 꺼진 촛불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말이다.

망상과 자기 충족적 예언의 함정

세 번째 독인 망상은 지혜의 정반대이다. 이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 이라고도 한다.

망상(delusion)과 착각(illusion) 모두 서로 다르고 복잡한 사물과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이렇게 우리는 이 순간 자신의 협소한 이야기 거품 속에 살면서 원인과 결과를 자주 혼동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확하고 잘못 안내된 생각과 감정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된다.

검증되지 않은 우리의 망상적 이야기들이 자기 충족적 예언의 성격을 띠는 경우는 너무도 많다. 우리는 언제나 특정 관점을 지지하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증거들을 끌어모아서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믿어버리고 만다. 이것이 망상이다. 이러한 망상의 수많은 전형들을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장면에서 엿볼 수 있다.

언제나 지금이 적절한 때이다

탐욕, 성냄, 망상 사이에서 우리는 무척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어느 누구도 비난할 필요가 없으며 심지어 우리 자신도 비난할 필요가 없다. 또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마음 상태의 작용과 그것이 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이 매 순간 어떻게 느끼는지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알아차려야 할 대상은 매우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챙김은 우리에게 방향을 안내하고 우리 자신으로 성장해나가도록 도와주는 엄청난 변용적 힘과 치유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바로 여기에 존재하며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 접근 가능하다. 마음챙김 명상에 대해 처음 알게 됐을 때 당신이 몇 살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또 당신이 '마음챙김' 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명상으로서의 마음챙김이 약속하는 바에 매료됐을 때 당신의 나이가 얼마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마음챙김의 약속은 당신의 삶을 되찾도록 해주는 것이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려준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일은 나이에 상관없이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은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이 언제나 적절한 때라고 할 수 있다. 그저 당신의 시계를 확인해보라.

이글은 '불광출판사' 에서 펴낸 〈존 카밧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불자정보

946호 |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 게재일 : 접수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TEL 02) 2004-8215
FAX 02)737-0696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원
가로 7cm 70,000원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사찰터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신녕면
- 갓바위 뒷편(답)
- 절터 3000평 • 건물 60평 1동
- 화장실 2칸 1동, 창고 1동
- 대형차 진입가능
- 대지 조성완료
- 스님이 말한 소꾸리터
- 가액: 6억

010-6253-3107

사찰안내
- 위치: 경북 포항시 해수욕장 앞
- 대지 약 700평, 건평 목조건물
- 1층 약 60평, 2층 약 60평
- 오존불
- 가액: 보증금 3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보시고 가격 절충

010-3516-6700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온천동(사거리코너)
- 평수 75평
- 상가건물 5층 중 3층 (E/L)있음
- 보증금 3천만원 / 140만원 (관리비 없음) • 시설비 3500만원
- 시설 최상급, 즉시 법회가능

010-6857-3579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연산동
- 대로변 2층 40평
- 시설완벽.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200만원

010-9309-8555

지리산 장군대좌 기슭 (천왕봉 줄기)의 토굴터 안내
-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강천리 426번지
- 규모 전 716.9㎡(약 218평)
- 특이사항
  -30평의 건축허가필 받음
  -수도관, 정화조 설치 토목공사 완료됨
- 가액: 오천만원(조정가능)

010-7675-4075

사찰안내
- 위치: 화성시 발안 신도시
- 종목 : 사찰 (건물 3동임)
- 대지 230평 이상
- 건평 : 요사채 1층 30평, 2층 법당 28평
- 별채 신축건물 25평
- 식당겸용 방2칸 15평 이상
- 심야보일러 뒤 야산 전망좋음
- 가액: 6억 6천만원

010-3058-5660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강서구
- 지하철 7분거리(도보)
- 평수 28평(2층)
- 법당, 방, 주방, 화장실
- 전세 2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2천 6백만원

010-3696-1626

포교원안내
- 위치: 경북 경주시 동방동
- 법당 (백의 관음 , 지장 .소불) 용왕당.
- 요사체 안채(상담실. 스님방) 바깥채로 되어있음 • 토지: 190평
- 사찰분위기의 포교원이며 스님이나 보살님도 운영가능하고 주위가 조용하고 경관이 좋습니다
- 혹 전원주택용 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가능할듯합니다
- 양도가액: 2억 (융자있음)

053)964-1556

절터안내
- 경북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부근
- 의성 IC에서 10분거리
- 서남향, 배산임수형
- 대지 건물포함 1,200평
- 가액: 3억 (조정가능)
- 화강암돌 • 원두막 1채
- 80년 된 소나무 100그루 이상

010-4811-0301
010-9828-5973

토굴(땅)급 안내
- 위치: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 총 746평중 대지 423평, 목장용지 300평, 전 23평
- 주택 25평, 수도, 전기, 지하수관정, 해우소 등
- 마당까지 포장도로 차량진입 (20대 주차공간)
- 주택값도 안되는 금액으로 양도합니다
- 가액: 7,800만원 • 은행융자 1,900만원
- 실 인수금 5,90만원

063-643-1363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도 시흥시
- 크기 : 가로 8M +세로 7M
- 시설 : 관음, 지장, 석존, 화엄신중, 산신, 위폐단
- 법당 1, 거실1
- 시설비 700만원
- 건물: 3층건물에 3층
- 보증금 200만원 월세 25만원
- 예약 후 방문요망

010-8487-8211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주택 독채
- 대지 80평, 포교원 월세
- 집2채, 방5개, 욕실, 거실, 화장실2, 입식부엌
- 마당에 정원석등 아주 넓음
-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700만원(불상별도)

010-5630-1223

포교원(급)안내
- 대구지하철 1호선 3번 출구 3분거리, 동대구역 10분 거리
- 3층건물 중 2층 50평
- 시설,최상급 ,삼존불
- 후불탱화, 신중탱화, 용왕탱화, 산신탱화, 지장불 외 소불다수
- 방 2칸, 상담실, 살림가능
- 보증금 3백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1천 6백만원 (조절가)
- 몸만 오시면 법회 바로가능

010-2296-0108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동래시장 부근
- 2층 40평, 옥상 다용도 사용
- 전,월세 8백 60만원
- 시설비 3500만원(절충)

010-2303-2169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 군포시 재궁동
- 평수: 100평, 상가건물
- 법당, 공양실, 접견실, 방2개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160만원
- 불교대학운영, 다도반, 참선수행
- 전철역세권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3777-9496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 대지 350평, 법당 12평(방 5개)
- 공양간 5평, 주차장 약 100평
- 산신당, 용왕단(몸만 오면 됨)
- 가액: 2억 6천 5백만원(부동산사절)

010-2372-7681

사찰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1억 7천 (융자 3,000만원 포함) 다른용도변경가능, 전세가능

010-8993-3596

암자(토굴)안내
- 위치: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남동마을) • 대지 200평
- 법당, 요사채, 산신 컨테이터 3동, 스님방3개
- 종남산 밑 물 좋고 수행하기 좋은 도량
- 하천길 98평
- 가액 : 몽땅 6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 연락바람

010-3709-2472

몸은 苦의 그릇… 열반에 뜻을 두어라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26)

네 비구가 괴로움과 즐거움을 말하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네 명의 비구가 나무 아래 앉아서 서로 질문을 하고 있었다. 한 비구가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무엇일까?"

한 비구가 말했다.

"천하의 괴로움 가운데 음욕을 참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은 없을 거야."

다음 비구가 말했다.

"아니야, 세간에서 굶주림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을 거야."

또 다른 비구가 말했다.

"아니, 세간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성냄을 참는 일일 것이야."

나머지 한 비구가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일 거야."

그렇게 네 명의 비구는 괴로움의 이치를 따지면서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이때 부처님께서 멀리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셨다. 부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희들의 논의로는 괴로움의 이치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의 괴로움 가운데 육신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성냄, 놀라움과 두려움, 음욕, 원망과 재앙 따위는 모두가 몸이 있음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무릇 몸이란 것은 온갖 괴로움의 근본이요, 근심과 재화를 담는 그릇이다. 속을 태우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게 되는 온갖 일의 실마리이다. 삼계(三界)의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것들이 서로가 해치고 죽이며, 그것에 얽매어 죽고 살기를 쉬지 못하는 것이 모두가 그 '몸'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다. 세간의 괴로움을 떨치고자 한다면 마땅히 적멸을 구하여야 한다. 마음을 껴잡아 바름을 지키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없애면 열반을 얻게 되나니, 이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게송을 말씀하시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주 오랜 옛날에 5통을 얻은 비구가 있었는데 이름은 정진력이었다. 산속의 고요한 나무 아래 있으면서도 도를 구하고 있었는데, 네 마리의 짐승이 주위를 돌보아 주고 있었기에 언제나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네 마리 짐승의 첫째는 비둘기이고, 둘째는 까마귀이며, 셋째는 독사이고, 넷째는 사슴이었다. 이 네 짐승들은 낮에는 다니면서 먹이를 구하고 날이 저물면 돌아와 잠을 자곤 했다. 네 짐승이 어느 날 밤에 서로 물었다.

'이 세상의 괴로움 가운데 무엇이 으뜸일까?'

까마귀가 말했다.

'배고프고 목마를 때에는 몸이 여위고 눈은 캄캄하여 정신이 편하지 못하여서 몸을 그물에다 던지고 칼날도 신경을 쓸 틈이 없다. 우리들의 몸을 죽이는 것은 이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굶주림이 가장 괴로운 것이라 생각해.'

그러자 비둘기가 말했다.

'음욕이 왕성하면 차분히 돌아보고 생각할 수가 없어. 몸을 위태롭게 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들은 모두 이 음욕으로 인한 것이야.'

다음엔 독사가 말했다.

'성내는 마음이 일단 일어나면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도 가리지 못하게 되지.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제 스스로 제 목숨을 끊기도 하지.'

이번엔 사슴이 말했다.

'나는 숲에서나 들에서나 항상 마음이 두려워서 편안하지 않아. 사냥꾼과 범이며 이리 등 온갖 짐승들을 두려워하므로, 비슷한 소리라도 들릴라 치면 얼른 달아나 구덩이나 언덕에 몸을 던지곤 해. 도망치느라 어미와 새끼가 서로 버리기도 하면서 간담을 두근거리게 되지. 이걸 보더라도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장 괴로운 것일 거야.'

며칠 후, 새로 배움의 길에 들어선 네 명의 비구들이 능금나무 아래서 수행하다가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다. 한 비구가 말했다.

"봄날 온갖 초목이 꽃을 한창 피울 때 들에 나가 재미있게 노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지."

또 한 비구가 말했다.

"집안 친척들이 좋안 날에 모여서 풍악을 울리며 노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지."

"재산과 보물을 많이 쌓아 놓고서 하고 싶은 것은 다 갖고, 수레와 말과 입는 것 따위가 다른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어서 어디 나가기만 하면 눈에 확 띄어서 지나다니는 이들이 눈여겨본다면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일 것이야."

"예쁜 아내와 첩에게 화려한 비단 옷을 사뿐히 입히고 향내가 자옥한 속에서 교태를 보며 실컷 즐기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일 것이야."



삽화 · 강병호

그때에 정진력이 대답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모두가 아니니 괴로움의 근본을 구명하지는 못 한 것이다. 천하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몸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그릇이어서 근심과 두려움이 한량이 없다. 나는 이 때문에 세속을 버리고 도를 배우면서 뜻을 없애고 생각을 끊으며 4대를 탐내지 않는 것이다. 괴로움의 근원을 끊으려 하며 열반에만 뜻을 두는 것이다. 열반의 도란 고요히 사라지며 형상이 없으니 근심과 걱정은 영원히 끝나게 된다. 그렇게 되고서야 비로소 크게 편안해질 것이다.'

네 짐승들은 이 말을 듣고 이내 열리고 풀렸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5통 비구가 바로 지금의 나이고, 그때의 네 짐승은 바로 지금의 너희 네 사람이다. 전세에 이미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들었거늘, 어째서 오늘까지도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느냐?"

비구들은 이 말을 듣고 깨달았다.

부처님께서 또 이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 즐거움이란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란것을 설하셨다.

"옛날에 보인이라는 국왕이 있었다. 이웃 나라의 네 왕과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었다. 한번은 그 네 명의 왕을 초청하여 한 달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마시고 먹고 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이별하는 날에 보안왕이 물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네 왕의 대답은 지금 너희들이 한 말과 다르지 않았다. 보안왕이 그들을 위해 그 즐겁다는 일들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임을 설명하자, 네 왕은 그 말을 듣고서 깨달았다. 이때 보안왕은 바로 지금의 내 몸이요, 그때의 네 왕이 바로 너희들 네 사람이다. 이때 비구들은 이치를 깨닫고 도를 얻었다. (〈법구비유경〉 제4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㉖



공양의 기쁨, 인연의 기쁨

수덕사 대중공양 가던 날

2008년 부산불교 신도회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수련대회를 간 곳이 공림사(公林寺)였다. 그때 주지 스님이 절 소개를 하시기를 "이곳은 스님들의 수행처로 선(禪)을 하는 곳이어서 일반 기도처와는 다른 곳이고, 수행에만 몰두하고 계시는 스님들이 계신다."고 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공양을 왔더라도 인연을 밝히지 않아야 하며, 그냥 소리 없이 해야 합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멋있게 들렸다. 우리도 이런 소리 없는 대중공양을 해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임의 이름을 '공림(功林)공양회'라 지었다. 비록 작은 성금이라도 마음으로는 공덕이 수풀처럼 우거질 수 있는 원력을 일으켜야 한다는 취지로 지은 이름이다.

2006년 여름 하안거 때는 해인사에 모밀 600인분을 가져가서 직접 공양간에서 스님들과 함께 모밀을 삶아 공양을 올린 적도 있고, 그 밖에 통도사 송광사 등 여러 수행 처를 다녔다. 올 해엔 나들이가 좀 많아졌다. 지난번엔 운문사 대중공양을 다녀왔고, 다음달 7월 6일 논산 훈련소 군 법당 장병들

5계만 잘 실천해도…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 보며
좋은 인연의 소중함 알 게 돼

의 수계법회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더 많은 나들이를 하게 될 때도 있다. 한 번 동참한 사람은 또 다른 회원을 데려오고, 자꾸만 밀려드는 회원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나이 탓인지 혼자서 버스 2대 3대를 감당하기가 이제 힘겹다. 부득이 70명의 회원 안에서 사정이 있어 못 갈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버스 한 대만 움직이는 걸로 했다.

6월 14일 우리는 버스를 빌려 수덕사로 갔다. 마침 서울에서 오시는 혜인 스님과 수덕사 정혜사에서 설정 큰스님을 친견하기로 되어 있었다. 스님들의 마중을 받으며 도착한 정혜사는 마당에서부터 감동, 감동이었다. 몇 백 년을 이 마당 가운데에서 커 오면서 너무나 많은 염주 알을 키워온 큰 보리자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빽빽이 너무 많은 열매가 푸른 잎과 함께 가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웬지 그 나무를 보면서 큰 신심이 일어 나무를 안고 돌기부터 했다. 그랬더니 하나 둘 도반들이 따라 돌기 시작했다. "왜 나무를 안고 돌고 있느냐"고 누가 물었다. 내가 "이 나무 안고 관세음보살을 염한다면 한 바퀴를 돌때마다 10만 독을 부르는 영험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모두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았다. 모두의 얼굴이 나와 같이 행복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지 않은가. 백팔 염주 알을 한 알 한 알을 굴리면서 관세음보살을 외우는데 이렇게 수 억 만개를 가진 큰 나무를 안고 한 바퀴 돌게 되면 그러하지 않을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린 너무 공짜를 좋아하고 있는 것이었다. 스스로 그만큼의 원력과 간절한 기도여야 하는데 말이다. 그런 다음 법당 참배 마치고 공양을 했다. 자리를 정돈하고 먼저 혜인 스님의 짧은 법문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설정 스님의 친견과 법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후 멀리서만 뵈었던 설정 스님이 법문을 하시기 위해 내려 오셨다. 살며 생각하며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일러 주셨다.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히고 업(業)을 맑히는 방법으로 염불하고 참선하며, 주력을 함으로 좋은 말 하는 습관을 길러 언제나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누구에게나 격려와 힘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 그리고 표정하나에도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니 재가에서 스님들과 같은 수행은 어렵지만 5계만이라도 잘 실천한다면 절대 삼악도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부지런히 자기를 돌아보는 수행을 하라는 당부의 법문을 주셨다. 어쩌면 절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법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몇 번을 들어도 좋을 법문이란 생각이 들었다. 도반 모두의 얼굴에 환희심이 가득해 보였다. 이런 모습들이 신심의 시작일 것이란 생각을 했다.

연꽃모임 야외 법회 날

매년 6월 16일은 연꽃모임 야외 법회를 떠나는 날이다. 올해로 연꽃모임 나이가 37년째 되었다. 모임이 만들어지던 당시의 회원들은 이제 할머니가 되었다. 이번엔 좀 가까운 곳으로 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길을 나서면 세 곳의 절을 둘러오기를 바라더니 올해부터는 한곳이라도 천천히 편히 다녀오자는 의견이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군위의 수태사로 정했다. 주지 스님은 35년 전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스님이 살고 계시는 절은 처음이었다. 일 년에 정초기도, 초파일 백중기도, 동지기도, 정도에만 신도들이 오는 시골 절이었다.

의상대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절 수태사(水太寺)다. 마당에는 잔디만큼이나 푸른색으로 질경이 나물들이 가득 자라서 씨앗을 물고 있었다. 봄이면 이 질경이를 뜯어 효소를 담근다고 했다. 그리고 여름에는 눈도 시원하고 마당도 시원해서 그냥 두고 키운단다. 맑은 하늘의 공기며 조용하고 아늑한 시골 외가의 분위기 같은 편안함이 깃든 절이었다.

미리 준비해둔 각가지 나물반찬이며 정성 가득한 공양을 들면서 회원들의 얼굴이 모두 행복에 젖어있었다. 공양이 끝나도록 길 떠날 생각을 않는다.

스님은 흔하디흔한 것이지만 염주 하나씩을 들려주시고 이웃 친환경 포도밭에서 어제 처음 출하했다는 포도를 한 송이 씩 차중에서 들라며 사 주셨다. 인연은 그렇게 좋은 것이었다. 서로에게 주고 또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좋은 것 같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옛말 그대로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그 "조왕탱화"
사업장의 조왕신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을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가 더해가는 전통탱화입니다.





초안 (먹물 밑그림)



상호 (전통조왕상호)



문양 (고대문양)

조왕탱화 상세안내

1 정의 :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2 유래 :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3 명호 :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4 구성 :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5 한국의 대표적인 조왕탱화 : 양산 통도사 비로암, 충남 계룡산 갑사, 대구 팔공산 선본사,
부산 삼광사, 경남 밀양 표충사
6 필수 :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7 내용 :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기법 : (1) 출초 – (2) 배접 – (3) 아교포수 – (4) 도채 –
(5) 바림 – (6) 문양 – (7) 금니 및 황선 쫓침 – (8) 금박붙이기 –
(9) 상호 – (10) 틀 싣기 – (11) 발미(전통기법 그대로!)
■ 금어 : 원장 – 전국 공모전 불교미술분과 심사위원
화원 – 문화재 기술자, 기능자, 전수자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규격 : 가로 61cm × 세로 91.5cm
■ 문의전화 : ☎ 051)332-0045 / 010-9216-0988

성 유 불 화 원 금어 조성철 합장


대행 스님

내 스스로 나를 다스리면서 그릇을 비워야

큰스님 : 어떻게 형제법회 회원이 아닌 분들이 이렇게 와서 주욱 앉았습니까?

사회자 : 큰스님께 미처 말씀 못 올렸는데요, 서울 시내의 여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불자 선생님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큰스님 말씀 듣고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큰스님 : 우리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뜻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즉, 불(佛)이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처라고 하면서 그대로 부처 노릇을 하는 걸까요? '마음이 즉 불이다. 부처다.' 이러는 거기에는 삼학(三學)의 진의도 들어 있으며 또는 두두물물(頭頭物物)이 부처라고 하는 그 뜻도 거기 다 들어 있으며, 우리들의 일체 생활하는 법이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악과 선도 거기에 다 들어 있고 말입니다.

그 뜻을 새기자면 참으로 많은 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마음! 마음이 도대체 어떤 놈입니까? 부처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두 가지, 부처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하는 중생과 부처가, 즉 말하자면 둘이 아닌 그 도리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그 생명들만 해도, 그 의식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한두 개라야죠. 그러면서 마음은 색깔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또는 볼 수도 없으니까 광대무변하다는 얘기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 뜻을 잘 아신다면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몸이 집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시자(侍者)일 수도 있습니다. 즉, 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은 듣는 데 따라서, 보는 데 따라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 각자 여러분의 진실한 그 마음은 어디로 가 버리고, 그저 나오는 대로 움죽거리죠. 그저 대수롭지 않은 일도 화를 벌컥 내고 누가 조금만 기분 나쁜 말을 해도 화를 벌컥 내는 그 마음, 그 듣고 화내는 마음은 뭐며 또는 '내가 이럭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은 또 뭡니까?

마음이 부처라고 해서 '나도 부처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라는 욕심이 들어가서 더군다나 더 공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중생들이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모두가 뭉쳐 있습니까? 악과 선이 거기에 다 있다고 보는데 그 마음 하나의 지배인이 통솔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닦아라." 또는 "닦을 게 뭐 있어서 닦느냐?" 이렇게 말은 모두들 청산유수로 하지만 진짜 행하려면 어렵습니다. 닦아야 하고 다스려야 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가다 보면 '허허, 이게 닦을 것도 없고 다스릴 놈도 없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다스리는 놈, 또 다스림을 받는 놈, 그놈들이 따로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몸속에서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악업 선업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여러분이 지은 바 그대로 입력이 돼서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나오는 거죠. 낱낱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은 속아요. 바깥 물질세계에서 보고 듣는 대로 속고 끄달리고,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속고 끄달리죠.

그런데 마음이면 그냥 마음이지 왜 한마음이라고 그랬느냐? 우리 이 한 몸을 봐도 한마음이요, 바깥의 모두를 봐도 한마음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날 때 뼈와 살을 빌려서 몸 하나를 받았지만, 과거에 살던 인연 인과로 인해서 그 업이 뭉쳐서, 악업도 뭉치고 선업도 뭉쳐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요사한지 말입니다. 참 묘하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조잡하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땅에 붙어사는 진드기와 같기도 해요. 우린 한 그릇에 붙어서 진드기처럼 사는 하치 않은 벌레와 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요. 저 나무나 식물을 보면 진딧물이 착 그냥 앉아서 졸졸이 졸졸이 붙어 있죠. 어떤 땐 그걸 보면서, 예전 얘기입니다마는 '아하! 우리 인간도 한 나무에 붙어서 저렇게 진딧물처럼 빨아 먹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왔다면, 그 장하고 그 넓고, 앞뒤가 막힘이 없이 일체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이 세상의 물질이 오로지 다 공(空)했다고 하는 뜻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속에 과거에 살던 인과가, 예를 들어서 남을 이익하게 해서 선업을 받은 것도 있고, 남을 악하게 해서 악업을 받은 것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건 참회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를 보고 꿰뚫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경을 달달달 외워서 아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못났든지 잘났든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스스로 나를 다스리면서 그릇을 비워야 홀연히 맑게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를 수없이 오고 가면서 공부들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질문하시기 이전에 내가 먼저 질문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서로 질문하면서 주고받는 한마당입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꽃 한 송이를 든 것이 한마음의 뜻이고, 다보탑(다자탑, 多子塔)에 반좌를 내준 것이 한자리의 뜻이며, 진드기 발 하나도 빼놓지 않는 것이 한발의 뜻이라는 겁니다. 평발! 진드기 발도 발은 발입니다. 그게 평발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은 발. 나무 한 그루가 이 땅에 섰어도 그것도 바로 빼놓지 않음입니다. 평발이라는 것은 부처님 발이 뭉툭하게, 그냥 반듯하게 돼서가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발이 한발로 이 자리를 같이 디뎠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만이 위대하고, 자기 자리만이 자기 자리인 양, 자기만이 우뚝선 것인 양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또 진리가 그러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몸이 있어서 움죽거릴 때에, 실오락지 하나 걸치지 않고 비워진 그 마음이라야 실오락지 하나 버리지 않는 뜻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질문도 하고 그러십시오. 물론 부처님께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애들이고 어른이고 그 차원에 따라서 대기설법(對機說法)을 하셨지만, 나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동문서답처럼 여러분한테 던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들으면 없어지고 보면 없어지고….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옛날에 제가, 그러니까 한 10년을 넘게 산으로 산으로 다녔습니다. 다니다 어느 날 하도 지쳐서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저녁에. 그때 그믐밤이 돼서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자성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날까지 10년 동안을 다니면서 본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신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얼마나 봤느냐고 물었다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들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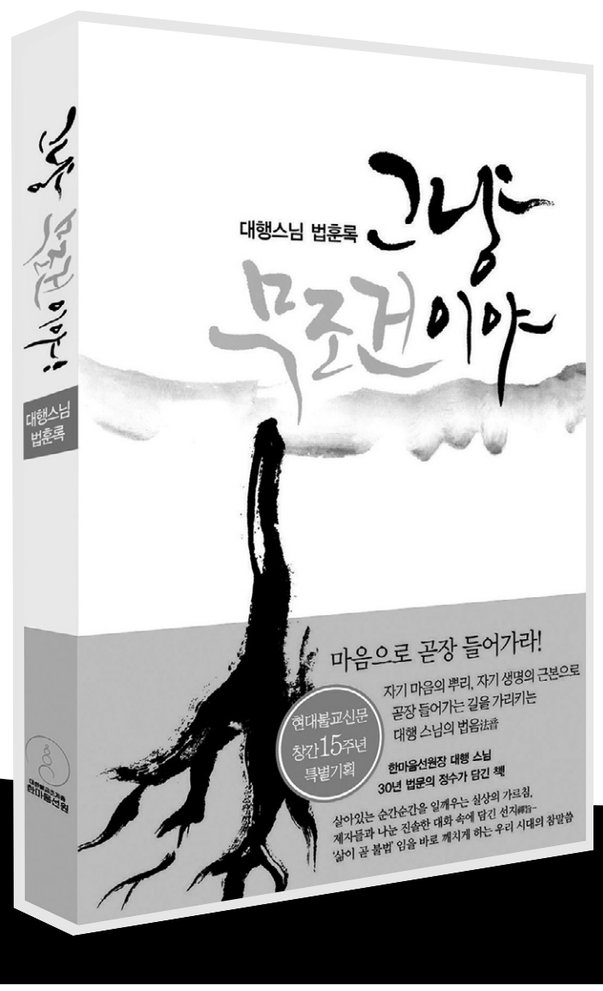
질문자1(남) : 보았다고 하는 그 말에 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데에 있기 때

☞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모든 걸 한마음 속에 되놓아야 내가 홀연히 밝아져

☞ 29면에서 계속

문에 봤다고 말을 하면 본 것이 아니니 그냥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은 빛이 없기 때문에 밤이지 낮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서 봤다, 안 봤다 하는 그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에 집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스님 :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거는 말씨름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말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는 우리 차차 알기로 하고요. 스스로 알아야지 내가 대신 밥 먹어줄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네놈만이 알 수 있다고, 네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보고 안 보고 알아서 다 증명할 수 있는 놈이 바로 그놈이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한테 채찍질을 하고 가느냐 하면, 우리 지금 한생각에 이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도리를 부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그 진의를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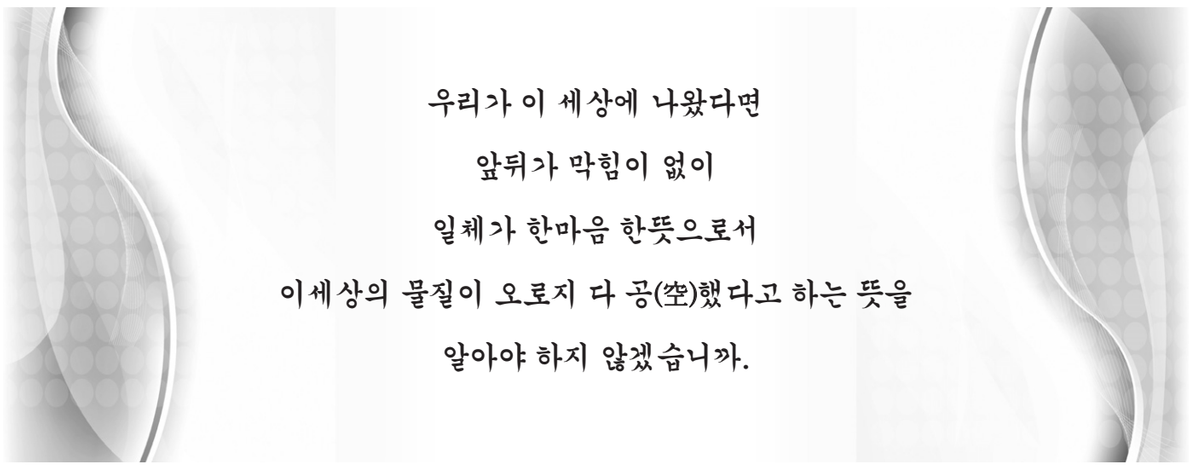
이 몸 가지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낮에 아무리 봐도 다 보지 못해. 다 보기는커녕 오히려 산란만 일으키지. 본 것도 없이 산란을 일으키고 그러지. 그런데 이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은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로 듣고 보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부처님께서는 "듣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이 도가 아니니라. 이 세상을 다, 삼라대천세계를 다 본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그러셨죠.

그러니 지금 손이나 발이나 귀가 각각 내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이다 해도 핵심은 이거를 한데 모아서 한생각이 두뇌로 올라가서 두뇌에서 착, 그 결정을 짓는 데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팔이 이렇다, 다리가 이렇다, 눈이 이렇다, 귀가 이렇다 이런 말 할 겨를도 없는 대답이라야 된다 이 소리지. 그러니 그런 것을 누구가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캄캄한 데서…. 그전에도 얘기했을는지 모르죠. 밤이나 낮이나 그거를 둘로 보지 말라 하고선 산을 헤맸단 말이야. 그래 누가 보면 미쳤다고 그럴 테지?

그런데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다니다 보니까 밤도 밤이 아니고 낮도 낮이 아니더라고. 그런 말, 그런 생각은 전부 하고들 있을 거라고요, 우리 지금 신도님들이.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부 공해 버렸는데 밤이 아니다 낮이다, 낮이 아니다 밤이다 이런 겨를도 없을 테죠. 내가 아까부터 얘기한 게 다 가 버리고 없다고, 지금. 그러니 한 사이가 없다고. 우리가 지금 살아도 사는 사이가 없고, 가도 가는 사이가 없고 와도 오는 사이가 없고, 봐도 본 사이가 없고 들어도 들은 사이가 없다 이 소리야, 너무 많아서. 어떤 거 들었을 때 내가 들었다고 할 수 없잖아. 공했어, 모두가.

그걸 어떻게 여러분을 이끌어서 참으로, 여러분이 실천하게 할 수 있을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것만 해도 그렇죠. 정말 손바닥만한 나라가 지금 반동강이로 잘려서 있지 않나, 전자에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휘달리질 않았나, 중국 사람들한테 휘달리질 않았나, 사글세 방을 들어 가지고서는 온갖 거 다 내놓으라고 휘달림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무 비참하지 않았남? 나 어려서만 해도 너무 비참해서 신발도 못 신고 반쪽이 다 닳아나간 거를 앞에만 신고 다닌 적도 있었으니까. 지금은 누구도 부럽지 않죠? 그러나 그때 뭘 먹고 살았든 간에 상관없이 지금 아무리 좋은 거를 먹어도 여러분은 귀한 줄을 모르죠. 그래서 조금 저거 하면 다 내버리고 그러죠, 흔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음식이 쉴 사이가 있나? 허허허….

그 대답을 잘하려면…. 보세요. 지금 24시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나가는 동안에 흐르는 물 소리를 들었죠, 흐르는 물을 봤죠, 또 그게 얼었죠, 파도를 쳤죠, 잔잔했죠, 온통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렸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죠, 떨어지죠? 사계절을 다 볼 때 말입니다. 이거는 이것대로 '참, 나 아님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잔잔한 물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아주 숙연해지고 잔잔해집니다. 파도 치는 걸 보면 아주 산란해집니다. 그러니 이것도 스승이요 저것도 스승이요. 야, 가을에 낙엽이 져서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 구슬프고 말입니다. 날이 추우면 아주 구슬퍼지죠. 요렇게 간사해요. 그러고도 그렇게 간사한 게 간사한 게 아니라 그게 철칙이란 말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저 나무들을 보면 모두가 나같이 살라고 하는 겁니다. 나같이 살라 이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냥 다 쫓아가면 안 되죠. 또 그게 좋으면 그와 같이 살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올 때도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본 게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 게 없습니다. 왜 본 게 없느냐? 그 눈 가지고는 금방 보고 금방 넘어가고, 금방 보고 금방 넘어갔기 때문에 담아 두질 않았어요. 담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심안(心眼)으로 본다면 천체를 보겠죠?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모든 걸 보기는 하나 듣지 못하면 또 안 되죠? 만약에 귀머거리가 보기만 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테레비 나오는 데도 그렇습니다. 테레비가 말이 안 나와, 그림만 나오고. 그런 격이다 이거야. 그럼 무슨 재미입니까? 그렇죠? 또 이제 들리긴 하나, 말은 나오나 보이질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천안통, 천이통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이거를 또, 보고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남의 마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네?

그런데 사람과 사람끼리만이 아닙니다. 천체입니다. 아까도 저기 처사님이 얘기했지만 내 마음을 소에게 주면 소가 내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죠. 소 마음을 내 마음속에다 넣으면 내 마음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험을 안 해 보셨는지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차원이 개구리의 마음이라면, 내가 개구리가 돼 줘야 한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위대한 그릇이다 이런다면 내가 위대하게 거기 접근을 해야 수준이 맞아서 한마음이 되죠. 돼지라 하면 내가 돼지의 마음 그릇하고 똑같이 돼야만 돼지하고 한마음이 될 거라 이겁니다. 내가 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물이 한마음이 되죠? 그와 같은 겁니다. 이것이 한마음이란다고 그냥 말로만 한마음 한마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천체가 다 그렇습니다. 태양하고도 그렇고 금성이나 수성이나, 달, 별, 모두가 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도 다 그렇고 무정물 또는 식물, 일체 생물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왜 '심즉시불(心則是佛)' 이라고 그랬느냐.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내가 알아야 한마음이 돼서 그 그릇에 딱 맞추죠.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를 넣어도 그릇이 모자라지도 않고 크지도 않더라. 삼천대천세계를 그냥 씨앗 하나에다 넣어도 맞고, 요런 그릇에다 (컵을 들어 보이시면서) 넣어도 맞고, 허허허…. 그러니까 꺼내도 줄지 않고 넣어도 늘어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모든 게 아무리 꺼내도 줄지도 않는 것이요 그릇이 비지도 않는 것이요, 또 아무리 넣어도 그릇이 모자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두드러지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이러한 그 마음, 즉 말하자면 내가 저 마음하고 똑같아야만이, 즉 소가 한 마리 있다면 내가 소의 차원하고 똑같아야만이 한마음입니다. 그것 하나를 비유했지만 천체가 다 해당되죠. 즉, 부처님께서는 이걸 만나면 이 그릇에 맞춰서 하나가 되고, 저걸 만나면 저 그릇에 맞춰서 하나가 되고, 요걸 만나면 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이러니 그걸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도 없고 안 지을 수도 없고, 토끼라고 그럴 수도 없고 부처라고 그럴 수도 없고, 사람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보이는 것만 그러냐. 안 그렇다. 보이지 않는 중생의 마음도 똑같이 그렇다 이거예요. 지옥에 들은 아귀, 축생도 그 그릇대로 맞추어서 바로 하나가 됐으니, 부처님 그 마음이 모르는 아귀 중생의 마음속에 드시니 그냥 마음이 밝아지더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아주 차디찬 물에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그대로 따뜻해지더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분은 자동적으로 찬물에 하나가 돼서, 즉 뜨거운 물에는 저항력을 느낄 테니까 찬물에다 찬물을 부어 가지곤 거기서 뜨듯해지는 거라. 이렇게 자동적으로 뜨듯해지는 그거! 아귀, 축생 중생은 찬 거를 뜨듯하게 할 수도 없고 차게 할 수도 없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뜨겁게 할 수도 있고 차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많게 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대로 나고 든다 이거야. 그 차원에 알맞게 자꾸자꾸 들고 나니까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어느 것 하나 부처님이 아니 되시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마음을 알려면 과거를 또 알아야 돼. 타심통은 남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고, 또 숙명통은 과거에 어떻게 지내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뭘 하고 왔는가? 뭘 어떻게 저질렀는가? 이런 것도 한순간에 알아내는 거야. 이게 뭐 두고두고 심판을 해 가지고 알아내는 게 아니야. 그런데다가 부처님께서는 소가 콧구멍이 막혔듯이, 그냥 가고 옴이 없이 찰나찰나, 자기가 원자에서 입자가 수만 개가 돼서 그냥 분자로 화하듯이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확 퍼져 가지곤 전체를 들이고 내면서, 또 안으로 들여도 한 사이가 없고, 간 사이가 없고 온 사이가 없어. 그렇게 활짝 그 입자가 화해서 분자가 돼서 들이고 내는 작업을 해도 그냥 뭐 여여해.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신족통이라고 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팩스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부처님의 그 뜻을 가고 옴이 없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게 펼칠 수가 있느냐는 것도 되고, 어느 것 하나 건져 주지 않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싸악 외면하고 그냥 창살 없는 이 마음으로다가 딱 가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거죠.

또 '건져준 게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부 부처님 아닌 분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개구리를 다 건져 줬어도 개구리가 바로 자기인 까닭에 건져 준 게 아니고 건져 줌을 받았다 할 것도 없느니라 하는 겁니다. 이 뜻을 잘 새겨야 합니다. '받았다 할 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둘이 아닌 까닭에 받았다 할 것도 없느니라 한 거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꼬집어서 여러분을 가르칩니까?

그러니 가다가도 집이 내려앉은 걸 보면 '아이구, 저 집이 내려앉았네, 저거 어떡하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저 매사를 보고 듣고 하면 그냥 그렇게 돼. 누가 죽는 걸 보면 슬퍼서 또 울어지죠? 요놈들이 다 그렇게 작용을 해, 그냥. 화나게 작용을 안 하나, 또 나가서 난봉을 부리게 만들지를 않나, 나가서 술 마시게 안 하나, 또 저놈을 원망하게 안 하나. 그냥 매사 걸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 그걸 다스리면서 모든 걸 거기다가 맡겨 놓는다면 바로 그것들이 점점점점 다 그냥 녹아져. 그 맡겨 놓는 자리는 바로 숙명통 컴퓨터에 입력이 된 데니까 입력이 돼서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다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다 되놓는다면 그게 다 무너지면서 홀연히 밝아진다 이거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91년 7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에스굿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아시아나항공 (OZ) 수요일 출발 !!
마하연 추천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품격 99만원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품격 139만원

■ 대한항공 / 아시아나 항공 미얀마 직항 성지순례
– 황금바위 짜익티오 미얀마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몽유와 / 만달레이 / 헤호 7일 요금문의
(110미터 와불과 38층높이 입불이 모셔진 몽유와 일정)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세계속의 성지순례
• 스리랑카 핵심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와 몰디브 해변 휴양 8일 요금문의
• 베트남 / 캄보디아 6일 요금문의
• 민족의 백두산 5일 요금문의
• 용문석굴과 중국불교의 중심 소림사 5일 요금문의
• 몽고 테를지 울란바토르 5일 요금문의

부산 출발 성지순례
• 양곤 (베트남항공, 타이항공 출발)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태국 5일 요금문의
• 중국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4일 요금문의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마하연 추천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139만원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4일 9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4일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 석가장) 5일 11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 5일 119만원
• 대만 5일 119만원
• 라오스 (직항) 6일 139만원
• 스리랑카 (직항) 6일 199만원

(주) 마하연 투어 ☎ 02)365-7747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전문가이드동행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 + 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여행자보험가입

불자 세상보기

한반도 평화운동 이제 범국민적으로



송묵 스님
한반도평화대회 공동집행위원장, 조계종 포교부장

종교계가 정전 60주년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평화를 위한 행보를 본격적으로 걷는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6·25 전쟁이 발발한 25일을 전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한다는 목적에서다.

한반도는 남북관계 경색 등 전쟁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각계의 수많은 노력에도 아직 한반도에는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계종은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봉행위원회(이하 평화대회)' 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범어사 수륙재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6월 16일에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군총신도회·포교원·군종교구의 주관 하에 '6.25 전사자 위문위령법회'가 열렸으며 이에 앞선 6일 현충일에는 '청소년 어린이 평화대회 사생 그리기 대회' '교리경시대회 및 한반도평화대회 동영상 공모' 등이 진행됐다.

7월에는 한반도 평화대회 세미나가 열리며, 9월에는 부산지역 사찰과 유엔광장 및 거리를 '평화의 빛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6·25 희생자를 위한 수륙제와 법회, 음악회도 마련된다.

평화를 위한 움직임은 불교계만의 것이 아니다. 천주교는 6월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달로 삼고 전국 교회에 미사 전후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달 동안 끊이지 않게 기도를 하고자 함이다. 개신교 연합단체와 NGO 등 48개 단체도 6월 26일까지 평화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모든 종교인들의 마음은 하나다.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종교계를 넘어 사회 각계에서도 이러한 의지가 모아지고 있다. 정치·종교·경제·시민사회 지도자 66명은6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을 선언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맞아 남북관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합의점을 도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첫 걸음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각계 지도자들은 통일을 지향하는 한 북한은 민족공동체를 함께 이뤄가야 할 협력의 상대라는데 대전제가 기반이다.

한국전쟁 당시 UN군에는 21개국(참전 16, 의료지원 5), 175만명이 참전해 4만명 전사해 자유 민주주의를 지켰다. 지금도 부산UN공원에는 2300명의 용사들이 안장돼있는 현실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이들의 희생을 더 값지게 하기 위해서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어 평화롭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 전체, 개개인이 기울여야 할 때다. 서로 총부리를 겨눈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 과정에서 이산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아픔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불자들은 부처님이 설하신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포용의 정신을 갖춰야 한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해서 스스로의 선근을 높이하고 사방을 먼저 두루 살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꼭 필요한 것이다. 동북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하며 보다 큰 협력을 진행해야 할 때다. 어려움을 탓하지 말고 화해와 용서로 상생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세계일화의 가르침을 자비구현으로 승화하기 위하여 불자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자. 불자들의 노력이 세계 곳곳에 미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때다.

발언대

동국대 재가이사 정관 개정 논란

재가 이사를 조계종을 통해 추천하는 정관 개정을 두고 마찰을 빚은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과 동국대 총동창회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특히 총동창회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종관위도 임의단체의 문제 제기에 호불호할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두 단체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감정적 문제 제기보다 대화로



덕문 스님
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원장

동국대 총동창회가 6월 17일 제1회 동국포럼을 열고 '동국대 재단 준법 정관 채택 촉구 동문-불자 1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을 결의하고 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두 동국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날 동문들이 "부패한 스님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동국대의 발전은 요원하다. 스님 이사 정수는 3~4명이 적당하며 뒤에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성토했다는 이야기에 승가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자괴감마저 든다. 연세대 이사를 초청해 연세대의 발전 사례를 들었다고 한다. 여러 교단이 출자한 학교와 단일종단이 출연한 대학을 단순 비교한다는 점도 마음이 아팠다.

사실 동국대 이사 선임은 '종립학교 관리위원회' 추천과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동국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이미 재가이사 선임 관련 교육과 학기술부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음에도 총동창회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국대는 종단에서 출자한 종립대학이며 조계종 종헌종법이 재단 정관보다 상위법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종단에서 이사 추천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와 불리하다며 문제 삼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실 총동창회장인 이연택 이사 역시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추천과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동국대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절차를 거쳤다.

어디까지나 정관 개정은 종단과 학교법인의 일로서 총동창회는 나설 권리는 없다. 다만 동문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일전 결의문에서도 밝혔듯이 종단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종립대학은 당연히 종단의 종법 틀에서 관리돼야 하며, 이는 학교를 설립한 종단의 자존심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종법에 따라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소임을 다할 것이다.

지금도 필자는 총동창회의 의견이 애정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립보다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동국대가 발전할 수 있다.

"정관, 법에 맞게 고치자"



신관호
동국대총동창회 사무국장

이번 동국대 재단 사태를 계기로 확인된 동국대학교의 현 상황, 특히 경영구조는 한마디로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것이 동창회의 시각이다. 법에 맞게, 사리에 맞게, 투명하게, 대학답게 규칙을 만들고 원칙대로 해나가겠다는 확고한 생각이 애초에 없고 원칙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 종법과 관행으로 포장돼 왔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는 25만 동문과 1천만 불자의 마음속으로부터의 오래되고 간절한 바램을 대변해 재단·종단의 변화를 촉구하는 역사적인 행동을 결단하고 나섰다. '준법'정관 채택과 그 정관에 따른 이사선임은 그런 상징성이 매우 큰 중대한 사건이다.

현행 사학 관련 법령이 정관에 반영토록 명시한 핵심 내용과 기준은 △전체 이사정원중 설립자측 이사 1/4, 개방이사 1/4로 선임하되 △개방이사는 그 자격과 절차를 정관에 명문화해야 하며 △전체 이사의 3분의1이 교육경력자여야 한다.

그러나 현 동국대 재단정관은 이사정원 13명중 9명을 조계종 승려로 못박아 당연직 이사로 정한 총장을 빼면 이사 자리가 3인밖에 안 남아 개방이사 정수를 맞출 수 없다.

무엇보다 입법과정에서 수없이 논란이 되어 그 취지와 내용이 자명한 개방이사에 대해 종단은 "승려가 개방이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명문규정이 정관에 없지 않으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교육경력 이사도 명확한 기준 없이 편의대로 운용하는 형편이어서 스님이사 중에는 사찰부설 유치원 경영 이력으로 자격을 인정받는 등 외형상 법적 요건은 맞췄더라도 실질에서 과연 대학경영을 책임질 능력이나 자격이 되는지 내부에선 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다.

동국대 동창회는 승려이사의 숫자를 일단 7명으로 줄이고 개방이사 자격 기준과 선출절차를 명시하는 등의 법이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동문과 외부인에게 문호를 개방해 대학경영에 일대혁신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만인 서명을 계기로 촉발된 동국대 지배구조 혁신은 반드시 성사될 수밖에 없는 시대의 필연이다.

社說

위기의 불교출판, 불자들 독서가 해답

인류가 지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던 것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기록할 수 있는 문자를 발명했기 때문이다. 문자의 발명과 함께 이를 담을 수 있는 종이 기술이 발전했고, 인쇄 기술도 발달하게 됐다. 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오래 전의 역사와 철학을 최대한 원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한국불교 역시 유수한 기록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근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출판물을 통해 문서포교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런 유지를 이어받은 현재 한국불교의 출판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 박람회인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렸으나 2년 전부터 참가하지 않았다. 이유는 서울국제도서전이 너무 아동위주 체험 행사로 변질됐고, 비용과 인력 대비 홍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국제도서전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도서 나열과 할인 판매에 그치고 있어 전체 참가 출판사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불교계 관련 출판사들의 참가가 전무한 것은 불교 출판업계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불교계 출판이 악재를 거듭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독자·시장·저자 층이 얇기 때문이다. 불자가 책을 읽지 않으니, 시장은 좁아지고, 저자 층도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출판사들은 재정에 허덕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 있지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불자들이 책을 읽는 것이다. 지난해 불교 관련 도서 400종 중 114종이 법문 및 에세이였다는 것은 불자들이 대부분 쉬운 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쉬운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교양을 함의할 수 있도록 책을 읽어야 한다. 지적 수준이 바탕되지 않는 종교는 단순한 맹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출판 관계자의 지적은 불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금강大 유쾌한 도전 더 기다려져

설립 10년이 갓 넘은 천태종립 금강대가 하버드대의 75번째 동양학총서 〈유가행자들의 불교적 토대:인도 동아시아, 그리고 티벳에서 유가사지론과 그 수용〉을 영문으로 출간해 화제다. 120여 년 역사의 하버드 동양학총서는 최고 권위의 학술총서로, 외부와 공동 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책에는 금강대 정병조 총장과 김천학 불교문화연구소장의 서문으로 시작해 람버트 슈미트하우젠 교수(독일 함부르크대), 반 데어 쿼잎 교수(미국 하버드대), 빙첸 교수(중국 스촨대), 요시무라 마코토 교수(일본 와세다대) 등 세계 유식학 전공자 34명의 논문이 실렸다.

〈유가사지론〉은 현장 스님 구법행의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중국 법상종을 비롯해 티베트 불교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러한 큰 비중에도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그동안 일본학계가 주도한 유식연구는 부분적 연구가 주였다. 유식관련 전세계 주요 학자들이 유가사지론의 전반을 ㅍ고 그 유통의 흐름을 한국 대학이 짚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런 높은 성과를 이룬데에는 금강대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불교철학자 출신의 정병조 총장의 리더십이 큰 힘을 발휘했다. 그는 취임초부터 줄 곧 인문학으로 특성화된 정예 교육이 빛을 발하고 있다며 대학이 발전하려면 특성화를 통해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정 총장은 필리핀 세부의학종합대학교를 비롯해 해외의 여러 대학들을 직접 찾아가 발로 뛰며 학술교류협정 체결을 활발하게 이끌어 내기도 했다.

여기에 천태종단의 절대적인 재정적 지원도 이런 성공적 요인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인문학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나라에 기여하라는 취지라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앞으로도 진력하는 금강대와 정병조 총장의 유쾌한 도전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19-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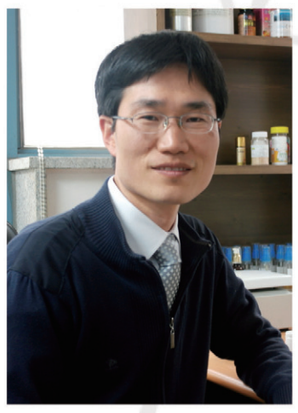
특허 제 10-1179171호 산삼줄기세포 간질환 예방 및 치료 용도 특허
특허 제 10-126315호 산삼줄기세포 노화방지 및 용도 특허
특허 제 10-1128953호 산삼줄기세포 암의 예방 및 치료 용도 특허 외 다수

당신은 지금까지 '진짜 산삼'을 드셨습니까?

강원도 50년근 산삼 24뿌리분이 진하게! '셀원' 출시! 7일이면 몸이 달라지고 한달이면 다시 태어납니다!

"산삼배양근, 장뇌삼 등은 산삼 흉내일 뿐 산삼과 100% 동일한 효능은 '산삼줄기세포'! 산삼 줄기세포 - 산삼의 효과 100% 일치"

다 좋지만 '산삼' 만 하겠습니까?



▲ '셀원'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

장뇌삼, 산삼배양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

대한민국 사람 중 산삼 좋은 것 모르는 사람 있나?

"노화방지, 면역력강화, 정력증진, 위, 간 보호등에 탁월한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셀원'을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은 식물 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에 강한 확신을 보였다.

"산삼배양세포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섭취할수 있는 훌륭한 개발품이다. 산삼배양세포를 먹으면 진세노사이드를 비롯한 많은 유효 성분들이 피를 말끔하게 풀어주고, 상처난 곳의 회복을 도우며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몸을 지켜준다" 며 '셀원' 의 산삼배양세포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산삼배양세포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 이라며 "많은 분들이 산삼배양세포를 먹어 산삼의 영양을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특히, 출시를 기념하여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특별한 기회에 산삼 줄기세포를 느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 **전설 속의 명약 '산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초가 뭐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첫손에 꼽는 것이 있다. 바로 산삼이다. 산삼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보거나 먹어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산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나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산삼을 먹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산삼은 전설속에 존재하는 약초인양 멀게만 느껴져 왔다.

동양의학 최고의 신약(神藥)으로 칭송받는 산삼은 몸을 보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막힌 곳을 트여 줄 뿐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만들어 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시중에서 산삼을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수십년 묵은 산삼을 찾았다 하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산삼은 그야말로 존재는 하지만 볼 수 없는 전설 곳의 명약인 샘이다.

◆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심마니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조차 산삼을 발견하면 '심봤다!'라고 외칠 만큼 산삼은 발견하기 힘들다. 산세가 좋고 풍수가 뛰어난 심산유곡에서 일조량, 토양, 고도, 지형 등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야만 생명의 씨앗을 틔우는 고귀한 존재인 산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식물이며 그 효과 또한 무궁무진하다.

허준의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등에 따르면 산삼은 원기를 북돋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장, 폐, 간, 신장 등 오장육부의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한다. 그리고 항암작용, 노화예방, 정력증진, 동맥경화, 갱년기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한다. 진세노사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포닌 또한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이상 함유되어 있다.



▲ 국내에서 개발한 식물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은 2010년 11월 (네이처)지 표지논문으로 살렸습니다.네이처지는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분야 학술지입니다.

◆ **50년근 산삼의 신비!**

산삼이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 또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모색해 왔다.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삼' 과 '장뇌삼' 이다. 하지만 이는 유전적인 차이로 인해 산삼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없다. 그리고 최근 많이 볼 수 있는 '산삼배양근' 이 있다. 하지만 유전적, 후생 유전적변이 발생으로 인해 최종 산물변이 발생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산삼의 잔뿌리만 배양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한 신기술이 나왔다. 산삼의 '줄기세포' 만을 순수하게 분리·배양하는 기술(특허 제 10-1064518호)저장근을 가지는 초본식물의 형성층 유래식물 줄기세포주 및 이의 분리 방법)이 개발된 것이다. 이 신기술을 통하여 '한국산삼감정협회' 에서 인증한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를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강원도에서 채취한 50년근 산삼의 효능·효과를 유전적 변이없이 100% 완벽하게 복제한 것으로 실제 산삼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좋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산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50년근 산삼 24뿌리 '셀원'**

강원도산 50년근 산삼 24뿌리가 담겨 있는 '셀원' 은 그동안 극소수만이 누려왔던 산삼의 효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셀원'은 특허 받은 기술을 통해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 24뿌리분을 추출하여 한병 한병에 진하게 담아냈다. 섭취와 흡수에 좋은 액상형태인 '셀원' 은 하루 1병씩 손쉽게 섭취가 가능하니 진정 '하루에 산삼을 한뿌리씩' 먹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는 옛날 임금님조차 이루지 못했던 불로장생의 꿈을 현대에 와서 이룬 쾌거라 할 수 있다. 이제 '셀원' 을 통해 하루 산삼 한뿌리를 먹는 호사를 누려보자. 출시를 기념하여 선착순 300분에 한정하여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상담문의 : 080-810-8100

세계가 놀란 '산삼 줄기세포'

산삼 줄기세포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속속 들어나...

산삼은 피로회복, 면역력증진, 정력 증진, 위·간 보호 등에 뛰어나며 사포닌이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 이상 포함되어 있다. 과거부터 신비의 명약으로 불리며 신성시된 약초로 시중에서도 찾아보기 매우 힘들 뿐더러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최근 식물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분리 배양한 특허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세계적으 로권위있는 '네이처바이오테크놀로지'의 표지 논문으로도 게재된 바 있는 이 기술을 동양의 신비로 불리는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에 접목한 것이다. 그결과 산삼의 줄기세포인 '산삼 배양세포' 에서 우리몸을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신규물질이 다량 발견된 것이다.

국·내외 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이 산삼배양 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활성 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히로 등록되었다.



▲ 산삼배양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 활성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국내·외 언론의 집중적 관심 받아...



SBS KBS MBC YTN Discovery

SBS 8시 뉴스 | "세계 최초 식물줄기세포 분리 • 배양, 한국이 해냈다."
KBS 9시 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 • 배양 세계 첫 성공"
MBC 9시 뉴스 | "나무도 복제 • 식물줄기세포로 항암제 생산"
YTN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 • 배양 첫 성공"
디스커버리채널 | 2011년 다큐멘터리 3편 제작, 세계 30여개국에 방영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표지 논문 게재 (2010년 11월호 표지논문)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항상 지치고 피곤하신 분
- ☑ 기력이 떨어지고 힘에 부치는 분
- ☑ 산삼의 힘을 직접 느껴보고 싶으신 분
- ☑ 새로운 활력을 원하시는 분
- ☑ 손발이 차고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 실시!

50년근 산삼의 신비 「셀원」 의 출시를 기념하여 특별행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만나보기 어려웠던 50년근 산삼의 신비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300분에 한정하오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산삼줄기세포 셀원으로 만나는 확실한 변화!

면역력 강화, 기력향상, 「셀원」 한박스에는 50년근 산삼 24뿌리의 산삼배양세포가 들어있어 떨어진 기력을 보충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지칠줄 모르는 강한 체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제품명 : 셀원 · 주요원료 : 산삼배양세포 추출물, 가피타히보추출물, 영지추출물, 참당귀추출물, 솔잎 추출물, 복합황금추출물 외 · 제품구성 : 1박스 20ml×30병 · 제조원 : (주)에이지아이생명과학

문의전화 080-810-8100

노화방지 면역력강화 정력증진 혈당조절 위·간 보호 등에 탁월!

'셀원'의 기술력!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셀원' 에 담긴 원천기술은 2010년 10월 "네이처바이오테크놀로지" 에 논문으로 게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소개되고 학계의 진정을 받았습니다. 세계유일의 식물줄기세포 원천기술로서 국내·외 엄격한 평가기준을 통해 그 기술적 성과가 높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2011년 12월

Green Certification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기술인증 2011년 2월

NET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 (NET 인증) 2011년 12월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2008년 8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9001

(ISO 9001 품질인증) 2007년 9월



한국산삼감정협회 50년근 삼삼인증서